

Korea SMEs and Startups Agency

2019 Annual Report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2019 연차보고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2019 연차보고서

Korea SMEs and Startups Agency 2019 Annual Report


KOSME


중소기업에 희망을!
벤처기업에 날개를!
청년들에게 일자리와 꿈을!


Korea SMEs and Startups Agency
2019 Annual Report


KOSME 중소기업진흥공단
Korea SMEs and Startups Agency



 https://www.instagram.com/kosme_official

 <https://www.youtube.com/c/kosme>

 <https://www.facebook.com/kosmekr/>

 <https://blog.naver.com/sbcblog>

KOSME 중소기업진흥공단
Korea SMEs and Startups Agency

Great Possibility

CONTENTS

발간사	04
연혁	06
비전 및 전략체계	08
주요 사업	09
경제동향과 중소기업동향	10
2019년 중진공 동향	14
2019년 중진공 주요 뉴스	16

2019년 중소기업진흥공단 사업

2019년 사업추진 방향 및 실적	20
기업진단	22
정책자금 융자·출자	24
글로벌화 및 판로확대	49
인력양성	69
기술지원 및 현장애로 해결	87

고객만족도 제고 및 경영효율성 강화

현장 중심의 고객서비스 향상	100
소통과 공감을 통한 활기찬 조직문화 구축	110

2020년 중소기업진흥공단 사업추진 방향

2020년 사업추진 방향	114
---------------	-----

부록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출자회사 현황	120
조직도 & 운영위원 및 임원	124

기업의 가능성은
규모와 비례하지 않습니다.

세계를 움직일 대한민국 중소기업,
그 열정에 에너지가 되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의 진흥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국민경제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 일반적으로 중소기업이라고 표기하였으나,
특정 지표 및 사업의 고유명사는 중소기업 그대로 표기하였음

발간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지난 41년간 국가 경제의 뿌리인
중소벤처기업 지원에 앞장서온 원스톱 종합지원기관입니다.

2019년은 공단 설립 40주년을 맞이하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사명을 변경하고 중소기업을 위한
대표기관으로서 역할을 재정립하는 한 해였습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지난 41년간 국가 경제의 뿌리인 중소기업 지원에 앞장서온 원스톱 종합
지원기관입니다. 특히, 2019년은 공단 설립 40주년을 맞이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 사명을 변
경하고 중소기업을 위한 대표 지원기관으로서 역할을 재정립하는 한 해였습니다.

2019년은 미·중 무역 분쟁, 일본 수출규제, 브렉시트, 홍콩 사태 등 대외 경제 위기의 파고로 인해 많
은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겪은 한 해였습니다. 이에 중진공은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에 적극
대응하고, 수출 지원 확대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특히, 일본 수출규제 피해 기업 지원을 위해 정책 자금을 추가 공급하고(당초 대비 6,880억 원 증액) 금
리인하를 시행하였으며, 해외 대체 바이어 발굴 서비스를 신규 추진하고 피해기업의 수입선 다변화를
지원하는 등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한 바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 시장 트렌드에 맞추어 온라인 수출통합플랫폼 운영 체계를 기반으로 한 온라인 수출지원
을 확대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전자상거래 전용 국제물류상품 개발을 통해 578억 원의 물류비를 절
감하여 기획재정부 혁신·협업·시민참여과제 평가에서 우선 과제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공장 핵심인력 양성 사업을 추진하여 11,046명의 핵심인력을 양성하는 등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교육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공(대)기업 및 지자체들과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관련 협업모델을
구축하여 동반성장 및 지역균형 일자리 창출 효과를 제고하였습니다.

이처럼 중소기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해 혁신성장을 이끌고, 일자
리 창출 및 사회적 가치 실현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낸 공로로 2019년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에서 A등급을 획득
하고,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중 1등을 차지하였습니다.

2020년에는 코로나궐 위기로 인해 인적·물적 교류가 제한되고 불
확실성이 확대되어, 제조 및 서비스 기업들의 가동률 급락, 교역 감소
등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진공은 비상대책반을 신속하게 구성하고, 앰블런
스만을 기업현장에 긴급 파견하는 등 대응을 통해 정책자금 7,000억
원을 신속히 공급하여 유동성 지원에 앞장섰습니다. 이와 더불어 온라
인 전시회, 대체 수입선 발굴 등을 통해 우리 중소기업의 수출 위
기를 극복토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의 중진공 연수원을 생
활치료센터로 제공하는 등 전사적으로 위기 극복에 동참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중진공은 정부정책을 최일선 현장에서 수행하는 중소벤처
기업의 든든한 성장 동반자로서, 한국판 뉴딜정책에 발맞춰 기관운영
전반을 디지털 전환하겠습니다. 8대 선도산업 등 혁신성장 분야와 더
불어 D.N.A.(Digital, Network, AI) 및 Big3(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
스, 미래차) 분야를 중점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수요자 중심의 정책서비스를 위해 비대면 방식 지원을 확대하
고,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이어달리기 방식의 연계 지원을 강화
하는 등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이 대한민국의 혁신성장으로 이어
지도록 그 견인차 역할을 다 하겠습니다.

이사장 김광도

연혁

Korea SMEs
and Startups
Agency

AR 2019

HISTORY

1979년

79. 1 중소기업진흥공단 설립 (7부 3실, 195명으로 발족)
*중소벤처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 및 기금 설치(1978.12)

1980년대

80.10 중소기업연수원(안산) 개원
*5개 연수원(2019.12 기준)

85. 2 국내 지역분·지부 설치
*전국 31개 지역분·지부(1918.12 기준)

89. 9 중소기업 구조조정사업 수행
*중소벤처기업 경영안정 및 구조조정에 관한 특별법

1990년대

93. 4 신경제 5개년 계획에 의한 구조개선사업 실시

93. 12 창업보육센터 설립

95. 7 (주)SBC인증원 설립

95. 12 (주)중소벤처기업유통센터 설립

98. 9 IMF 경제위기상황에 따른 직접대출 전면실시

98. 9 중소기업 수출지원 강화를 위해 수출BI 설치
*14개국 22개소(1918.12 기준)

2000년대

00. 1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공공기금 전환

05. 6 한국벤처투자(주) 설립

07. 4 무역조정·사업전환지원센터 개소

중소벤처기업과 함께
더 큰 세상을 향합니다!

2010년대

08. 6 정책자금 융자 및 해외마케팅지원창구 단일화

09. 1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지정

11. 3 청년창업사관학교 개교
*전국 17개소로 확대(2018.12 기준)

14. 7 본사 지방이전 완료
*경상남도 진주시 동진로 430

14. 8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출범
*중소벤처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 따라 기금 설치(2014.1)

17. 3 기업인력애로센터 개소 및 전국 16개 센터 설치

18. 6 (주)중진공파트너스 설립

19. 4 기관 명칭 변경 발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19. 4 중진공 창립 40주년 기념 비전 및 CI선포식

Korea SMEs and Startups Agency

KO
SME



비전 및 전략체계



중소벤처기업의 경영안정과 성장지원을 통해 국민경제 주역으로 육성

혁신성장과 공정경제를 선도하는 중소기업의 성공 파트너 (중소벤처기업에 희망을! 벤처기업에 날개를! 청년들에게 일자리와 꿈을!)



중소벤처기업 혁신성장 촉진	공정경제 사회적 가치 실현	수요자 중심 서비스혁신	국민신뢰 경영기반 구축
---------------------------	---------------------------	-------------------------	-------------------------

혁신성장유망기업 스케일업 촉진	혁신기업 중심공정경제 생태계 구축	혁신기술 활용 서비스 고도화	청렴하고 공정한 공공기관
창업 및 수출 활력 제고	일자리 창출주도	서비스품질 및 효율성 제고	참여와 협력의 소통문화 확산
제조혁신 및 기초산업경쟁력 강화	안전 확산 및 사회적경제 활성화	미래성장을 위한 조직역량 강화	기금의 효율적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케일업 지원실적 • 혁신성장 인프라 구축 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정경제 기반 신산업 지원 실적 • 공·대기업-중기 협업공제 가입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계별 PCRM구축도 • 모바일시스템 활용 건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렴도 평가 • 공공데이터 개방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창업 사업화 성공률 • 중소기업 수출기여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 기여 인원수 • 내부 일자리 창출 인원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극행정 사례 발굴 건수 • 해외직판 물류비 절감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중개 반영 건수 • 지역 민·관 협력 사업 건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마트제조 전문인력 양성인원 • 소재·부품·장비산업 지원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인식 향상도 • 정책자금 사회적 경제기업 지원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가격증 취득인원 수 • 신규사업 발굴 건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금운용평가 • 정책자금 리스크 관리 (신용 VaR)

주요 사업

01 기업진단
진단을 통한 기업맞춤연계 지원

02 정책자금 융자
미래성장성이 높은
중소벤처기업에게
정책자금 융자 지원

03 글로벌화 수출(마케팅)
수출초보 기업의 국내외
판로 개척 지원

04 인력양성
중소벤처기업 인력
유입·양성·장기재직 유도

05 기술컨설팅·사업화
중소벤처기업 현장의 경영기술
애로 해소 및 생산성 향상

중소벤처기업 보유기술의
사업화 성공률 향상 지원



2019년 국내 경제동향

Korea SMEs and Startups Agency

AR 2019

DOMESTIC ECONOMIC TREND

2019년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소비 및 수출 증가세가 둔화되고 투자 부진이 이어지면서 2018년 (2.7%)보다 낮은 2.0%의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실질 국내총소득(GDI)과 실질 국민총소득(GNI)는 각각 전년대비 0.4% 감소, 0.3% 증가하였다.

수출은 미·중 무역 분쟁, 일본 수출규제, 브렉시트, 홍콩사태 등 대외 여건으로 인해 반도체, 석유화학, 석유제품 등 업황이 부진하여 12개월 연속 감소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역수지 392억 달러로 11년 연속 흑자 및 3년 연속 무역 1조불 달성을 기록하였다.

고용률은 작년대비 0.2%p 상승하였고, 실업률은 3.8%로 동일하였다. 이는 일부 업종의 업황부진과 구조조정, 산업구조 및 인구구조 변화 등의 영향이라고 보여진다.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대비 0.4% 상승하였고, 생산자물가지수는 전년대비 0.02% 상승하였다.

국내 주요 경제지표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경제활동 (실질, 전년대비 증가율, %)			
국내총생산 (GDP)	3.2	2.7	2.0
국내총소득 (GDI)	3.3	1.4	-0.4
국민총소득 (GNI)	3.3	1.2	0.3
수출입동향 (억 불)			
수출	5,737	6,049	5,422
수입	4,785	5,352	5,032
수지	952	697	392
고용동향 (천 명, %)			
경제활동인구	27,748	27,895	28,186
경제활동참가율	63.2	63.1	63.3
취업자	26,725	26,822	27,123
고용률	60.8	60.7	60.9
실업자	1,023	1,073	1,063
실업률	3.7	3.8	3.8
물가동향 (2015=100, %)			
소비자물가지수	102.93	104.45	104.85
생산자물가지수	101.57	103.48	103.50

* 참고자료
한국은행(경제활동별 성장률, 물가동향), 무역협회(수출입 총괄), 통계청(고용동향)

경제활동
전년(2018) 대비 변경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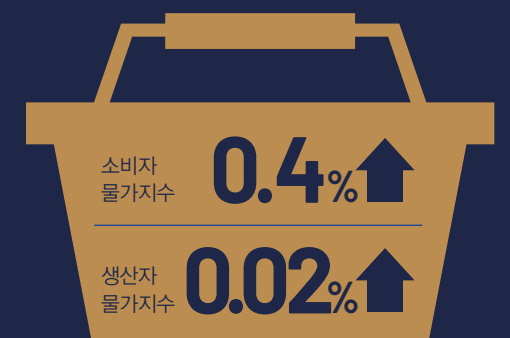


2018-19년 수출입 동향 (억 불)



2019년
고용동향 (천 명, %)

전년대비
2019년 물가동향 (2015=100, %)



2019년 국내 중소벤처기업동향

Korea SMEs
and Startups
Agency

AR 2019

DOMESTIC SMEs
TREND

2019년 중소기업 생산지수는 의약품 및 기계·장비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섬유, 정밀과학, 플라스틱 등의 부진이 이어지면서 13개월 연속 감소하여 106.3을 기록하였다.

평균가동률은 전년 대비 0.3%p 상승한 73.3%이며, 생산지수(106.3)에 비해 출하지수(98.9)의 감소폭이 커서, 중소기업들의 제고가 늘어났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 취업자 수는 지속적으로 늘어났으며 27,123천 명이 취업하였다.

대내외 경기부진이 이어지면서, 중소기업 수출은 전년대비 4.1% 하락한 1,009억 불을 기록하였고, 중소기업들의 대출 잔액은 전년 대비 7% 상승한 717조 원이 남았다. 또한 경기 부양을 위해 대출금리는 전년에 비해 0.21%p 감소하였다.

법인기업의 창업은 최근 3년간 꾸준히 증가추세이며 전년대비 7% 증가한 109,520개사가 설립되었고, 개인기업은 5% 감소한 1,175,739개사가 설립되었으며, 제조기업은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감소추세이며 52,317개사(전체 대비 4%)가 설립되었다.

중소벤처기업 주요 경제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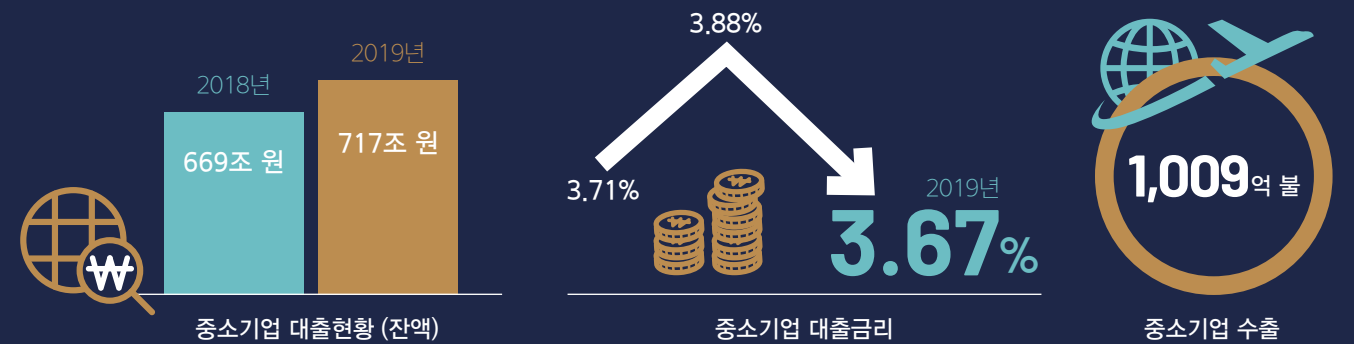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산업활동동향			
중소기업 생산지수 (2015=100)	104.8	106.4	106.3
중소기업 출하지수 (2015=100)	106.2	103.4	98.9
중소제조업 평균가동률 (%)	73.0	73.0	73.3
중소기업 취업자 수 (천 명)	26,725	76,822	27,123
금융동향			
중소기업 대출현황 (잔액, 조 원)	632	669	717
중소기업 대출금리 (%)	3.71	3.88	3.67
중소기업 수출 (억 불)	1,032	1,052	1,009
창업동향 (개사)			
법인기업 수	97,549	102,372	109,520
개인기업 수	1,158,718	1,241,994	1,175,739
제조기업 수	58,015	57,325	52,317

* 참고자료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중소기업연구원 중소기업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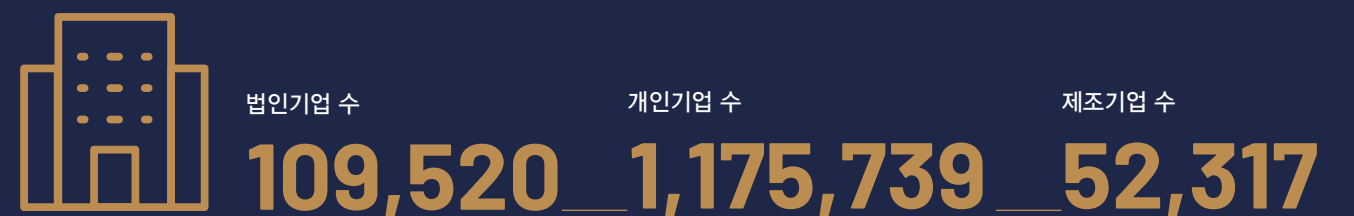
산업활동동향 (2015년=100기준)



금융동향 (조 원, %, 억 불)



창업동향 (개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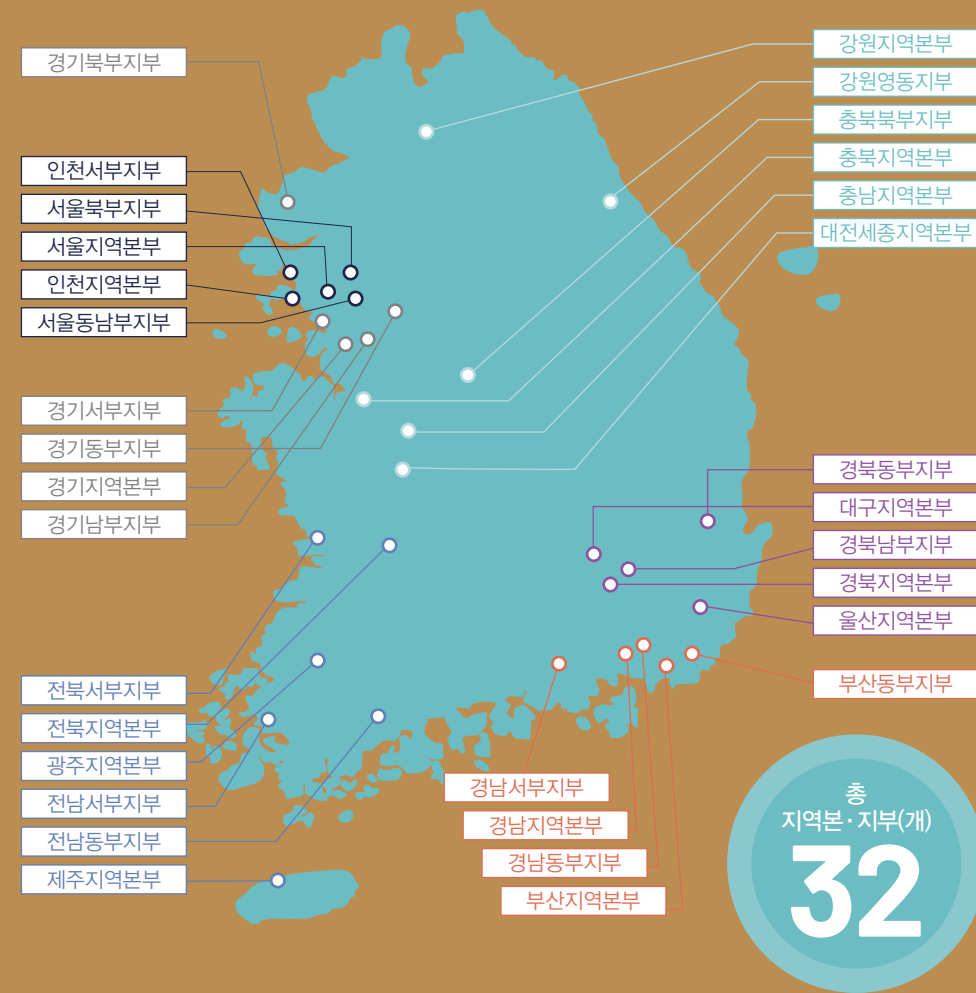
2019년 중진공 동향

Korea SMEs and Startups Agency

AR 2019

KOSME TREND

중진공 국내 지역본부



중진공 국내지원기업



중진공 해외지사



중진공 해외지원기업

(단위 : 개사, 천 원, 천 불, %)



2019년 중진공 주요 뉴스

Korea SMEs
and Startups
Agency

AR 2019

-
KOSME
NEWS



1월
인권경영선포식&북카페(Oasis) 오픈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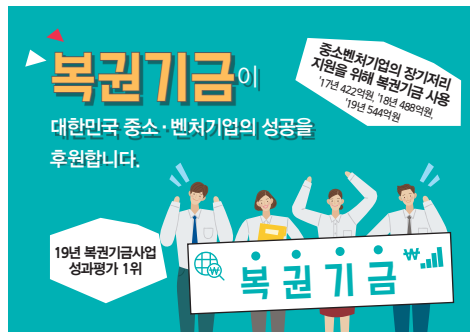
2월
청년창업사관학교 제8기 졸업식



3월
2019 전역예정장병 취업박람회



4월
40주년 기념 비전 및 디선포식



5월
기획재정부 복권기금사업 성과평가 1위



6월
우리은행, 중소기업 청년취업 및
장기재직을 위한 업무협약



7월
한국여성벤처협회, 여성벤처기업의 혁신
성장 및 공정경제 구현을 위한 업무협약



9월
인도 뉴델리 KSC 개소



11월
함상 취업박람회 개최



8월
美 시애틀 KSC 개소



10월
청년 장병 취업박람회 개최
(9사단 백마부대 육군 제1군단)



12월
한-카자흐 기술교류센터 개소

2019년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사람 중심 일자리,
혁신 성장,
공정경제 생태계 조성의
국정철학을
성공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속도감 있는 사업 및
조직혁신을 추진하였습니다.

20 2019년 사업추진 방향 및 실적

22 기업진단

24 정책자금 융자·출자

49 글로벌화 및 판로확대

69 인력양성

87 기술지원 및 현장애로 해결

2019년 사업추진 방향 및 실적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은 중소기업의 혁신성장 및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정책 자금 융자지원, 해외진출을 위한 글로벌 마케팅 지원, 인력난 해소 및 청년CEO 육성을 주요 중점 추진방향으로 설정하고, 경제활력 제고, 혁신적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정부 정책에 발맞춰 창업과 투자의 선순환 및 맞춤형 수출지원 강화,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정책지원을 강화하였다. 또한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에 적극 대응하여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사회적 경제의 성장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다.

중진공이 2019년도에 추진한 중소기업 지원 주요사업은 다음과 같다.

먼저, 중진공 사업추진 기반인 기업진단을 통해 정책자금 융자 신청업체에 대해 총 15,981억 원의 정책자금 융자를 지원하였고, 융자뿐만 아니라 진단을 통해 파악된 기업의 문제점 및 애로를 해결하기 위해 R&D, 보증 등의 유관기관 사업 정보제공 및 기술지원, 마케팅, 연수 등의 중진공 사업을 연계하여 진단기업에 대해 총 7,921건의 정책지원사업을 맞춤형으로 지원하였다.

정책자금 융자·출자사업은 중소기업의 혁신성장 동력 확보와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하여 2019년 총 15,865개 기업에 43,580억 원을 지원하였다. 특히 AI, 자율주행기술 등 혁신성장 분야 선별·집중 지원을 통해 신산업을 주력산업으로 육성하고, 스마트 제조혁신, 시설투자, 사업전환 등 기존 전통산업 혁신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촉진하여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로 전환에 기여하였다. 성장유망기업의 도약을 위한 투융자, P-CBO 등 스케일업 지원으로 중소기업의 직접금융 시장 진입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또한 중소기업 중심 수평적 상생형 일자리 창출 등 일자리 중심 지원으로 혁신적 일자리 창출을 주도하였으며, 자연재해(지진, 태풍 등) 및 사회재난(산불, 화재 등)으로 인한 피해기업에 신속한 유동성 공급과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선제적 지원 등 사회안전망 역할을 수행하고, 사회적 경제기업 지원 확대, 재창업 성공지원, 소액 성실상환 연계지원 등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하였다.

글로벌화 및 판로확대사업은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통한 수출확대를 위하여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와 중소기업의 성장단계별 온·오프라인 수출마케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수출 성장단계에 따라 수출준비, 거래선 발굴, 계약체결, 해외진출 등 수출 소과정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출바우처사업을 추진하여 2,493개사를 지원하였고, 지역중소벤처기업 수출역량강화를 위한 해외전시회, 무역사절단 등 수출마케팅사업에 1,301개 업체가 참여하여 89백만달러의 수출계약을 성사시켰다. 온라인으로는 온라인수출통합플랫폼(GobizKOREA)을 활용하여 2019년까지 중소벤처

기업 62,793개사의 250,251개의 상품정보를 DB로 구축하였다. 또한, 글로벌플랫폼(쇼핑몰)과 협업하여 한류마케팅을 활용한 해외직접판매를 확대하였고, 중소기업 전자상거래 전용 국제물류상품을 개발하여 578억 원의 물류비를 절감하였다. 해외 중소기업 지원기관과 MOU체결(10개국 15개 기관), 산업협력관 교환(9개국 24명), 현지 매칭상담회 및 세미나(10회)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협력기반을 마련하였다. 특히 2019년에는 한·아세안 대화관계 수립 30주년을 기념하여 한·아세안 스타트업 국제행사를 주관, 스타트업 컨퍼런스 및 네트워킹 행사를 통해 아세안 창업생태계 기반조성에 기여하였다.

인력양성사업은 인력유입부터 장기재직에 이르는 인력양성 플랫폼을 구축하여 사업을 추진중이다. 총 38,303명 학생, 학부모, 교사를 대상으로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여 중소기업 인식개선을 추진하였고, 중소기업 특성화고 등의 인력양성사업을 통해 총 14,151명이 중소기업에 취업하였다. 공단에서 운영하는 5개 연수원을 통해 2019년 50,344명, 누적인원 153만 명의 연수인원을 달성하였으며, 스마트공장 배움터를 구축하여 러닝팩토리 실습장비를 활용한 교육과정을 운영하였고, 중소기업의 4차 산업혁명 대비를 지원하기 위해 당초 1개의 스마트공장배움터를 전국으로 확대하여 전국 3개소(전주, 창원)의 스마트공장배움터를 확보하였다. 또한, 중소기업 인력지원을 위해 2014년부터 신규로 추진한 내일채움공제사업은 2019년(누적기준) 121,303명이 가입하였으며, 2016년에 출범한 청년내일채움공제는 2019년(누적기준) 250,361명이 가입하여 청년과 핵심인력의 중소기업 장기재직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였다.

창업성공패키지(청년창업사관학교)사업은 유망 창업자를 발굴·육성하기 위해 창업 준비부터 사업화·성장까지 창업 전 단계 패키지방식으로 일괄지원하는 사업이다. 2018년에는 혁신창업 활성화를 위해 기존 5개 청년창업사관학교를 12개 추가 신규 개소하여 총 17개 청년창업사관학교 인프라를 확보하였으며, 청년 CEO 지원규모를 500명에서 1,000명으로 확대하였다. 청년창업사관학교는 2011년에 개교하여 9년간(누적기준) 3,815명의 청년CEO를 배출하였으며, 매출액 32,412억 원, 일자리 창출 10,312명, 지식재산권 10,163건의 지원성과를 거두었다.

기술지원 및 현장애로 해결사업은 중소기업의 경제·정책환경 변화에 대응 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 및 근본체질 강화에 목적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였다. 2019년에는 특화형, 규제대응, 정보보안 분야에서 475개 기업을 대상으로 60억 원을 지원하였다. 또한 R&D 성공기술 및 특허기술 중 사업화 추진이 안 된 기술을 대상으로 기술사업화 진단을 통한 시장검증 38개사, 시장친화형 기능개선(추가 R&D) 20개사를 지원하였으며, 시장검증 지원을 통해 1,008백만 원의 신규매출을 창출하였다.

이상과 같이 2019년도 중진공은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시책을 현장에서 집행하는 종합지원기관으로서 국가경제의 중심축인 중소기업이 내·외부환경 변화에 적절히 대처하고 성장·발전해 갈 수 있도록 정책자금 지원, 판로·수출지원, 인력양성지원, 기술지원 등 각종 시책사업을 충실히 수행하였다.

기업진단

1. 사업개요

기업진단은 기술·경영 전문가가 기업의 현장을 방문하여 문제점(기업애로)을 분석한 후 개선 로드맵 제시 및 정책자금, 마케팅, 인력 등 필요한 정책사업을 맞춤형으로 연계지원하는 사업이며, 정책자금 용자 신청업체에 대한 사전진단 및 용자 후의 사후진단을 통해 기업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기업부실의 발생요인을 선제적으로 제거함으로써 기업의 건전성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

절차	진행 내용
신청·접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업진단 신청서 접수 애로분야 파악
진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업방문 / 실태조사 기업의 경영성과 및 핵심역량 분석
결과전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진단결과 전달(보고서 제공 및 프레젠테이션 실시) 사업연계 추천서 발급 연계지원 안내 및 상담, 사업정보 제공
연계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책자금 : 소요금액 사정, 약정 및 대출실시 자금이외 사업 : 추천 사업별 연계지원
사후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객만족도 조사 추천사업 연계지원 실적점검 등 지속적인 성장관리

2006년부터 운영중인 기업진단시스템은 중소기업의 외부환경 및 사업성과분석, 기업경쟁력분석 등 7개의 필수모듈과 재무비율분석, 기술가치평가, 인사노무 등 19개의 옵션모듈로 구성되어 있으며 진단자가 현장을 방문하여 기업에 최적화된 모듈을 선정·활용하여 진단을 실시한다.

2. 주요 추진실적 및 성과

2019년에는 기업진단 내실화를 위해 전체 진단 건 수 중 종합진단 비중을 확대*하고, 진단 필수모듈 전면 개편, 진단 업종 세분화 등 진단모형을 고도화 하였다. 이를 통해 정책자금 지원기업에 대한 평가뿐만 아니라 기업경쟁력을 향상시키도록 지원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기업건전성 강화로 이어지도록 하였다.

* 전체 진단 중 종합진단 비중 : '18년 23%→ '19년 57%, ('19년 종합진단 2,470건, 표준진단 1,862건)

정책자금 지원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궁극적으로 기업건전성 제고를 도모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기업가치평가 진단모듈을 개발하였다. 기업가치평가 진단모듈은 혁신성장 고위험기업의 본질가치, 자산가치 등 기업의 가치를 평가한다.

〈정책자금 지원 단계별 진단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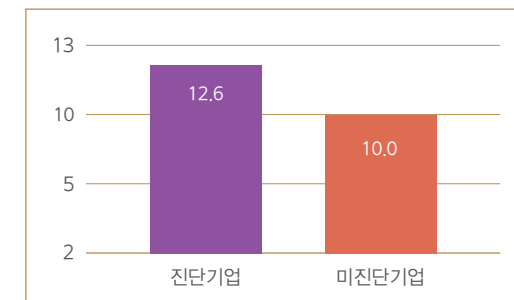
단계	자금신청 前	자금신청 時	자금지원 後	
			정상기업	부실우려기업
진단 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과창출 (공모형) 종합진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표준진단 제조혁신역량진단 (신설, 종합진단) IP담보/성장공유형자금 신청기업 종합진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과창출 (일반형) 종합진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실예방형 종합진단 (신설)

뿐만 아니라 진단기업의 정책목적성 강화를 위해 사회적 가치 역량 진단모듈, 안전진단모듈을 신규 개발하였다. 사회적 가치 역량 진단을 통해 사회적경제기업 139개사에 사회적 가치 창출 의지·역량·성과의 수준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솔루션 제공 및 206건 연계사업을 지원하였다. 또한 219개사에 안전운영체계, 안전사고대응력 등 안전진단을 통해 중소기업에 안전의식을 고취하고 주도적인 안전관리 활동 개선에 기여하였다. 기업진단 추진 기업에 대한 경영성과로 미진단기업과 비교하여 매출액 증가율은 2.6%p, 영업이익율은 1.6%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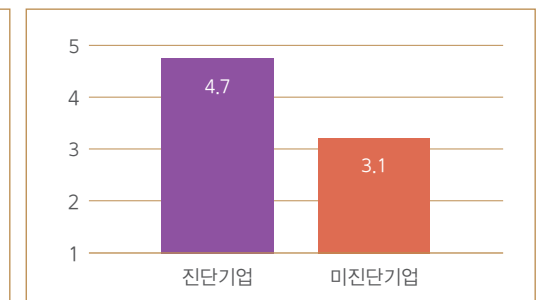
* 매출액 증가율 : '18년도 진단/미진단기업의 전년대비 증가율

* 매출액 영업이익율 : '18년도 진단/미진단기업의 매출액 영업이익율

〈매출액 증가율(%) 비교〉



〈매출액 영업이익율(%) 비교〉



기업진단의 실질적인 품질 강화를 위해서 내부직원을 대상으로 기업진단평가아카데미(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2019년에는 '산업별 진단실무' 과정을 추가하고 제조현장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제조현장 안전관리' 과목을 개설하여 현장 중심의 진단 전문가 육성을 위해 노력하였다. 수료자에 대해서는 실무 역량 평가(시험, PT평가)를 거쳐 내부직원용 자격증인 기업진단평가사 등급을 부여하고 있으며, 6회의 교육을 통해 총 45명을 신규 배출하였다.

중진공은 '중소벤처기업의 진단을 통한 맞춤형 종합 지원기관'으로서 향후에도 지속적인 진단 품질 제고를 통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중소기업 혁신성장 견인을 위해 더욱 노력할 예정이다.

* 기업진단평가사 45명 신규 취득하여 누적 총 315명

* 2019년 2급 이상(고급, 중급) 배출 비율 2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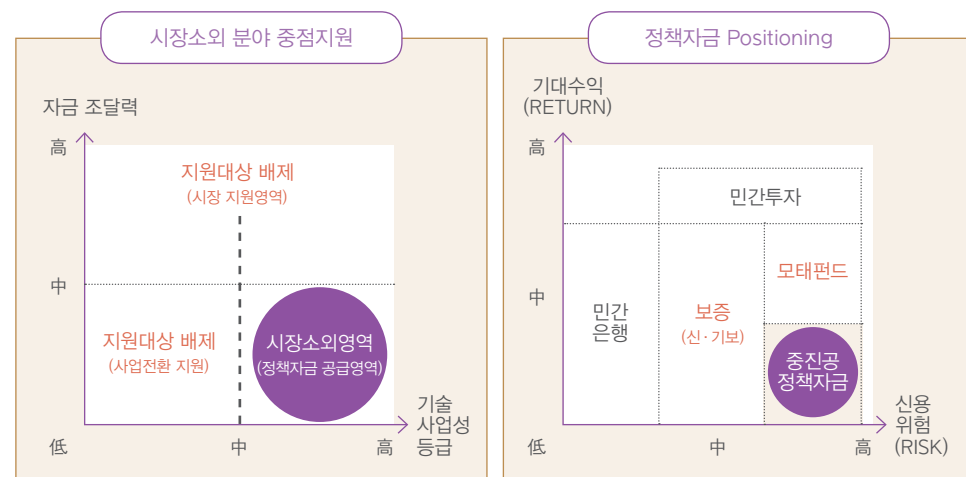
정책자금 용자·출자

1. 사업개요



〈역할〉

금융권으로부터 자금 조달력이 취약한 시장소외영역 중소기업 중 미래 성장성이 있는 기업을 선별·집중 지원하여 우량기업으로 견인



2. 주요 추진실적 및 성과

2019년도 정책자금 용자 규모는 43,580억 원(당초 36,700억 원, 증액 6,880억 원)으로 중소기업의 혁신성장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총 15,865개 기업에 지원하였다. 특히, 추경예산 편성,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6,880억 원을 증액 편성하여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지원 및 대일 의존도 극복을 위한 소재·부품·장비산업 집중 육성하는 등 정책자금 추가 공급, 금리인하를 통해 내수경기 진작을 유도하고, 일본 수출규제 피해 최소화 및 제조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촉진하는 등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였다.

2019년 중진공은 미래성장동력 및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핵심인 D.N.A(Data, Network, AI) 및 BIG3(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혁신성장 분야 업종에 1.9조 원 예산을 집중 지원하였고, 소재·부품·장비 기술 국산화, 개발기술 사업화 지원 등 전략적 핵심기술 사업화를 통해 신산업을 주력산업으로 집중 육성하였으며, 스마트 제조혁신, 고부가가치 사업전환, 시설투자를 통한 생산성 향상 등 기존 전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촉진하는데 기여하였다.

효율적 지원을 위해 빅데이터를 활용한 맞춤형 통합솔루션 제공 시스템을 구축하고, 수요자 중심 맞춤형 가치제안 및 솔루션 연계지원으로 중소기업의 성과창출을 통한 정책 효과성을 높였으며, 적극적 투융자 지원을 통한 민간투자 촉진, P-CBO 발행, 기업 가치향상(Value-up) 등 혁신성장 유망기업의 도약을 위한 스케일업(Scale-Up) 지원으로 중소기업의 직접금융시장 진출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였다.

또한 전국 최초 중소기업 중심 수평적 상생형 일자리 모델로 전기차 클러스터 조성, 일자리창출촉진자금 신설, 일자리 성과 이자환급 등 일자리 중심 지원으로 일자리위원회 '대한민국 상생형 일자리 유공 표창',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균형발전 대상'을 수상하는 등 혁신적 일자리 창출을 주도하는 노력을 하였다.

아울러 태풍 '링링', 강원 산불 등 자연재해 및 사회재난으로 인한 피해기업에 신속히 유동성을 공급하였으며,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선제적 지원, 사업전환 회생지원을 통한 위기기업의 턴어라운드 지원 등 사회적 전망 역할을 수행하였다.

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 양극화 완화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나 민간금융에서 소외되는 사회적 경제 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 확대(368→632억 원) 및 금융접근성 제고, 판로확대 및 고용 등 장애요인 해소를 통한 경제적·사회적 성과 창출에 기여하고, 실패를 경험으로 활용하는 성공 재도약 지원, 대출금 상환부담 완화를 위한 수요자 중심 소액성실상환 연계지원, 적극적 채권정리를 통해 금융취약계층 경제활동 활성화 지원하는 포용적 금융 실천 등 정책자금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정책자금 용자 지원실적〉 (단위 : 억 원, 개사)

구분	'19년 정책자금 용자 예산		'19년 지원업체수
	당초	최종	
창업기업	20,800	22,000	10,110
신성장기반	8,800	12,100	1,696
신시장진출지원	1,800	2,800	1,335
긴급경영안정	1,000	2,080	1,115
재도약지원	2,300	2,600	1,291
투융자복합금융	2,000	2,000	318
합계	36,700	43,580	15,865

3. 세부사업 추진실적

[창업기업지원자금]

창업기업지원자금은 창업 활성화와 창업 초기 중소기업의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한 자금으로, 1998년 창업기업지원자금을 시작으로 2010년 재창업자금, 2012년 청년전용창업자금 신설, 2015년재창업자금은 재도약지원자금으로 변경, 2019년 신시장진출지원자금에서 개발기술사업화 자금을 편입하고, 고용위기 상황 극복을 위해 정부 주요 일자리사업 참여기업 대상 일자리 특화자금인 일자리창출촉진자금을 신설하였다.

2019년 중진공은 창업기업지원 예산 22,000억 원(혁신창업지원자금 14,500억 원, 일자리창출촉진 자금 4,000억 원, 개발기술사업화자금 3,500억 원)을 10,110개 업체에 지원하였다.

〈2019년 총괄 지원실적〉 (단위 : 개사, 백만 원)

구분	예산	신청		대여	
	금액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혁신창업지원	1,450,000	8,571	2,165,827	6,884	1,450,000
청년전용창업	130,000	2,637	244,556	1,543	130,000
일자리창출촉진	400,000	1,772	567,653	1,652	400,000
개발기술사업화	350,000	1,720	513,439	1,574	350,000
계	2,200,000	12,063	3,246,919	10,110	2,200,000

가. 혁신창업지원자금

1) 사업개요

혁신창업지원자금 : 기술력과 사업성은 우수하나 자금조달력이 부족한 설립 7년 미만의 창업기업을 지원하여 창업을 활성화하고 고용 창출을 도모하였다.

2) 사업추진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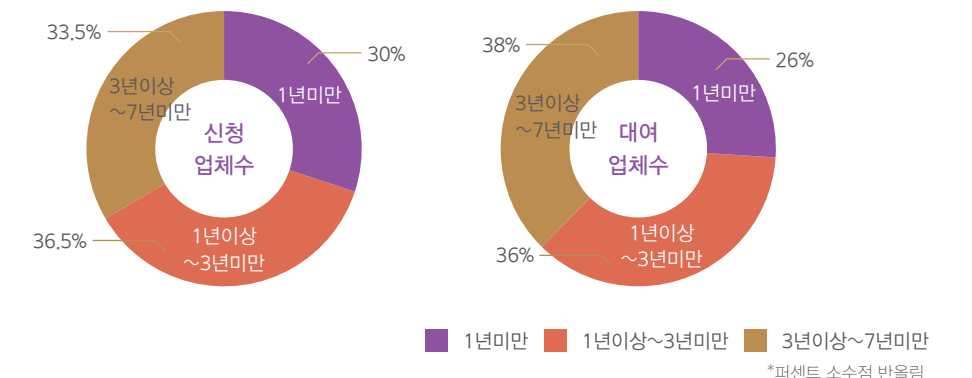
2019년도 혁신창업지원자금 지원사업은 14,500억 원을 조성하여 연 예산 100%를 집행하였다.

〈2019년 일반창업기업지원자금 지원실적〉 (단위 : 개사, 백만 원)

예산	신청		대여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1,450,000	8,571	2,165,827	6,884	1,450,000

혁신창업지원자금은 업력별로 설립 1년 미만 3,950억 원(27.2%), 설립1년 이상~3년미만 4,249억 원(29.3%), 설립 3년이상~7년미만 6,301억 원(43.5%)이 지원되어 창업기업 지원 목적을 적정하게 수행하였다.

〈업력별 지원실적(금액)〉 (단위 : 개사, 백만 원)



구분	신청		대여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1년미만	2,575	584,944	1,791	394,994
1년이상~3년미만	3,126	674,846	2,502	424,870
3년이상~7년미만	2,870	906,037	2,591	630,136
계	8,571	2,165,827	6,884	1,450,000

지원업체의 매출액 규모는 10억 원 미만 기업이 58.0%(8,409억 원)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100억 원 미만 기업에 대해 전체 예산 중 95.0%(13,779억 원)를 집행하였다.

〈매출액 규모별 지원실적〉 (단위 : 개사, 백만 원, %)

구분	신청		대여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비율
10억 원미만	6,360	1,312,212	4,841	840,931	58.0%
10 ~ 100억 원미만	2,051	758,408	1,884	536,976	37.0%
100억 원이상	160	95,207	159	72,093	5.0%
계	8,571	2,165,827	6,884	1,450,000	100.0%

3) 제도개선 사항

융·복합, 지식서비스 등 업종다변화로 기업의 혁신성장을 위한 투자성격의 운전자금을 차별화하여 시설자금내 지식재산권 매입, SW구입 등 정보화 촉진, 연구용역 비용 등 투자자금을 신설하고 지원 조건을 우대하여 정책자금을 지원하였다.

나. 청년전용창업자금

1) 사업개요

우수한 아이디어를 보유한 만 39세이하 청년층의 창업촉진을 위하여 청년창업자에게 저금리(2.0% 고정금리)의 창업자금(기업당 1억 원 이내, 융자기간 6년 이내)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자금과 함께 교육, 멘토링, 마케팅 지원 등을 패키지로 연계하여 창업촉진 및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 사업추진현황

2019년도에는 1,536개 업체에 1,300억 원을 지원하여 우수 아이디어를 보유한 청년층이 실패에 대한 두려움 없이 창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청년 창업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2019년 청년전용창업자금지원 실적〉 (단위 : 개사, 백만 원)

예산	신청		대여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130,000	2,589	244,556	1,536	130,000

청년전용창업자금 지원 이후 후속 연계지원으로 창업 초기기업의 사업화 애로해결을 위해 1:1 멘토링(자금지원후 1년간 4회)을 건 실시하고, 청년창업가 550명에 대해 석세스코칭 상담(436건)을 실시하여 데스밸리 극복을 지원하였다.

또한,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글로벌 진출 유망기업 100개사를 선정하고 수출지원을 통해 39개사 568만 불의 수출실적을 달성하는 등 청년 창업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에 기여하였다.

〈2019년 연계지원 실적〉

구분	창업교육(명)	멘토링		수출지원		
		멘토링(회)	석세스코칭(건)	상품페이지(업체수)	수출용리플렛(업체수)	해외전시회(업체수)
지원결과	1,198	6,723	436	100	100	15

3) 제도개선 사항

청년층의 창업 활성화 및 원리금 상환부담 완화를 위해 대출금리를 '16년 2.5%에서 '17년 2.0%로 인하하였고, 정부의 연대보증 면제 확대 정책(창업 7년 미만 기업 연대보증 면제)에 따라 연대보증 면제를 시행('17년 7월)하였다. 또한, 사업화 준비가 완료된 청년창업사관학교 졸업 및 입교자를 대상으로 한 창업성공패키지 자금을 신설하는 등 운영방식을 개선하였고, '18년 대출원금을 기업이 원하는 날짜에 상환하도록 하는 '기업 자율상환제도'를 도입하여 청년층의 만기 일시 상환 부담을 완화하여, 청년층이 창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였다.

다. 일자리창출촉진자금

1) 사업개요

일자리창출촉진자금 : 설립 7년 미만의 창업기업 중 일자리 창출 및 유지, 인재육성 기업 대상 집중 지원을 통해 신규 일자리 창출 및 고용안정 지원 강화 등 일자리 창출 성과 확대

2) 사업추진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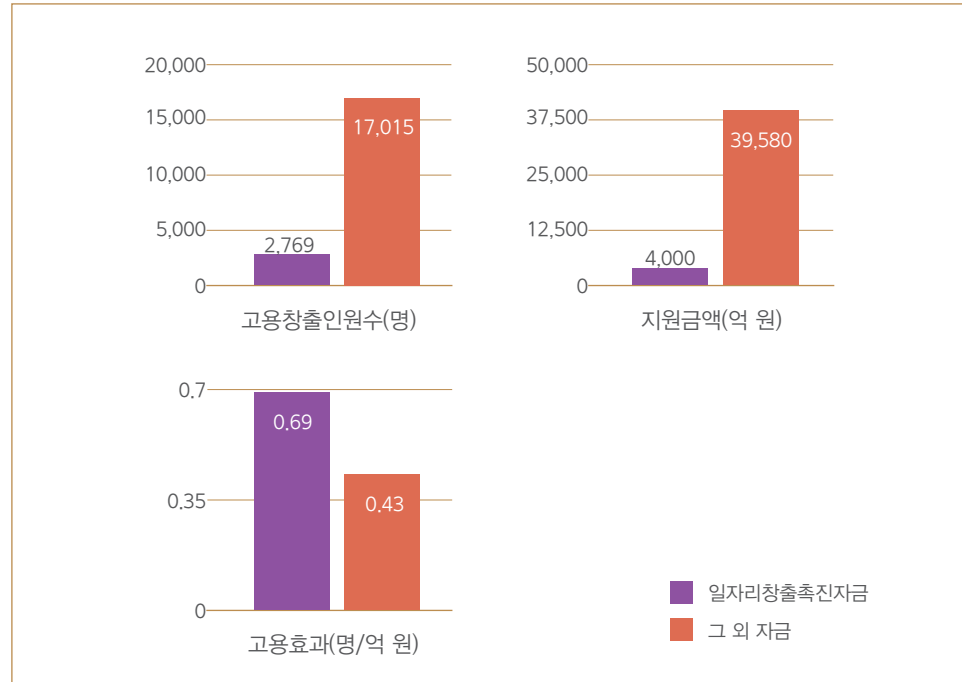
2019년도 일자리창출촉진자금은 4,000억 원을 조성하여 연 예산 100%를 집행하였다.

〈2019년 일자리창출촉진자금 지원실적〉 (단위 : 개사, 백만 원)

예산	신청		대여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400,000	1,772	567,653	1,652	400,000

정책자금 지원기업의 자금지원을 받은 달 대비 해당연도말의 인원수 차이를 신규 일자리창출로 산정하여, 일자리창출촉진자금 지원기업의 1억 원당 고용인원수를 그 외 자금과 비교해본 결과, 일자리창출촉진자금은 0.69명/억 원, 그 외 자금은 0.43명/억 원으로 고용효과가 1.6배 높은 것으로 산출되어 일자리창출촉진 지원 목적을 적정하게 수행하였다.

〈일자리창출촉진자금 고용효과 비교〉



* 일자리창출촉진자금 등
2개 이상의 자금 수혜기업은
고용창출인원수에서
중복산정 제거

구분	고용창출인원수(명)	지원금액(억 원)	고용효과(명/억 원)
일자리창출촉진자금	2,769	4,000	0.69
그 외 자금	17,015	39,580	0.43
계	19,692	43,580	0.45

3) 제도개선 사항

고용위기 상황 극복을 위해 정부 주요 일자리사업 참여기업 대상(‘일자리 창출’, ‘일자리 유지’, ‘인재 육성’ 기업 등)으로 추가 우대금리(△0.1%p) 적용, 3년 연속 일자리 증가 기업은 융자지원결정 평가 등급 1단계 하향 조정하여 신규 일자리 창출 및 고용안정 지원을 강화하는 일자리특화자금 신설

라. 개발기술사업화자금

1) 사업개요

중소벤처기업이 보유한 우수 기술이 사장되는 것을 방지하고 개발한 기술의 제품화·사업화를 촉진하여 기술기반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개발기술사업화자금은 2000년부터 사업을 개시하였다. 개발기술사업화자금은 시중 금융권에서 자금 조달이 어려운 기술기반 중소기업을 위하여 신용대출 위주로 지원하고 있다.

2) 사업추진현황

2019년도에는 1,574개사에 3,500억 원을 지원함으로써 배정된 예산 전액을 집행하여 우수 개발기술의 사업화 촉진을 도모하였다.

〈2019년 총괄 지원실적〉

(단위 : 개사, 백만 원)

예산	신청		대여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350,000	1,715	511,629	1,574	350,000

업종별 지원실적을 보면 기계·금속 1,462억 원(41.8%), 전기·전자 573억 원(16.4%), 섬유·화학 509억 원(14.5%) 순으로 전체 지원금액의 72.7%인 2,544억 원이 지원되었다.

〈2019년 업종별 지원실적〉

(단위 : 개사, 백만 원, %)

구분	신청		대여		비율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기계금속	643	200,863	605	146,243	41.8
섬유화학	265	83,192	231	50,901	14.5
전기전자	270	76,166	244	57,290	16.4
잡화음식료	215	56,789	209	43,459	12.4
기타	322	94,619	285	52,107	14.9
계	1,715	511,629	1,574	350,000	100.0

기술유형별로는 특허·실용신안·저작권 등록기술 1,364억 원(39.0%), 정부출연 연구개발사업 참여기술 956억 원(27.3%),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보유기술 698억 원(20.0%) 순으로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기술유형별 지원실적〉

(단위 : 개사, 백만 원, %)

구분	업체수	금액	비율	
			업체수	금액
정부출연 연구개발사업	424	95,623	26.9	27.3
특허/실용신안/저작권	646	136,443	41.0	39.0
공인 인증 및 평가기술	3	510	0.2	0.1
기술이전	7	1,040	0.4	0.3
기술평가기관 인증기술	1	150	0.1	0.0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	295	69,847	18.7	20.0
Inno-biz	72	20,646	4.6	5.9
Main-Biz	44	11,787	2.8	3.4
벤처기업	78	13,484	5.0	3.9
임치계약	4	470	0.3	0.1
계	1,574	350,000	100.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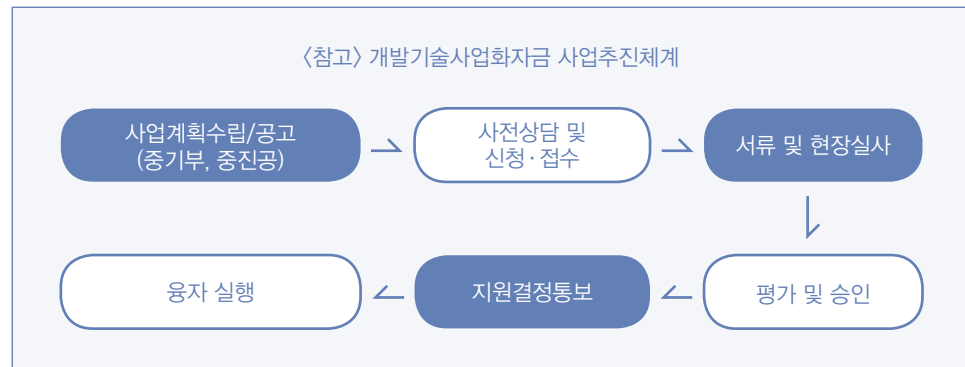
개발기술사업화자금은 기술개발로 인해 재무구조가 취약하여 시중 금융권의 자금 대출이 어려운 기술개발기업에 신용대출(2,967억 원, 84.8%) 위주로 중점 지원하여 우수 기술이 사장되는 것을 방지하고 사업화를 촉진하여 기술기반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사업 목적에 부합되게 지원이 이루어졌다.

〈2019년 담보별 지원실적〉 (단위 : 백만 원)

구분	신용	지식재산권	부동산	보증서	계
담보별	296,700	32,603	18,267	2,430	350,000

3) 제도개선사항

중소벤처기업 개발기술의 안정적인 사업화 지원을 위해 생산설비에 대해서만 가능하던 시설자금을 자가사업장 확보가 가능하도록 개선하여 시설자금 지원비중 및 우수기술 보유기업의 기술사업화 촉진에 기여하였다.



[신성장기반자금]

사업성과 기술성이 우수한 성장 유망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고부가가치화 등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여 성장동력 창출을 지원하는 신성장기반자금은 당초 구조개선자금 내 구조 개선사업, 지식기반서비스업육성사업과 협동화사업을 통합하여 2007년부터 신규로 추진되었다. 중소기업 정책자금 효율화 방안에 따라 2009년에 명칭을 경영혁신자금에서 신성장기반자금으로 변경하였다. 그 후 2010년에는 농공단지입주기업 지원사업을 신성장기반자금에 통합하였고, 2014년에 기술사업성우수기업전용자금, 2015년 고성장(가젤형)기업, 기초제조기업성장기업 지원자금을 신설하였고, 2018년에 제조현장스마트화자금을 신설하여 2019년에는 혁신성장유망기업과 제조현장 스마트화자금으로 이원화하여 운영하고 있다.

1) 사업개요

- 혁신성장유망 : 사업성과 기술성이 우수한 성장유망 중소기업의 생산성·경쟁력 향상을 위한 시설자금과 초기 가동비를 지원
- 제조현장 스마트화자금 : 스마트공장 추진기업 중,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등 참여기업, 4차 산업혁명 관련 신산업·신기술 영위기업, ICT기반 생산 효율화를 위한 자동화 시설 도입기업의 시설자금과 초기 가동비를 저리로 지원

2) 사업추진현황

2019년 신성장기반자금은 예산 12,100억 원의 100%를 집행하였다.

〈2019년 신성장기반자금 지원실적〉 (단위 : 개사, 백만 원)

구분	예산	신청		대여	
	금액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혁신성장유망	710,000	1,343	954,989	1,223	710,000
제조현장스마트화	500,000	510	660,739	473	500,000
계	1,210,000	1,853	1,615,728	1,696	1,210,000

3) 제도개선 사항

소재·부품·장비 국산화를 위한 시설투자를 위해 용자한도를 확대 운영하고, 생산시설 국내 이전 등을 추진하는 해외진출기업의 경우 국내 영업실적이 부족하여 민간 금융기관 이용이 곤란한 점을 감안하여, 제조현장 스마트화자금 신청 기업 중 국내 복귀기업은 업종별 제한 부채비율 예외 적용을 통해 재무정보가 부족한 국내복귀 기업의 시설투자를 유도하였다.

[긴급경영안정자금]

수출 또는 내수 제품 생산에 필요한 원부자재 수급애로, 수출금융 확보애로 및 재해피해 등으로 인해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과거 구조개선자금 내 특별경영안정사업의 원부자재구입지원사업, 재해복구지원사업과 수출금융지원사업을 통합하였고, 2009년부터 사업전환지원사업의 회생특례지원자금을 통합하여 긴급경영안정자금으로 개편하였으며 2016년부터 수출금융을 신시장진출지원 자금으로 이관하였다.

1) 사업개요

- 재해복구지원 : 자연재해 또는 인적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재해중소벤처기업)의 직접피해복구비용을 지원하여 재해중소벤처기업의 사업정상화를 추진
- 일시적경영애로 : 일시적경영애로 기업중 회생가능성이 큰 기업의 경영애로 해소 및 경영정상화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

2) 사업추진현황

2019년 긴급경영안정자금은 예산 2,080억 원(재해복구지원 및 일시적경영애로지원)을 전액 집행하였다.

특히, 태풍 '링링' 및 강원 산불 등 자연재해 및 화재 등 사회재난으로 인한 피해기업과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에 긴급 유동성을 지원하여 중소기업 경영위기 대응으로 지역경제 및 산업 위기 극복에 기여하였다.

〈2019년 총괄 지원실적〉 (단위 : 개사, 백만 원)

구분	예산		신청		대여	
	금액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업체수
일시적경영애로지원		1,131	280,841	1,041	191,652	
재해중소벤처기업	208,000	81	21,064	74	16,348	
계	208,000	1,212	301,905	1,115	208,000	

3) 제도개선 사항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직·간접 피해기업을 일시적경영애로지원 대상에 추가하고,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 감소 요건 예외를 적용하는 등 자금지원 요건을 완화하고, 자연재해, 대외 경영환경 변화(대이란 제재 피해) 등에 따른 중소기업의 일시적 경영애로 극복 지원을 위해 융자조건을 개선하여 경영부담을 최소화하였다.

[투융자복합금융자금]

미래성장가치와 기술성이 우수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융자에 투자요소를 복합하여 지원하는 자금으로 이익공유형 대출과 성장공유형 대출이 있다. 2011년까지 시범사업으로 운영한 후, 2012년부터 별도 예산을 편성하여 본격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2019년에는 318개사에 2,000억 원을 지원하였다.

〈2019년 투융자복합금융자금 지원실적〉 (단위 : 개사, 백만 원)

구분	예산		신청		대여	
	금액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업체수
이익공유형 대출	22,000	166	34,332	142	22,000	
성장공유형 대출	78,000	105	183,700	62	78,000	
스케일업금융	100,000	385	2,084,500	114	100,000	
계	200,000	656	2,302,532	318	200,000	

가. 이익공유형 대출

1) 사업개요

기술개발 및 시장진입 등의 단계에 있는 창업기업에 저금리 신용대출 후 기업의 영업성과에 따라 이익연동 이자를 수취하는 방식으로 2011년에 사업을 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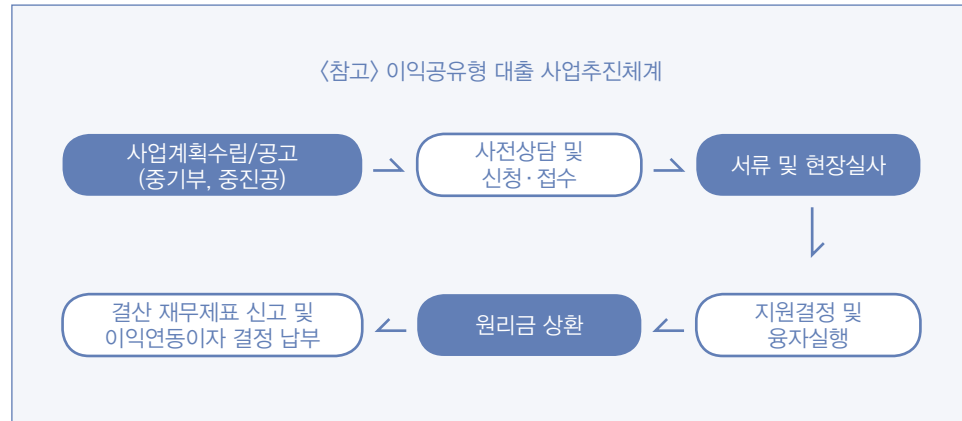
2) 사업추진현황

2019년도에는 142개사에 220억 원을 지원함으로써 창업기업의 초기 금융비용 절감 및 담보부담 해소를 통해 기업의 성장기반 마련에 일조하였다.

업종별 지원현황을 살펴보면 제조업 지원 비중이 53.8%, 정보 및 유통 등 기타 업종이 46.2%로 제조업에 대한 지원비중이 높으며, 기계금속, 잡화음식료, 섬유화학, 전기전자 순으로 지원비중이 높았다.

〈2019년 업종별 지원실적〉 (단위 : 개사, 백만 원, %)

구분	신청		대여		비율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기계금속	50	9,360	44	6,750	30.7
섬유화학	20	4,520	17	2,770	12.6
전기전자	16	3,110	15	2,320	10.5
잡화음식료	40	9,330	36	6,300	28.6
정보	13	4,130	12	1,300	5.9
기타	23	3,870	18	2,560	11.7



나. 성장공유형 대출

1) 사업개요

중소벤처기업이 발행하는 전환사채(CB) 등을 인수하는 대출방식으로 2008년에 사업을 개시하였다.

2) 사업 추진 현황

2019년도에는 62개사에 780억 원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데 기여하였다. 업종별 지원현황을 살펴보면 제조업 지원 비중이 74.1%, 정보 및 유통 등 기타 업종이 25.9%로 제조업에 지원비중이 높으며, 제조업 중에서 기계금속, 전기전자, 섬유화학 순으로 비중이 높았다.

(2019년 업종별 지원실적) (단위 : 개사, 백만 원, %)

구분	신청		대여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비율
기계금속	44	83,800	28	40,400	51.7
전기전자	24	31,400	15	13,200	16.9
잡화음식료	7	8,000	4	4,000	5.2
섬유화학	6	8,800	4	4,300	5.5
정보	12	25,000	6	6,800	8.8
기타	12	26,700	5	9,300	11.9
계	105	183,700	62	78,000	100

3) 제도개선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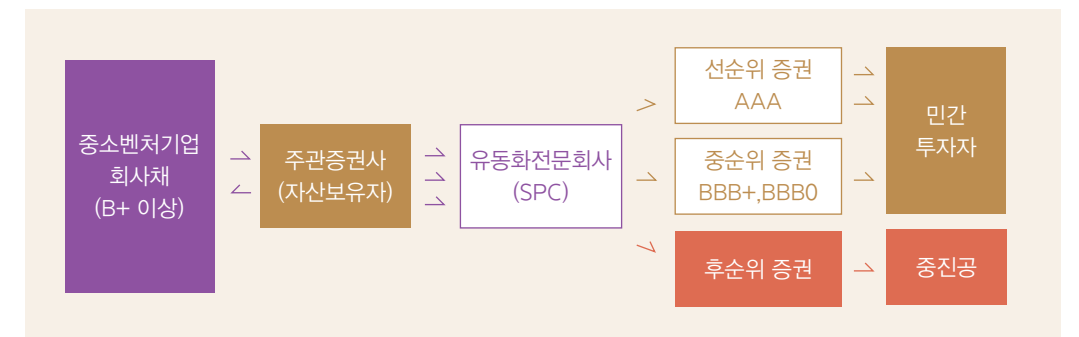
기존 전환사채 방식의 투자에서 기업의 상황에 맞게 전환사채, 상환전환우선주, 신주인수권부사채로 투자방식을 다양화하였으며, 대외무역분쟁 등 외부상황을 고려한 소재·부품·장비산업 지원대상 확대와 선투자 기업 대상의 기업가치평가 방식 개편을 통해 혁신성장 및 핀테크 산업 지원을 강화했다.



다. 스케일업금융

1) 사업개요

중소벤처기업이 신규로 발행하는 회사채의 현금흐름을 기초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하여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2019년에 사업을 개시하였다.



2) 사업 추진 현황

2019년도에는 114개사에 3,536억 원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대규모 스케일업 기반을 마련하는데 기여하였다.

업종별 지원현황을 살펴보면 제조업 지원 비중이 85.6%, 정보 및 유통 등 기타 업종이 14.4%로 제조업에 대한 지원비중이 높으며, 제조업 중에서는 기계금속, 섬유화학, 전기전자, 잡화음식료 순으로 지원비중이 높았다.

(2019년 업종별 지원실적) (단위 : 개사, 백만 원, %)

구분	19년 제1차		19년 제2차		합계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비율
기계금속	25	79,603	28	79,439	53	159,042	45.0
전기전자	7	26,570	5	17,091	12	43,661	12.3
잡화음식료	6	22,668	6	19,258	12	41,926	11.9
섬유화공	13	41,436	6	16,610	19	58,046	16.4
정보	2	4,218	1	2,528	3	6,746	1.9
기타	7	19,505	8	24,674	15	44,179	12.5
계	60	194,000	54	159,600	114	353,600	100.0

[모태조합 출자]

1) 사업개요

유망 창업·벤처기업의 투자 활성화 및 성장을 지원(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2)하기 위해 모태조합 출자를 통한 중소·벤처기업에 투자하는 벤처펀드를 결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2) 사업추진현황

중기부, 문체부, 과기정통부, 고용부 등 10개 부처(기관) 참여하고 있으며, 부처 출자 목적 및 특성에 따라 펀드 운용될 수 있도록 계정별로 운영('19년말 기준 16개 계정)하고 있다.

모태조합이 4조 5,217억 원을 출자하여, 총 765개, 24조 8,617억 원 규모의 자펀드를 조성·운영 중으로 출자금 대비 5.5배의 승수효과를 달성하였다.

〈참고〉 스케일업금융 사업추진체계



〈계정별 예산현황〉 ('19년 12월말 기준, 단위 : 억 원)

구분	중진	청년	엔젤	지방	혁신 모험	문화	특허	영화	과기 정통	보건	관광	스포츠	환경	교육	도시 재생	해양	계
'05~'15	11,101	-	2,090	100	-	4,661	1,600	520	1,100	800	130	200	-	-	-	-	22,302
'16	1,000	-	-	-	-	360	-	100	370	-	100	200	-	-	-	-	2,130
'17	5,000	3,300	-	-	-	530	-	180	200	-	150	70	200	120	-	-	9,750
'18	575	-	-	-	4,000	540	200	100	150	-	170	100	130	150	-	-	6,115
'19	2,400	-	-	-	500	630	100	80	150	-	130	100	280	150	200	200	4,920
계	20,076	3,300	2,090	100	4,500	6,721	1,900	980	1,970	800	680	670	610	420	200	200	45,217

[신시장진출지원자금]

중소벤처기업이 보유한 우수 기술·제품의 글로벌화 촉진과 수출 중소기업 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신시장진출지원자금은 수출성장단계별로 내수기업 수출기업화자금, 수출기업 글로벌화자금으로 운영하고 있다.

1) 사업개요

-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내수기업, 수출 초보기업(수출 10만 불 미만)을 대상으로 해외마케팅 등 판로개척, 해외인증 획득, 수출품 생산비용 등에 소요되는 운전자금을 지원하여 직접 수출기반을 마련하고 수출경쟁력 제고
- (수출기업 글로벌화) 수출역량을 보유한 수출 유망기업(수출 10만 불 이상)을 대상으로 수출품 생산에 필요한 생산설비, 시험검사 장비 도입자금과 운전자금을 지원하여 수출증대 및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구축

2) 사업추진현황

2019년도 하반기 경제활력 보강을 위해 추가된 1,000억 원을 포함하여 1,335개사에 2,800억 원을 집행했으며, 지원기업의 수출이 3.6% 증가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수출 촉진에 적극 기여했다.

구분	예산		신청		대여	
	금액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업체수
내수기업 수출기업화자금	50,000	391	77,572	353	50,000	
수출기업 글로벌화자금	230,000	1,048	340,331	982	230,000	
계	280,000	1,439	417,903	1,335	280,000	

3) 제도개선사항

단기 회전방식의 수출금융(1년)을 폐지하고 장기사업화 중심(5년)으로 개편하여 기업의 상환부담을 완화했으며, 수출 유망기업 대상 수출품 생산에 필요한 생산설비 자금으로 용자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수출기업의 안정적인 성장기반 구축에 기여했다.

또한, 미·중 무역분쟁 장기화, 일본 수출규제 등으로 침체된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1,000억 원 추가 편성하여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수출촉진과 경제활력 제고에 노력하였다.

[재도약지원자금]

재도약지원자금은 실패경영인 및 부실징후 기업 그리고 위기기업의 재도약을 지원하기 위해 신설된 자금으로 업종전환 및 추가, 사업재편, FTA 피해기업 등을 지원하는 사업전환(무역조정)자금, 실패경영인의 재기를 지원하는 재창업자금, 부실징후기업 정상화를 목적으로 선제적 지원하는 구조개선전용자금으로 구성되어 있다. 2019년 중진공은 재도약지원자금 예산 2,600억 원(사업전환 1,100억 원, 재창업 1,200억 원, 구조개선 300억 원)을 1,291개 업체에 지원하였다.

구분	예산		신청		대여	
	금액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업체수
사업전환(무역조정)	110,000	278	144,244	276	110,000	
재창업	120,000	952	185,994	813	120,000	
구조개선	30,000	232	49,740	202	30,000	
계	260,000	1,462	379,978	1,291	260,000	

가. 사업전환지원자금

1) 사업개요

사업전환지원사업은 경제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이 현재 운영하고 있는 업종의 사업을 축소 또는 폐지하고 새로운 업종의 사업을 운영하도록 용자, 컨설팅 등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산업구조를 고도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2) 사업 추진 현황

2006년 9월 사업을 개시한 이후, 2019년까지 총 2,230개사의 사업전환계획을 승인하여 3,702개사에 17,978억 원의 자금을 집행하였다. 2019년에는 100개사의 사업전환계획을 승인하고, 221개 업체에 973억 원을 지원하였다.

예산	신청액	직접대출		대리대출		합계	
		업체수	대여액	업체수	대여액	업체수	대여액
973	1,268	198	542	23	431	221	973

사업전환 승인유형별 실적을 살펴보면, 업종추가가 사업전환계획 승인업체 100개사 중 97.0%인 97개사로 가장 비중이 높았으며, 업종전환은 3.0%인 3개사이다.

세부업종별 승인실적을 살펴보면 유통(32개, 32.0%), 기계금속(18개, 18.0%), 기타(15개, 15.0%), 잡화(10개, 10.0%) 순으로 많았으며, 지역별로는 서울(24개, 24.0%), 경기(22개, 22.0%), 부산(9개, 9.0%), 경남(9개, 9.0%)의 순서로 승인업체가 분포되었다.

〈2019년 사업전환계획 승인실적〉

▶ 유형별

유형	업종추가	업종전환	품목추가	합계
업체수	97	3	-	100
비율(%)	97.0	3.0	-	100

* 2012년 산업위 예산 심의시 단순 품목 추가는 제외하라는 지적에 의거 추가유형 삭제

▶ 업종별

업종	기계금속	전기전자	정보	화학	섬유	잡화	유통	식료	기타	합계
업체수	18	8	4	6	3	10	32	4	15	100
비율(%)	18.0	8.0	4.0	6.0	3.0	10.0	32.0	4.0	15.0	100.0

▶ 지역별

지역	서울	부산	인천	대구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경북	경남	전북	전남	제주	합계
업체수	24	9	7	5	1	4	1	22	2	2	5	4	9	2	3	0	100
비율(%)	24.0	9.0	7.0	5.0	1.0	4.0	1.0	22.0	2.0	2.0	5.0	4.0	9.0	2.0	3.0	0.0	100

또한 사업전환 및 구조조정 기업의 신속한 유류자산 거래를 유도하기 위하여 '자산거래 중개장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전환 성공사례집 제작 및 사업광고, 기획홍보기사 보도 등을 통해 사업전환사업의 활성화와 관심 제고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펼치고 있다.

3) 제도개선 사항

다품종 소량생산의 산업구조에 적합하도록 사업전환계획 신청요건 중 "매출액비중"을 폐지함으로써 자유롭고 원활한 사업전환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또한 사업전환계획 승인기업 중 개인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전환자금 상환방식에 「융자상환금 조정형」 제도를 도입하여 대출원금을 기업이 원하는 날짜에 자유롭게 상환할 수 있도록 금융 부담을 경감시켰다. 추가적으로 사업전환으로 인한 신규 투자 추진 시 유동성 애로를 해소시키고자 운전자금 대출기간 및 원금 거치기간을 확대하였다.

〈제도개선〉



나. 무역조정지원자금

1) 사업개요

무역조정지원사업은 FTA(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수입증가로 제조업 또는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매출액 또는 생산량 감소 등의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를 입을 것으로 확실한 경우에 융자 및 컨설팅 지원을 통해 해당 기업의 경쟁력 회복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 사업추진현황

2007년 4월 무역조정지원법 시행 후 2008년부터 2019년까지 211개 기업을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하여 약 724억 원의 융자를 누적 지원하고 있다. 2019년에는 57개사에 127억 원을 지원하였다.

〈2019년 총괄 지원실적〉

(단위 : 억 원, 개사)

예산	신청액	직접대출		대리대출		합계	
		업체수	대여액	업체수	대여액	업체수	대여액
120	174.1	54	107.6	3	19.8	57	127.4

2007년 12월 제조업에 국한되었던 지원범위를 서비스업까지 확대하고, 2012년 1월에는 지정요건을 완화(매출액 등의 무역피해지표 감소율 25% → 10%)하였으며, 2012년 7월 중진공이 신청서류 작성지원을 대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무역조정지원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운영한 결과,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 및 용자 지원이 증가하였다.

〈연도별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 및 용자 지원 실적〉 (단위 : 개사, 백만 원)

구분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합계
무역조정 기업지정	2	3	2	0	8	24	26	17	24	39	28	38	211
용자지원	200	500	850	200	1,485	8,299	10,320	9,360	9,120	10,130	9,204	12,740	72,408

신문·라디오광고와 인쇄매체, 우수사례집 제작 등 종합적인 홍보 채널을 활용하고 업종단체와의 협업을 통하여 릴레이 설명회를 개최함으로써 무역조정지원사업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 및 제도 이용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으며, 향후 FTA 확대에 대비하여 기업이 무역조정제도를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절차 간소화 등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3) 제도개선 사항

FTA 무역피해기업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위해 무역피해사실이 명백할 경우 무역피해조사를 서면조사 방식으로 처리하여 소요기간을 '18년 28일에서 '19년 14일로 50% 단축하였다. 아울러 무역조정 지원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분야별 최적의 전문가를 매칭하여 기업당 5MD 이내 단기 무료멘토링을 '19년 4월부터 시범 추진하여 93.3점으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 재창업자금지원

1) 사업개요

실패한 중소기업인들에게 재기의 기회를 부여하여 기술·경험 등 사회적 자산의 사장을 방지하고 '창업-성장-회수-재도전'의 기업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자금으로, 2019년도에는 813개 업체에 1,200억 원을 집행하였다.

2) 사업추진현황

2010년 3월부터 시행중인 재창업자금은 2020년까지 총 4,045개 기업을 지원하였으며, 2019년도 재창업자금은 지속적인 홍보와 현장수요 발굴 및 제도개선 노력으로 집행실적을 100% 달성하는 등 실패기업의 재도전 기회를 확대·제공 하였다.

〈2019년 총괄 지원실적〉 (단위 : 개사, 백만 원)

예산	신청		대여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120,000	952	185,994	813	120,000

담보별 지원 현황을 보면 전체 1,200억 원 중 직접대출 지원액이 84.1%(1,009억 원)이고 이 중 신용 대출이 86.9%(877억 원)으로 기술·사업성은 우수하나 담보력이 부족한 재창업기업이 원활히 재기를 추진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2019년 담보별 지원실적〉 (단위 : 백만 원)

구분	대리대출	직접대출				합계
		신용	보증서	부동산 등	소계	
담보별	19,094	87,694	9,639	3,573	100,906	120,000

신청자격별로 살펴보면 '신용등급 3~4등급, 신용등급 5~6등급자의 자금애로자,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의 저신용자, 법원의 파산면책 및 개인회생자, 신용불량자' 순으로 지원 비중이 높았다. 중진공은 민간 금융권 이용이 제한된 저신용자는 물론 파산면책, 개인회생자의 재기 지원을 지속 추진중이다.

〈2019 신청자격별 지원실적〉 (단위 : 개사, 백만 원, %)

신청자격	업체수	대출금액(B)	비율(B/A)
신용등급 3~4등급	206	39,501	32.9
자금애로(5,6등급)	211	30,458	25.4
저신용자(7등급이하)	159	17,378	14.5
파산·회생	99	10,904	9.0
신용불량	90	9,935	8.3
기타	48	11,824	9.9
합계	813	120,000	100

업력별 지원현황을 살펴보면 1년 미만(예비창업자 포함) 29.3%, 3년 미만 32.6% 등 재창업 초기기업 위주로 지원함으로써, 창업초기 자금조달 애로 해소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2019년 업력별 지원실적〉 (단위 : %)

구분	기계	금속	전기	전자	섬유	화학	잡화	식료	정보	유통	기타	합계
업체수	126	120	54	54	41	51	61	47	57	143	59	813
비중	15.5	14.8	6.6	6.6	5.0	6.3	7.5	5.8	7.0	17.6	7.3	100

업종별 지원현황을 살펴보면 제조업 지원 비중이 68.3%, 정보·유통·기타 업종이 31.7%로 제조업에 대한 지원 비중이 높은 편이며, 세부업종별로는 유통이 17.6% 가장 높고, 기계 15.5%, 금속 14.8%, 잡화 7.5% 순이었다.

3) 제도개선사항

재창업자금은 파산면책, 회생, 신용회복의 공공정보(일반신용관리규약) 보유자의 재기도 지원하고 있으며, 2014년부터 재창업자금 지원시 재창업자가 보유한 공공정보를 블라인드(재가지원 신용정보1601 등록 효과)처리하여 신용도 개선을 도모하고 있다. 이 '재가지원 신용정보(1601코드) 등록' 지원을 그간 공공정보 보유자에 한하여 일부 시행한 것으로부터 2019년 8월 1일부터 모든 재창업 자금 지원자에 대해 확대 시행하였다. 재가지원 신용정보 등록시, 공공정보 블라인드 및 연체기록 삭제 등이 개인 신용등급 및 금융 접근성 개선 효과가 있어 재창업자의 재기 지원에 기여하였다.

라. 구조개선전용자금

1) 사업개요

구조개선전용자금은 부실징후 중소기업에 대하여 폐업 전 단계에서 선제적으로 구조개선을 지원하여 조기 정상화 및 재도약의 기회 제공을 목적으로 운전자금에 한해 지원하며 2015년 신설되었다.

2) 사업추진현황

2015년 1월 신규 사업으로, 2019년 총 202개사에 300억 원을 지원함으로써 위기기업의 조기 정상화에 기여하였다.

〈2019년 총괄 지원실적〉 (단위 : 억 원)

예산	신청		대여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300	232	49,740	202	300

신청요건별 지원 실적을 살펴보면 진로제시컨설팅과 연계하여 지원하였던 기업 비중이 59.5%로 가장 높았으며, 은행권 추천을 통해 지원하는 기업 23.4%, 신용불량·회생인가 기업이 8.3%, 중진공 경보 및 신기보 지정 경영애로기업을 요건으로 하는 기업이 5.9%, 워크아웃추진기업 2.9% 순이었다.

〈2019년 신청요건별 지원실적〉 (단위 : 억 원)

지원대상	신청		대여		
	건수	금액	건수	금액	비율(%)
진로제시컨설팅	144	248.1	131	178.5	59.5
중진공, 신기보 지정	11	23.3	10	17.8	5.9
신용불량·회생인가	18	48.0	16	24.9	8.3
은행권 추천	55	158.0	41	70.3	23.4
워크아웃	4	20.0	4	8.5	2.9
계	232	497.4	202	300	100

업종별 지원현황을 살펴보면 제조업 지원 비중이 73.3%, 정보·유통·기타 업종이 26.7%로 제조업에 대한 지원 비중이 높은 편이며, 세부업종별로는 기계가 19.3%로 가장 높고 금속 17.3%, 유통 14.4%, 화학 10.9% 등 순이었다.

〈2019 업종별 지원실적〉 (단위 : 개사, %)

구분	기계	금속	전기	전자	섬유	화학	잡화	식료	정보	유통	기타	합계
업체수	39	35	8	10	5	22	14	15	9	29	16	202
비중	19.3	17.3	4.0	5.0	2.5	10.9	6.9	7.4	4.5	14.4	7.8	100

구조개선전용자금 총 300억 원은 100% 신용대출이며, 이는 담보가 부족하고 신속한 지원이 필수적인 경영 애로업체의 특성에 기인한다. 제도적으로 대리대출 방식으로는 지원이 불가하다.

3) 제도개선사항

부실징후기업의 구조조정 등을 통한 경영정상화 지원 확대를 위해 구조개선전용자금의 신청자격 및 사업추진 방식의 다각화 관련 기관 협업을 추진하였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추천기업에 대한 신청 접수 및 한국자산관리공사·SGI서울보증과의 패키지형 지원 제도 마련을 위한 MOU를 체결하였으며, 사업 추진을 위한 규정을 정비하였다.

[재도전종합지원센터]

1) 사업개요

경제침체 지속, 저성장 경제환경 하에서 위기 및 실패기업이 증가하고 있는 바, 경영애로 극복과 원활한 재도전 지원을 위한 전담지원 창구의 필요성에 의해 '14년 서울 재도전종합지원센터의 개소를 시작으로 '19년 12월 말 현재 18개소가 운영 중이다. 사전 전문상담, 자금지원, 교육, 사후멘토링, 연계지원 등 재도전맞춤형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며 역동적 재창업 분위기 조성을 주도하고 있다.

2) 사업추진현황

사전상담은 자금 및 컨설팅 상담, 실패경영인의 채무조정방안을 모색하여 재기지원의 발판을 마련하여 주는 신용회복 및 개인회생 상담, 위기기업의 회생절차를 안내해주는 법인회생상담, 신속한 폐업 및 재도전을 위한 사업정리 상담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2019 총 5,093건 상담이 실시되었으며, 이 중 자금관련 상담은 45.6%, 경영애로, 회생·파산 등 자금 외 상담은 54.4%가 진행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2019년 재기지원 상담실적〉

일반상담		전문상담		상담방식			
항목	건수	항목	건수	방문	전화	출장	합계
경영애로전반	901	신용회복	196	1,628	1,537	57	3,222
재창업자금	2,324	법률상담	72				
재창업교육	367	개인회생,파산	180				
구조개선전용자금	390						
재기컨설팅	373						
세무상담	94						
기타(타사업연계등)	196						
소계	4,645	소계	448				

재창업자금 및 구조개선전용자금 지원 후 정례적(분기별) 사후멘토링을 통해 성과 모니터링 및 성공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대한 추가자금 지원, 마케팅, 연수, R&D 등 연계지원을 통하여 지원기업의 생존을 제고를 도모하고 있다. 2019년 사후멘토링은 총 1,466건 실시되었으며, 경영전략, 대출금 점검, 경영애로 파악, 연계지원 안내 등을 주요 내용으로 진행되었다.

3) 제도개선사항

재도전맞춤형 원스톱 서비스의 확대 및 고객접근성 향상을 위해 재도전종합지원센터를 추가 개소(5개소)* 하였으며, 재도전지원 홍보 및 제도 활성화를 위해 '재도전지원사업 통합설명회'를 정례화 하여 재도전 기업에 대한 밀착 지원을 강화하였고 멘토링 전산시스템 운영 활성화를 통해 기업 현황관리 등 체계적 관리체계를 구축하였다.

* ('14년) 1개소 (서울) → ('15년) 3개소 (부산, 대전) → ('16년) 7개소 (인천, 광주, 대구, 경남) → ('17년) 9개소 (경기, 서울서부) → ('18년) 13개소 (전북, 강원, 울산, 경기북부) → ('19년) 18개소 (전남, 충북, 경남, 제주, 충남)

글로벌화 및 판로확대

1. 사업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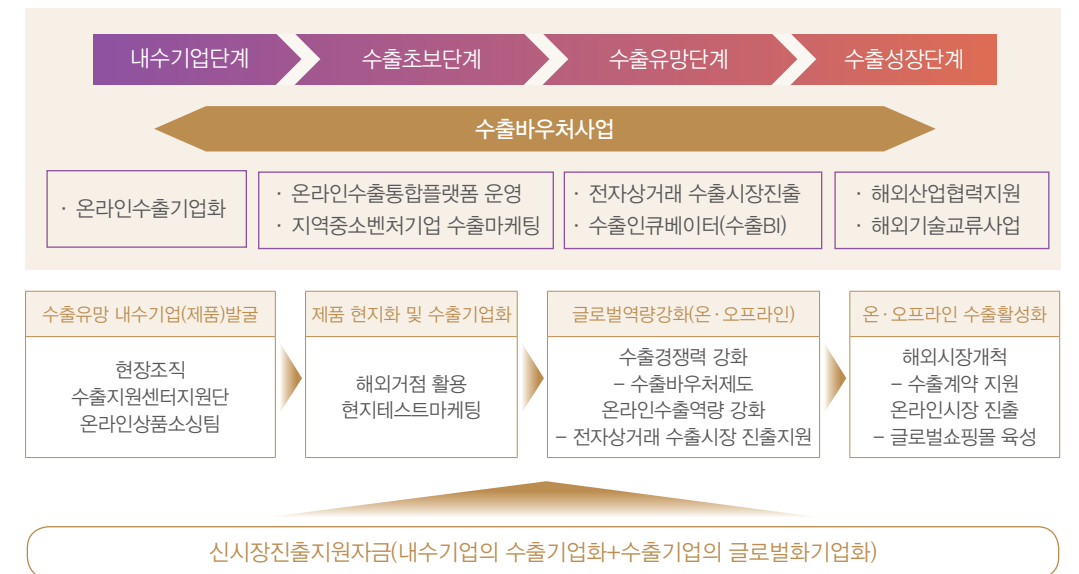
수출마케팅 및 글로벌화 지원사업은 중소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통한 수출확대를 위한 사업으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7조 및 제74조에 추진근거를 두고 있다.

1979년 해외기술도입 및 중소기업 해외투자지원 등 해외산업협력지원을 시작으로 1996년 공공부문 최초 온라인 B2B사이트인 고비즈코리아(GobizKOREA) 운영, 1998년 수출인큐베이터(BI) 사업을 추진하였고, 2008년 해외마케팅 지원 창구 단일화 조치 및 2013년 중소·중견기업 총력 수출지원체계 구축 등을 통해 현재의 수출마케팅 및 글로벌화 지원사업이 완성되었다.

수출마케팅 및 글로벌화 지원사업은 32개 지역본·지부의 국내 지원 인프라와 정책자금 등 다양한 연계지원 수단을 통해 유망내수기업 및 제품을 '발굴 → 육성 → 온·오프라인 해외진출' 지원하는 체계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 타 기관과 차별화된 특징이다. 또한 지자체, 수출유관기관과의 협업 및 공동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지원성과를 창출하고 있다.

또한, 수출마케팅사업 지원효과 제고를 위해 수출성공 및 향상기업에 대해 정책자금 금리환급, 수출전용자금 지원규모 확대 추진을 통한 사업간 연계를 강화하고 있으며, 수출성장단계별(내수기업 → 수출초보 → 수출유망 → 수출성장)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지원하고 있다.

〈주요사업 및 추진체계〉



신시장진출지원자금(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수출기업의 글로벌화기업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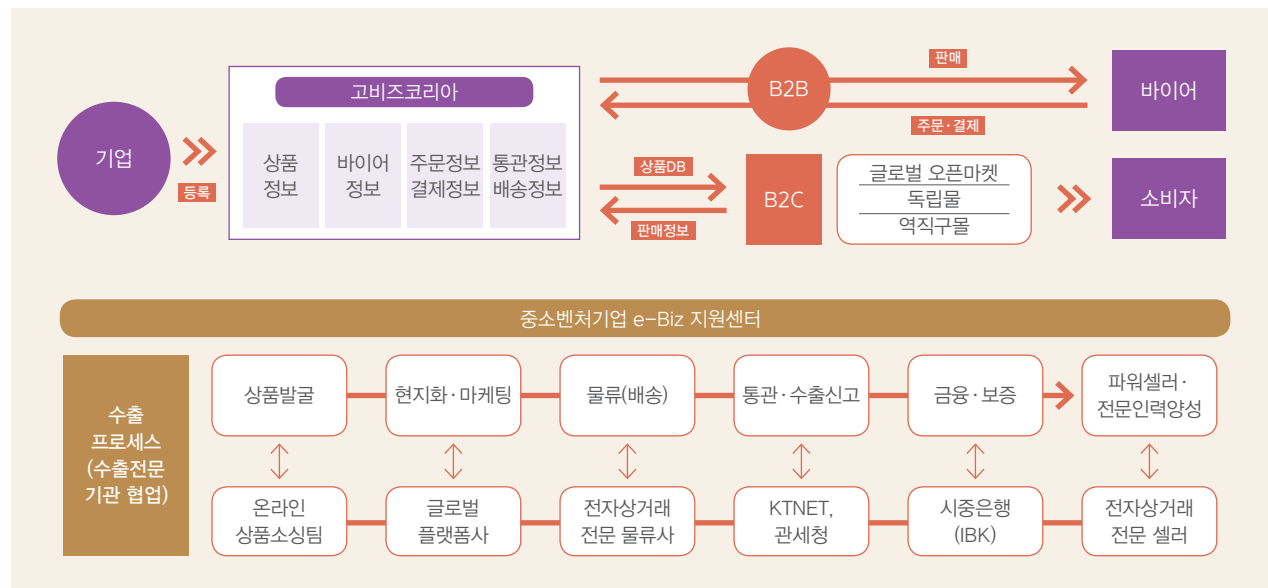
2. 주요 추진실적 및 성과

중진공은 유망 중소벤처기업(제품) 발굴 및 테스트마케팅 강화,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수출성장단계 별 맞춤형 수출지원, 수출지원기관 간 협업, 온·오프라인 해외진출 지원을 통해 2019년 총 29억 불의 수출성과(사업 지원 후 수출액)를 달성하였다.

산업부 주관 법정부적으로 추진한 「내수기업 수출기업화」(목표 : 7,498개사)에서 중진공은 3,038개 내수기업을 수출기업화하여 기관 목표(2,730개사) 대비 111.3% 초과 달성하여 수출지원기관(9개) 중 최고 성과를 기록했고, 이를 대외적으로 인정받아 2020년 「내수기업 수출기업화」(목표 : 7,498개사)에도 최대 목표(2,730개사)를 부여받았다.

글로벌시장 트렌드에 맞추어 수출전문기관과 협업을 통한 온라인수출통합플랫폼 운영 체계를 기반으로 온라인 수출 지원을 확대하였으며, 한류마케팅을 활용하여 27,459개의 수출유망상품 발굴, 302백만 불의 온라인수출성과를 창출하였고 특히 중소벤처기업 전자상거래 전용 국제물류상품을 개발하여 578억 원의 물류비를 절감하여 기획재정부 혁신·협업·시민참여과제 평가에 우선과제로 선정되었다.

〈온라인수출통합플랫폼〉



해외진출 지원성과 제고를 위해 해외거점별 기능을 특화하여 기술수요 매칭 등 맞춤형 현지화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글로벌 혁신허브를 활용하여 해외진출 스타트업의 민간 투자유치 지원 등을 통해 735백만 불의 수출성과를 창출하였다.

아울러, 일본 수출규제 위기 극복을 위해 현장 긴급대응체계를 가동, 전세계 120만개 글로벌 바이어 정보를 제공하는 해외 대체 바이어 발굴 서비스를 신규 추진하여 18개사에 35건의 대체 수입선 정보를 매칭하는 등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의 수입선 다변화를 지원하여 수출안전망 역할을 강화하였다.

3. 세부사업 추진실적

[지역중소기업수출마케팅]

지역중소기업수출마케팅은 지자체와의 협업을 통해 중소기업의 해외판로 개척과 수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무역사절단과 해외전시회 등 해외마케팅과 해외바이어알선지원, 계약실무, 무역협상 등 사후관리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2009년부터 중진공은 해외마케팅창구 단일화 조치에 따라 지역자치단체와 협력하여 무역사절단, 해외전시회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2019년 해외전시회 16회, 무역사절단 105회, 수출상담회 4회, 지역특화해외마케팅 10회 등 총 135회 사업추진을 통해 1,301개사, 89백만 불 수출계약체결을 지원했다.

〈2019년 지역중소기업수출마케팅 상담 및 수출계약 성과〉

유형	실적		성과		
	횟수	참가기업	상담금액(백만 불)	상담횟수	계약체결액(백만 불)
해외전시회	16	227	550	7,975	14
무역사절단	105	833	2,334	10,809	72
수출상담회	4	118	110	219	3
지역특화마케팅	10	123	38	59	-
계	135	1,301	3,032	19,062	89

사업참여업체 중 88.5%를 비수도권 중소기업에 지원하였으며, 지역별 전략산업중심 수출지원을 통해 비수도권 소재 기업의 전년대비 12.5% 수출액 향상에 기여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했다.

〈2019년 지역별 전략산업 및 지원내용〉

지역	품목	추진내용
전남, 충북	에너지신산업, 스마트팜	농식품 특화 수출바우처 제공
경남, 제주	보건, 의료, 건강식품	품목특화 무역사절단 파견
경북	소비재	시장조사 등 글로벌 컨설팅 지원
충북, 제주, 서울	화장품	미용전문 전시회 참가지원
경남, 경북, 부산, 울산	기계, 부품, 소재	현지 수출상담회 및 시장조사지원

지역중소기업수출마케팅사업 참여기업 중 내수기업은 21.4%이며, 이 중 50.7%가 첫 수출에 성공하여 내수기업 수출기업화에 기여했다. 또한, 수출실적을 보유한 기업의 수출증가율은 국가전체 중소기업 평균(-4.1%)을 상회한 12.1%의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다.

〈'19년 지역중소기업수출마케팅 수출성과〉

참여업체	구분**	기업 수	비율
960*	내수기업	205	21.4%
		지원년도 수출실적 발생기업	104
	수출기업	755	78.6%
		중소기업 평균 수출증가율 초과기업	442

* 해외전시회, 무역사절단 등 참여업체 1,301개사 중 중복을 제외한 숫자임

** 전년도('18) 수출실적 0불인 기업을 내수기업으로, 1불 이상인 기업을 수출기업으로 분류함

[수출바우처사업(내수, 초보, 유망, 성장)]

수출바우처사업은 내수기업, 수출초보기업, 수출유망기업, 수출성장기업 등 수출 성장단계에 따라 필요한 제반 마케팅 활동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수출저변 확대와 수출 강소기업 육성을 목표로 하는 사업이다.

중복지원을 방지하고 수출단계별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수출성공패키지, 고성장기업 수출역량 강화사업, 아시아하이웨이 3개 사업을 수출바우처사업(내수,초보,유망,성장) 1개 사업으로 통합하였으며 전년도 수출실적 500만 불 미만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의 내역사업이다.

〈수출바우처 세부지원 서비스〉

대분류	서비스 주요 내용
조사/일반 컨설팅	파트너·바이어·원부자재공급선 발굴조사, 해외시장조사, 소비자 리서치, 경쟁제품 동향조사, 해외 기업 신용 및 기업실태조사에 걸친 유사 서비스 등
통번역	계약/법률 문서, 비즈니스/기술문서, 홈페이지 번역 등 통번역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등
역량강화 교육	무역실무, 글로벌마케터 양성, 비즈니스 회화, 전략시장진출 등 수출 역량강화 교육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특허/지재권/시험	현지 시험·인허가, 지식재산권 등록,지재권 분쟁지원등 특허/지재권/시험 관련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서류대행/현지등록/환보험	계약서 작성(지불조건 포함), 통관/선적 필요 서류 작성, 결제관련 서류 작성, FTA원산지 관련 서류 작성등 서류대행/현지등록/환보험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홍보/광고	TV·PPL, 신문·잡지 홍보/광고, SNS·검색엔진 마케팅등 광고 매체를 활용한 홍보/광고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브랜드 개발 관리	수출브랜드, 네이밍, 온/오프라인 제품매뉴얼 제작, 브랜드 정품인증, 위변조방지 등 브랜드개발/관리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전시회/행사/해외영업지원	국내개최국제전시회 참가, 현지 바이어 매칭 상담회/세미나/제품시연회등 전시회/행사/해외영업지원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법무·세무·회계 컨설팅	회계감사, 세무조사, 세무자문, 법률자문, 법인설립, 해외현지 클레임 해결지원, 해외법인 설립지원 등 수출목적의 법무·세무·회계 컨설팅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디자인 개발	외국어 종이/전자 카탈로그 제작, 외국어 포장디자인, 외국어 홈페이지(반응형), 모바일용 앱, 해외 온라인 쇼핑몰 상품페이지, 제품디자인, CI 및 BI 개발 등
홍보 동영상	외국어 홍보 동영상 제작 등
해외규격인증	해외인증비용 사후정산, 위생, 할랄 등 해외 인증 취득 및 등록 등 해외규격인증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수출준비, 거래선 발굴, 계약체결, 해외진출 등 수출 소과정에 필요한 마케팅경비를 바우처 방식으로 수출단계별로 차등하여 최대 80백만 원까지 지원하며, 참여기업은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메뉴판 內 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자율마케팅을 수행한다.

'19년도에는 시스템 개편을 통해 서비스 정보 공개를 확대하고 참여기업·수행기관 간 매칭 애로 해소를 위한 수출바우처 매칭페어를 개최하였으며 서류준비 간소화 시행으로 고객 편의성을 향상시켰다. 아울러 내수 및 수출초보기업의 성과 창출을 위한 공동마케팅 프로그램(온라인 판매전 및 신제품 런칭쇼 등)을 기획·후속지원하여 수출성고를 극대화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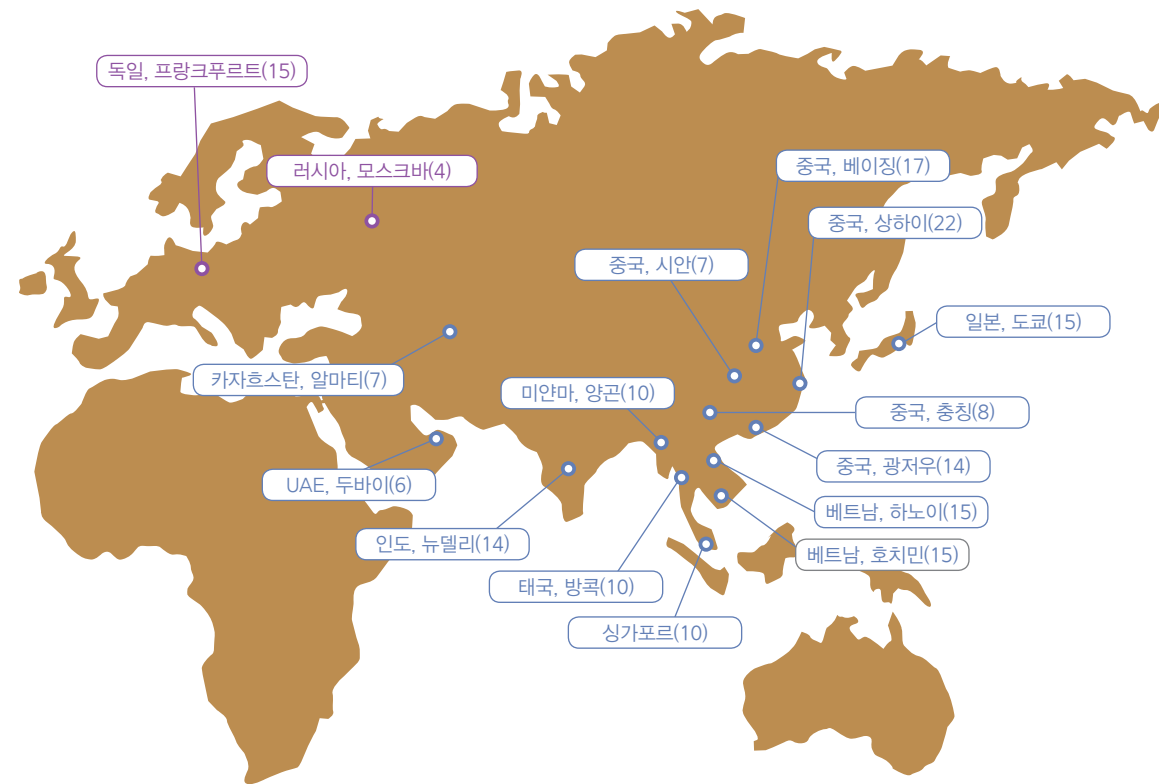
2019년 수출잠재력 및 성장성이 높은 2,493개사에 2020년 3월 기준 903억 원을 지원하여 1,397백만불의 수출실적 달성(전년 대비 26.7% 증가)하였으며, 내수기업이었던 821개사 중에 433개사(52.7%)가 첫수출을 달성하였다.

〈2019년 참여기업 수출 성과〉

(단위 : 개사, 천 원, 천 불, %.)

지원기업수	기업당 평균 지원액	수출실적	수출증가율
2,493	36,241	1,397,342	2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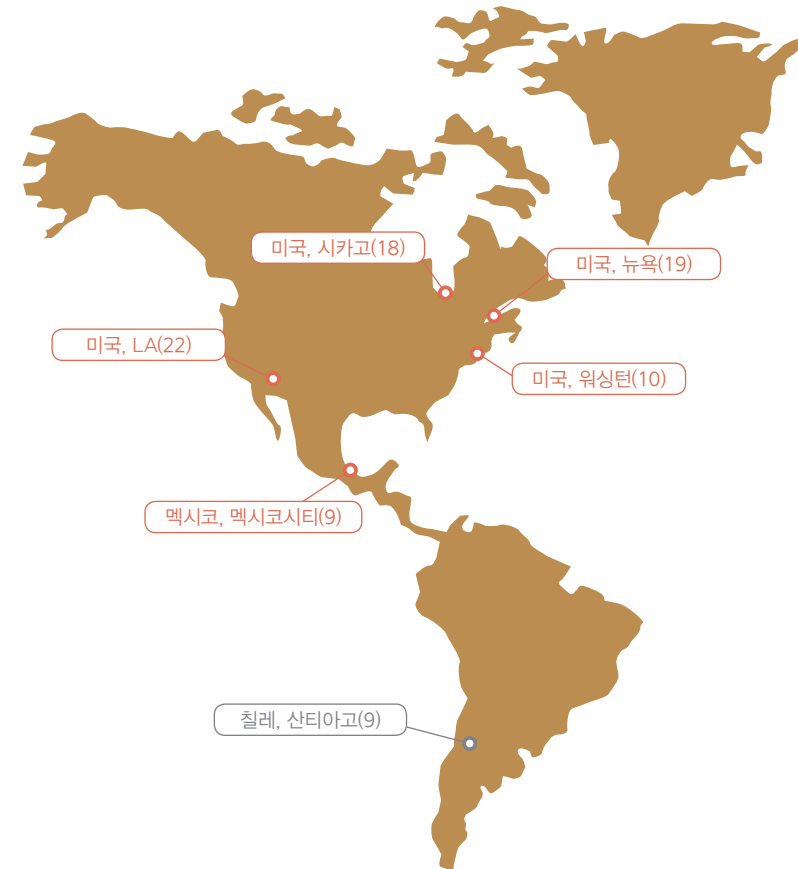
[수출인큐베이터사업]



수출인큐베이터사업은 해외 현지에서 지사나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에게 설립초기의 위험을 경감해 주고 조기정착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 스스로 해외시장 진출과 수출확대를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개별기업이 임차하기 어려운 12~20㎡ 규모의 독립된 사무공간을 저렴한 비용(1년차 기준 임차료의 80% 정부지원)으로 제공하는 동시에, 현지정착 지원, 바이어 및 시장정보 제공 등 마케팅 지원, 컨설팅 및 상담, 현지네트워크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한다.

2019년 말 기준, 수출인큐베이터는 미국(시카고, LA, 워싱턴, 뉴욕), 독일(프랑크푸르트), 중국(베이징, 광저우, 상하이, 시안, 충칭), 일본(도쿄), 베트남(호치민, 하노이), 싱가포르(싱가포르), 러시아(모스크바), UAE(두바이), 인도(뉴델리), 멕시코(멕시코시티), 카자흐스탄(알마티), 칠레(산티아고), 태국(방콕), 미얀마(양곤) 등 주요 해외교역 중심국가에 설치·운영(14개국 22개소)중에 있다.



설치·운영규모
14개국 22개소
총 개실
276

〈설치지역 및 입주규모〉

지역	미국		독일	중국			일본	베트남		싱가포르	러시아	UAE	인도	멕시코	카자흐스탄	칠레	태국	미얀마	계
	시카고	LA		베이징	광저우	상하이		호치민	하노이										
입주 규모	18	22	15	17	22	7	8	15	15	10	4	6	14	9	7	9	10	10	276

2019년 입주업체의 총 수출실적은 약 6억 9,193만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입주업체 성과분석 결과, 입주전년 대비 입주년도 평균 수출액이 4.25% 증가하여 같은 해 중소기업 평균 수출 증가율인 -4.1% 대비 수출액이 8% 이상 증가되는 등 입주기업의 수출성과가 제고되었다. 또한 기존 독립 사무공간 외에도 오픈스페이스를 제공하는 공유오피스와, 스타트업의 성공적인 해외시장 진출지원을 위해 비즈니스 혁신 거점인 미국(시애틀)과 인도(뉴델리)에 KSC를 설치하여 운영할 계획에 있다. KSC는 스타트업 기업을 대상으로 입주공간 뿐만 아니라 현지 진출을 위한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도 함께 제공할 예정이다.

[해외산업협력지원사업]

가. 해외산업 협력기반 구축

1) 사업개요

중진공은 국내·외 정부 및 중소기업 지원기관 등과의 협력을 통해 중소기업에 유용한 해외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해외 정보 및 기반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해외 47개국 92개 협력 네트워크와 중국 칭다오 중소기업지원센터,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 코리아데스크를 통해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기반을 조성하고 있다.

2) 사업 추진 현황

2018년 한 해 동안 해외 중소기업 지원기관과 MOU체결(10개국 15개 기관), 산업협력관 교환(9개국 24명), 매칭상담회 및 세미나(10회), 산업협력사절단(2회), 정상외교 경제사절단 참가(4회)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협력기반을 마련하였다. 아울러, 산업협력사절단, 국제회의 및 외빈 방한 지원 등 해외 유관기관과의 다양한 협력사업 수행을 통해 중소기업 해외 진출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활동을 추진하였다.

〈2019년 해외협력기반 조성〉

구분	실적	비고
MOU 체결	15회	인니, 카자흐, 러시아 등 10개국 15개 기관
산업협력관 교환	24명	인도, 네팔, 프랑스 등 9개국 24명 교환
매칭상담회 및 세미나	10회	한-아세안 스타트업 컨퍼런스 등 10회
산업협력사절단	2회	러시아, 네팔 등 2회
정상순방외교 경제사절단 참가	4회	말련, 카자흐, 태국 등 6개국



중진공-Business sweden 중소기업 협력 MOU 체결('19.6.14)



한-아세안 스타트업 컨퍼런스('19.11.25~26)

특히, 한·아세안 대화관계 수립 30주년을 기념하여, 한 아세안 11개국 정상이 참여하는 한국과 아세안의 스타트업 국제행사를 주관하여, 한아세안 스타트업 컨퍼런스, 한아세안 스타트업 네트워킹 행사를 통한 아세안 창업생태계 기반조성에 기여하였으며, 아세안 스타트업 공동발전을 위한 VIP와 아세안의장국(태국) 정상의 공동의장성명을 이끌어 내었다. 또한 카자흐스탄 중소기업공사와 공동으로 기술교류센터를 개소함으로써 신북방 기술수출기반을 구축하였다.

중국 칭다오·미국 뉴저지 중소기업지원센터 및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 코리아데스크에서는 지역별 사회·경제적 특성을 반영한 특성화 과제를 추진하여 우리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기반을 조성하였다.

〈2019년 해외거점 특성화과제 추진〉

구분	특성화과제	운영성과
미국 중기센터	중소벤처기업의 미주 글로벌 혁신성장지원 거점 구축	- KSC 시애틀 개소 지원(신규 파견자 비자발급, 현지 직원 계약서 검토 등) - 시애틀 현지 네트워크 발굴 9건
중국 중기센터	2019 한중 스마트팩토리 구축 기술교류 세미나	- 기술교류 세미나 개최(64명 참가) - 스마트팩토리 관련 현장 진단 컨설팅 7개사 실시
인도네시아 코리아데스크	인도네시아 투자진출 한국기업 현지화 지원	- 인도네시아 투자진출 관련 세미나 4회 개최 - 인도네시아 투자진출 책자발간 - 현지 진출 중소기업의 규제 관련 애로해소 및 인니 정부부처와의 네트워크 구축 지원
말레이시아 리아데스크	중소기업 말레이시아 직접투자 및 기술협력을 통한 진출지원	- 한-말련 기술교류 행사 개최(중소벤처기업 25개사 참석) - 신규 투자진출 희망기업 발굴 3개사

나. APEC 중소기업혁신센터 운영

1) 사업개요

「APEC 중소기업혁신센터」는 제12차 APEC 중소기업 장관회의(2005) 공동선언을 통해 설립제안이 채택되었으며, 2006년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내 최초 설립되었다가 2009년 중진공으로 이관되어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다. 「APEC 중소기업혁신센터」 운영은 APEC 역내 회원국 간의 가교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국가 위상을 제고시키고, 21개 회원국과 구축된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국내 중소기업의 글로벌화 지원 및 산업협력기회 창출에 그 의미를 두고 있다.

2) 사업 추진 현황

2019년은 APEC 중소기업의 동반성장 지원을 목표로 역내 중소기업의 혁신역량 강화 및 국내 중소기업의 APEC 시장 진출 지원에 힘썼다.

특히, APEC 프로젝트 기금을 5년 연속 획득하였으며, '18년에 확보한 기금(100천 불)을 활용하여 APEC 전략과제 중 하나인 '역내중소기업 역량강화'를 위해 'APEC 빅데이터 및 AI 기술활용 중소기업 혁신역량 강화 포럼'을 개최하였다. 이를 통해 APEC 중소벤처기업인, 국내외 유관기관 관계자 등 총 90명이 참가하여 4차산업의 중요분야인 빅데이터와 AI관련 기술 정책 등을 공유하였다. 또한, '19년에 확보한 APEC 기금(100천 불)을 활용, APEC 중소벤처기업인 포럼을 통해 중소기업의 스마트팩토리 확산방안 및 성공사례를 공유하고, 사이버보안 관련기술의 공유로 역내 중소벤처기업의 혁신 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APEC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기술활용 중소기업 혁신역량강화 포럼('19.10.24, 임페리얼펠리스 서울)

아울러, APEC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경영·기술진단 및 컨설팅을 추진하였으며, APEC 중소기업 장관회의 및 실무그룹 회의에 참석하여 역내 회원국과의 중소기업 지원정책 및 정보 공유 등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였다.

〈2019년 APEC 중소기업 혁신센터 운영 실적〉

분야	세부사업명	실적
동반성장	APEC 빅데이터 및 AI 기술활용 혁신포럼	- APEC 회원국 담당자 및 기업인 18명 참가 - 국내기업인 및 유관기관 71명 참가
	APEC 혁신센터 웹사이트 운영	- APEC 혁신활동 및 정책정보 제공
혁신역량강화	APEC 혁신 컨설팅	- 2개국 10개사 - 컨설팅 결과 활용률 100%
정책전파	APEC 중소기업 실무그룹회의 참석	- 실무그룹회의(중국 칭다오)



APEC 혁신 컨설팅('19.11.18~11.23, 인도네시아 RM Dapur Sunda)



제48차 APEC 중소기업 실무그룹회의('19.5.30, 중국 칭다오)

[해외지사화사업]

해외지사화사업은 해외에 지사를 설치할 여력이 부족한 중소·중견기업의 현지 지사 역할을 대행하여 수출 및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중진공에서 중기부 수탁으로 추진해 왔던 '해외민간네트워크 활용사업'이 2017년도부터 산업부 수탁 '해외지사화사업'으로 통합되면서, 중진공, 코트라, OKTA 3개 기관이 공동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중소벤처기업의 해외진출에 필요한 해외마케팅·컨설팅 서비스 역량을 보유한 민간 컨설팅 기업인 '해외민간네트워크'로 지정하여 해외지사화 사업의 수행사로 활용하고 있다.

동 사업은 기업의 해외진출 단계를 '진입', '발전', '확장' 단계로 구분하고, 단계별 필요한 서비스를 특화하여 지원하고 있다. '진입' 단계는 기초 시장조사, 수출가능성 점검, 로컬마케팅 등 기초적인 마케팅을 지원하고 있으며, '발전' 단계는 전시·상담회 참가지원, 출장지원, 물류통관 자문 등 수출 및 성장지원, '확장' 단계는 기술수출, 해외 투자유치, 조달진출, 인큐베이팅 서비스 등 기업의 타깃국가 현지화를 지원하고 있다. 특히 중진공은 중소벤처기업의 실질적 해외진출 지원을 위하여 발전단계 및 확장단계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019년에는 총 42개국 127개사의 해외민간네트워크를 지정하여 국내 중소벤처기업의 수출 지원부터 협력파트너 발굴, 법률자문, 기술수출, 현지법인 설립, 국제조달시장 진출까지 여러 해외진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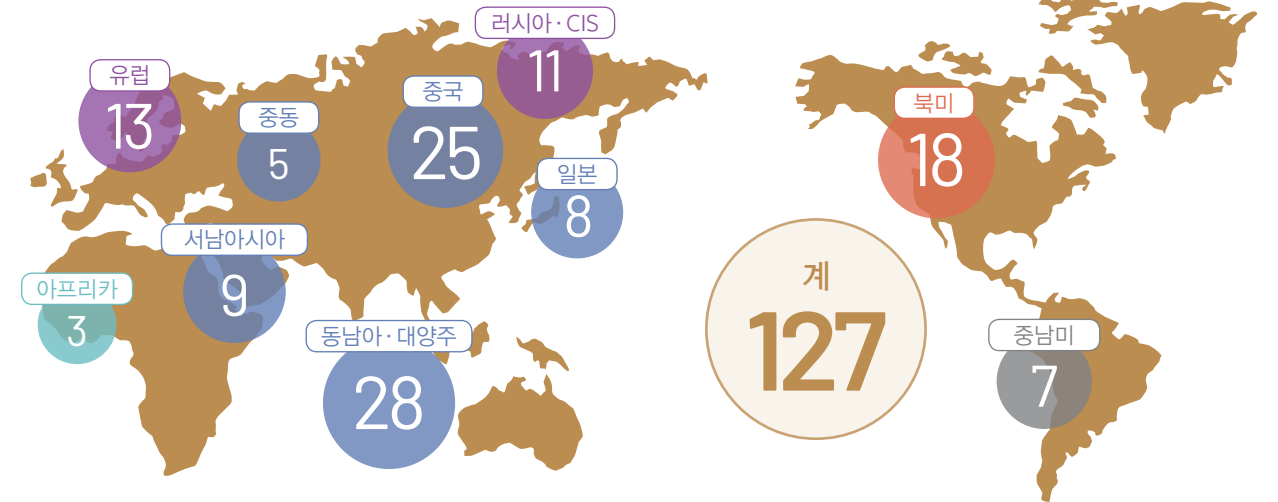
〈해외민간네트워크 지원실적('15~'19년)〉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지원기업 수(건)	282	235	475	370	370
수출실적(백만불)	279	272	902	353	(진행 중)
투자유치(백만불)	14.01	13.1	3.6	-	(진행 중)
현지법인(지사)설립(건)	17	12	11	7	(진행 중)
기술협력 계약체결(건)	10	6	4	5	(진행 중)

* (사업기간)
(18년도)'18. 1월~'19. 8월
(19년도)'19. 1월~'20. 8월

〈2019년도 해외민간네트워크 현황〉

(단위 : 개사)



중국	동남아·대양주	북미	유럽	서남아시아	러시아·CIS	중남미	일본	중동	아프리카	계
25	28	18	13	9	11	7	8	5	3	127

〈'01~'18년도 해외민간네트워크 지원실적(누계)〉



[해외기술교류사업]

해외기술교류사업은 한국과 신흥국 정부간(G2G) 협력을 통해 한국 중소기업의 기술을 해외 현지 기업에 수출하여,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과 기술수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중진공 직접 사업을 통해, 각국 정부기관과 공동으로 수요·공급 기술을 발굴하고 기술진단을 실시하여 매칭가능성을 높이고 있으며, 기술교류단의 현지파견 및 사후지원을 통해 기술수출을 촉진한다.

〈주요 기술수출 유형〉



'19년 기술교류 협력 국가는 인도, 태국, 말레이시아, 카자흐스탄 4개국이며, 현지여건, 기술수요, 정부기관의 협조도 등을 고려하여 협력국가를 단계적으로 확대중이다. 19년도는 태국(방콕, 9월) 카자흐스탄(알마티, 12월) 현지에 기술교류센터를 신규 설치하여 양국 기업간 기술교류 확대를 위해 상호 협력하고 있다. 아울러 협력 국가의 수요기술(바이어) 발굴 강화를 위해 인도 현지의 기술전문인력 양성 교육을 지원(인도 40여명)하는 노력을 병행하고 있다.



한-카자흐 기술교류센터 개소 행사
('19.12, 카자흐스탄 알마티)



인도 현지 기술전문인력 양성교육
('19.9, 인도 뉴델리)

수출을 위한 신규 국내 우수기술을 발굴하고, 업종별 전문 코디네이터를 배정하여 기술진단 지원을 통해 해외 기업에 제공 가능한 175건의 기술 DB를 구축하였다. 또한 코디네이터의 역할을 기존 기술진단 중심에서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기업간 상담회 협상 지원 및 해외 진출 자문까지로 확대하였다.

인도, 태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카자흐스탄 5개국을 대상으로 기술교류 경험이 있는 해외 현지 민간수행사를 기술사업화전문기관으로 운영하여 공급기술 발굴, 현지 계약진행 등 상시적인 교류 지원에 대응하였다. 20년도는 해외기술교류 온라인 플랫폼(G-TEP) 개편구축을 통해 상담회 신청창구를 일원화하고, 해외 수요 기업 발굴 및 매칭을 통한 해외진출 지원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또한 4개 국가를 대상으로 총 5회의 기술교류단을 기획·운영하고, 현지 기업과 MOU 체결을 통한 국내 기술 우수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였다. 국내 참여기업 55개사와 278개의 현지 기업이 만나 MOU 40건을 체결하는 등 기존 제품 수출 중심에서 기술 수출이라는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 기회를 제공하였다.

〈2019년 기술교류단 운영 실적〉

(단위 : 개사, 건)

국가	회차	주요 테마산업	한국기업	해외기업	상담	방문	MOU
인도(뉴델리)	1	기계·자동차부품	12	51	51	23	4
태국(방콕)	1	섬유·식품	9	44	44	12	4
	2	IT·기계	15	50	50	17	11
말레이시아(쿠알라룸푸르)	1	자동차부품·전기	11	82	82	6	7
카자흐스탄(알마티)	1	섬유·IT	8	51	51	2	14
합계			55	278	278	60	40



한-말레이시아 기술교류 상담회 ('19.3.12~15,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Korea SMEs
and Startups
Agency

AR 2019

[온라인수출통합플랫폼 (B2B 중심 지원)]

온라인수출통합플랫폼(GobizKOREA)은 해외시장 홍보,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 초보 중소기업을 위해 플랫폼 내 온라인수출 인프라 구축, 검색엔진 마케팅 등 온라인 홍보지원, 후속 마케팅을 통한 계약 성사 증대를 통해 중소기업 수출 촉진을 목적으로 1996년부터 시작되었다.

1) 온라인 수출인프라 구축

중소벤처기업의 온라인 수출인프라 구축을 위해 외국어홈페이지 및 상품페이지 제작을 지원하며, GobizKOREA (www.gobizkorea.com)를 기반으로 62,793개사 250,251개 상품정보를 DB화하여 국내상품 소싱을 원하는 해외바이어와 국내기업간의 해외거래 네트워크망 구축을 지원하였다.

2019년에는 타겟시장과 타겟품목을 도출하여 27,459개의 수출유망상품을 신규로 발굴하였고 총 53,062천 불의 수출실적을 달성하였다.

2) 해외 홍보마케팅 및 사후관리 지원

구글, 야후 등 바이어들이 주로 이용하는 해외 유명포탈사이트에 검색엔진최적화(SEO)를 적용하여 중소기업의 홈페이지를 상위 노출시킴으로써 신규바이어를 발굴하는 검색엔진마케팅을 운영하였으며, 현지시장 타겟마케팅을 강화하기 위하여 전세계에서 많이 쓰이는 9개 언어를 기준으로 바이어 맞춤정보를 현지어로 제공하는 온라인수출관을 별도로 구축하여 지역별 맞춤형 온라인 수출을 지원하였다.

아울러, 고비즈코리아 등을 통해 내도하는 해외바이어의 구매오피 대응 애로 해결을 위해 「인콰이어리 검증→對 바이어 협상→수출계약 체결→사후관리」까지 무역 쏘단계를 지원하는 구매오피 사후관리 사업을 추진하여 총 17,099건의 사후관리 실적을 달성하였다.

3) 중소기업 온라인 수출 교육 실시 및 우수제품 해외 홍보지원

국내 중소기업의 온라인 수출 역량강화를 위해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국내 중소기업 181명이 참가하였으며, 영문이메일 작성방법, 수출계약서 협상 노하우, 유효 인콰이어리 검증 방법 등 온라인 무역에 필요한 다양한 교육을 통해 무역실무 능력 함양을 지원하였다.

또한, 중소기업 우수제품 해외 집중홍보를 위해 106개사 300개 상품으로 글로벌 스타상품 E-매거진을 발행하여 빅바이어 대상 홍보활동을 전개하였으며, 고비즈코리아 우수회원사 28개사를 선정하여 홍콩메가쇼 해외전시회 대행 참가를 통해 \$500,000 이상 상담 실적을 기록하였다.

4) 온라인수출통합플랫폼 고도화 및 활성화

성공적인 국정과제 이행(국정과제40-4 중소기업 수출역량강화)을 위해 17년부터 3개년에 걸쳐, 고비즈코리아의 고도화 및 활성화를 진행하였다. 결제, 배송, 통관 등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온라인수출통합플랫폼을 구축하였고, 24시간 인콰이어리 자동응대, 모바일 웹페이지 개발 등 기능고도화 및 상품별, 카테고리별 검색엔진마케팅 등을 통해 바이어 유입확대로 이어지는 활성화를 진행하

였다. 이처럼 온라인 수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과 국내 제품의 소싱을 원하는 해외바이어 간의 플랫폼을 제공하여 온라인 수출을 희망하는 국내 중소기업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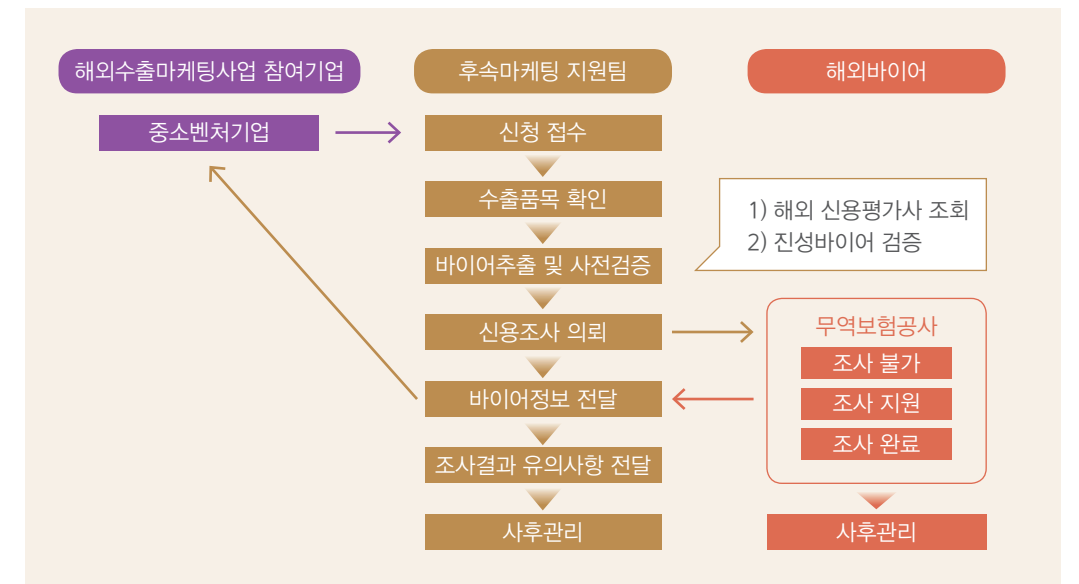
〈2019년 온라인수출통합플랫폼 지원실적〉

세부사업명	실적(건 수)	수출실적(US천 불)
온라인수출관패키지	807	20,169
검색엔진마케팅	50	2,291
외국어홈페이지 제작	100	594
온라인구매오피사후관리	17,099	30,008
합계	18,056	53,062

5) 후속마케팅 지원사업

후속마케팅 지원사업은 해외바이어의 유효한 구매오피를 적극 발굴하여 최적의 국내기업을 알선하고, 해외 바이어의 국내 업체방문 시 무역상담지원, 수출계약 대행 등을 통해 국내 중소기업의 수출성사율을 제고하는 사업이다.

〈해외바이어 알선지원 추진 절차〉



후속마케팅 지원사업은 2010년부터 시작된 사업으로서, 2019년에는 총 791개사를 대상으로 2,038건의 해외바이어 알선, 136건의 방한바이어 지원서비스를 통해 58,864천 불의 수출성과를 거두었다.

〈후속마케팅지원사업 지원실적〉

(단위 : US천 불)

서비스명	지원건수	계약·수출실적
해외바이어알선(BMS)	2,038건	52,388
방한바이어지원(VAP)	136건	6,476

[전자상거래수출 시장진출지원 (B2C 중심 지원)]

전자상거래수출 시장진출지원은 단계별 지원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온라인수출 기업을 육성하고, 온라인전시회, 한국형 왕홍 만들기, 공동물류 등 온라인인프라 구축사업을 통해 중소벤처기업의 해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온라인수출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여 7,368개사 중소벤처기업이 190,659천 불의 수출실적을 기록하였다.

성장단계별 온라인수출기업화 지원 [①간접수출 → ②직접수출 → ③글로벌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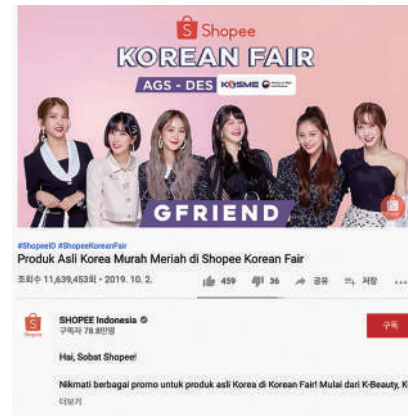
1) 온라인쇼핑몰 판매대행사업(간접수출)

해외 온라인쇼핑몰(B2C) 판매대행 사업은 아마존, 쿠팡 등 세계 유명 글로벌 플랫폼(쇼핑몰)에 B2C(소비재) 위주의 중소벤처기업제품 진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외국어 인력과 인프라의 부족으로 글로벌 쇼핑몰 진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온라인수출 전문기업이 쇼핑몰 입점부터 판매, 배송까지 일괄 지원한다.

2019년에는 한류마케팅을 활용하여 한류강세국(동남아, 중국, 북미, 일본)의 대표 온라인쇼핑몰을 집중 지원하였으며, 그 중에서도 알리바바그룹 티몰(Tmall)과 업무협약을 통해 국내 최초 중소벤처기업 정품브랜드관('I'M STARTICE)을 오픈하였고, 동남아 1위 온라인쇼핑몰인 쇼피(Shopee)에는 K-POP 걸그룹 '여자친구'를 활용한 한류 공동마케팅을 추진해 국내 중소벤처기업상품의 인지도를 제고하였다.



알리바바 티몰 한국관



쇼피의 한류 활용 홍보마케팅(K-CON, 특별관 등)



2) 온라인수출기업화사업(직접수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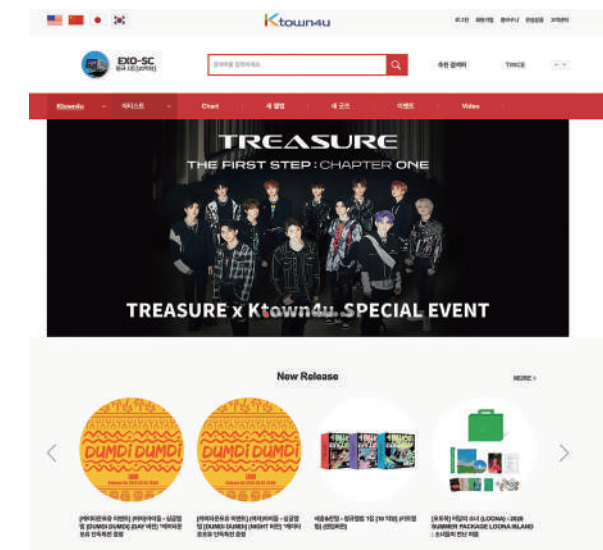
온라인수출기업화 사업은 유망한 내수 중소벤처기업을 발굴하여 글로벌 온라인쇼핑몰(B2C)에 판매계정 개설, 테스트마케팅 및 판매실습을 지원하여 온라인수출기업으로 양성하는 사업이다. 이는 기존 전문셀러를 통한 판매대행에서 한단계 더 나아가 중소벤처기업 스스로가 전자상거래를 활용한 실전교육, 실습방식으로 지원하여 자생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2019년 신규로 시작된 본사업은 이베이, 쇼피 등 대표적인 글로벌 전자상거래 플랫폼사와 공동지원 협약체결을 통해 플랫폼별 판매계정을 개설하여 자체 상품페이지 제작, 개별 마케팅을 실행하고, ebay, G-Market Global, Shopee, Qoo10 등 오픈마켓의 다양한 해외소비자 대상 시장성 테스트를 실시하였으며, 전담인력의 판매실습 컨설팅을 통해 1천 불 이상 첫수출 성공기업 1,173개사를 양성하였다.

3) 자사쇼핑몰 육성사업(글로벌화)

자사쇼핑몰 육성사업은 중소벤처기업의 자사쇼핑몰(업종·테마별 전문몰)이 해외 경쟁력이 있는 쇼핑몰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자사 쇼핑몰 신규 구축 뿐만 아니라 번역, 검색엔진 및 SNS 마케팅, 광고 등 홍보마케팅을 지원한다. 2019년에는 스타일난다와 같은 성공사례 확산을 위해 유망기업 70개사를 선발하여 글로벌 자사쇼핑몰 구축 및 홍보마케팅을 지원하였다.

[성공사례] 아이돌 굿즈와 한류 음반 등을 수출하는 ㈜에이치엠인터내셔널(대표이사 송효민)은 동 사업으로 K-pop 온라인몰 리뉴얼, 페이스북, 유튜브 등 SNS를 활용한 한류마케팅 지원을 받은 후 세계 240여개 국가로 수출을 확대하고, 수출 실적이 지원 이전 대비 4.9배 증가하는 성과를 거뒀다



(주)에이치엠인터내셔널 자사쇼핑몰

온라인수출 환경 조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

1) 온라인전시회사업

온라인전시회사업은 IT 기술이 접목된 차별화된 콘텐츠를 활용하여 오프라인의 '물리적·시간적·비용적 제약'을 극복한 온라인전시회를 품목·테마별로 연중 상시 개최하고 원격·오프라인 수출상담과 연계하여 수출을 촉진하는 사업이다. 2019년에는 제품의 특성 및 마케팅에 따라 다양한 형태(3D, 스토리텔링)의 홍보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였으며, 중소벤처기업 100개사에 대해 품목별 테마전시회를 상시 개최하여 총 9,358천 불의 수출 성과를 거두었다.

2) 한국형 왕홍 만들기

한국형 왕홍 만들기사업은 빠르게 급성장하는 중국 소셜 전자상거래 시장 진입을 위해 중국소비자와 직접 소통·판매 가능한 공공기관 최초의 한류 인플루언서 양성 사업이다. 기존 중국 전자상거래 내 수시장 판매전 행사를 위해 '왕홍' 초청 시에는 섭외비용 최대 2억 원, 섭외기간 최소 3개월이 소요되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중진공에서 자체 한국형 '왕홍'을 양성하여 중소벤처기업의 판매 극대화를 지원했다.

2019년 신규로 시작된 본사업은 중국어 능력, 소통 스킬, 판매역량을 갖춘 국내 크리에이터(대한민국 국민)를 오디션을 통해 선발하여 전자상거래 교육, 중진공 e-Biz 방송 스튜디오에서 콘텐츠 실습 후 소셜커머스 실전에 투입하는 양성체계를 구축하였다. 이를 통해 총 30명의 한국형 왕홍이 탄생하였으며, '왕홍'과의 콜라보 판매방송과 단독 Live 판매전을 통해 31억 원의 판매 성과를 기록했다.



e-Biz 방송 스튜디오



'왕홍'과 교육생의 합동판매전



한국형 왕홍 아카데미 수료식

3) 공동물류사업

공동물류사업은 다품종·소량 배송의 전자상거래 수출 특성상 물류비가 중소벤처기업의 수출경쟁력을 좌우하는 가장 큰 요소이므로 '중소벤처기업 전자상거래 전용 국제물류상품' 개발을 통한 최저 표준물류단가 제공 등 물류지원을 통해 중소벤처기업의 가격경쟁력을 강화하는 사업이다.

2018년 시범물류사업의 시사점을 반영하여 추진한 2019년 공동물류사업은 글로벌플랫폼(4개사)과 전자상거래 특화 민간물류사(5개사)의 3자 상생 협업을 통해 물류상품을 개발하였으며, 해당 상품은 물량집적을 통한 규모의 경제효과로 최저 표준 물류단가 제공, 해외 13개국 42개 물류거점(창고) 제공 및 현지 풀필먼트서비스 등 물류지원 서비스, 국가·시존별 글로벌플랫폼 공동프로모션을 포함하고 있다. 이를 통해 1,655개 중소벤처기업이 505만 건의 수출물량을 집적하여 총 578억 원의 물류비를 절감할 수 있었으며, 기획재정부 혁신·협업·시민참여 우선과제 사업으로 선정된 성과를 거두었다.

인력양성

1. 사업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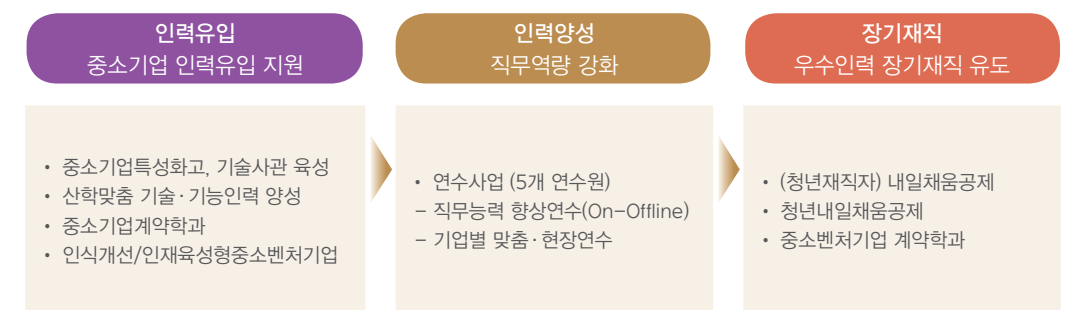
인력양성은 우수인재의 양성·유입을 통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인식개선」, 「인력양성」, 「연수」, 「성과보상공제기금」 총 4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인력양성사업〉

구분	인식개선		인력양성	연수	성과보상공제기금
	중소기업 인식개선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			
사업 목적	구직자 인식개선	우수중소기업 발굴·지정	중소기업 인력유입 촉진	중기 재직자 직무능력향상	우수인력 중소기업 장기재직 유도
주요 내용	대국민홍보, 교육 및 체험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홍보	맞춤형 인력 양성 공급	집합연수 이러닝연수	성과보상금 형태의 공제기금 운영

1982년 중소기업연수원(경기도 안산) 개원을 통해 연수사업으로 시작한 인력양성사업은 2014년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으로 부터 인력양성사업을 이관 받고, 동 시기 성과보상공제기금의 출범을 통해 “인력유입” 부터 “장기재직”에 이르는 “중소기업 인력양성 플랫폼” 구축을 완성하였다.

〈중소벤처기업 인력양성 플랫폼〉



특히 5개 연수원을 거점으로 한 광역별 교육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전국 31개 지역 본·지부와의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 중소기업 접점에서 맞춤형 인력 지원과 현장 인력애로 해소를 지원하고 있으며, 다양한 정책(사업)간 연계지원을 통해 정책사업간 시너지효과를 창출하고 있다.

〈중소기업연수원 현황〉

구분	중소벤처기업연수원	호남연수원	대구경북연수원	부산경남연수원	글로벌리더십연수원
개원	1982	2001	2003	2004	2014
위치	경기 안산시	광주광역시	경북 경산시	경남 창원시	강원 태백시

〈2019년 정책(사업) 연계지원 연수현황〉

과정명	Pre-School	재창업기업 CEO 역량강화
정책(사업)	청년전용창업자금	재창업자금
관련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창업지원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재도약성장처)
교육인원	3,278명	327명

2. 주요 추진실적 및 성과

인식개선분야는 학생, 학부모, 교사 등 38,303명 대상으로 인식개선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였으며, 224개의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홍보 및 채용연계를 지원하였다.

인력양성분야는 중소기업 특성화고, 기술사관육성 및, 산학맞춤 기술·기능인력 양성 사업을 추진하여 총 14,151명(사업기간 : '19.3~'20.2)이 중소기업에 취업하였으며 지역산업과 연계한 20개 중소기업 계약학과를 운영하는 등 중소기업 맞춤형 전문 기술인력을 양성·공급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연수분야는 5개 연수원을 통해 '19년 50,344명, 누적인원 153만 명의 연수인원 달성을 하였으며, 「스마트제조혁신 추진단」의 스마트 공장 보급·확산사업과 연계한 「스마트공장 핵심인력 양성」사업을 추진, 총 11,046명의 핵심인력을 양성하는 등 중소기업의 4차 산업혁명 대비를 지원하기 위한 교육기반을 마련하였다.

성과보상공제기금은 2019년 말 현재 누적기준 371,664명의 공제 가입실적을 달성하였으며, 공(대)기업 및 지자체들과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관련 협업모델을 구축하여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및 지역균형 일자리 창출 효과를 제고하였다.

또한, 내일채움공제 가입자 대상으로 다양한 복지 및 교육서비스 제공을 통해 공제 가입자 만족도를 제고하였으며, 가입창구 다변화와 참여대상 확대 등을 통해 공제 가입확대 저변을 확충하였다.

기업인력애로센터는 '17년 3월 전국 16개 지역본부에 개소하여 '19년까지 누적 18,166개 구인애로 기업 발굴, 7,225명의 일자리 매칭 성과를 달성하였다.

3. 세부사업 추진실적

[연수사업]

1982년 중소기업연수원(안산) 개원을 시작으로 호남연수원(2001년, 광주), 대구경북연수원(2003년, 경산), 부산경남연수원(2004년, 창원), 글로벌리더십연수원(2014년, 태백) 등 5개의 연수원을 개원하여 운영하고 있고, 지난 38년간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국내 중소기업의 산업기술교육을 선도하여 총 153만여 명 대상에게 연수를 실시하였다.

2019년에는 50,344명의 연수를 실시하였으며, 그 중 중소기업연수원(안산) 21,571명, 지방연수원(호남, 대구경북, 부산경남, 글로벌리더십)은 14,497명의 실적을 달성하였다. 스마트공장 제조분야 전문인력(국정과제)을 달성하기 위해 교육과정을 확대 운영하였고 중소기업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해 장비를 활용한 실험·실습 중심의 기술연수를 강화하였다. 또한, 현장의 기술애로 해결을 위한 기업현장 문제해결 맞춤형 연수를 실시하였으며, 온라인 기술과정을 확대하여 인력부족으로 연수참여가 어려운 중소기업의 교육접근성을 제고하였다.

〈2019년 연수실적〉

(단위 : 명, %)

과정	'18년 실적	'19년		
		계획(A)	실적(B)	달성률(B/A)
직무역량향상연수	22,695	19,166	21,045	109.8%
정책연수	13,373	9,419	11,643	123.6%
원격연수	13,160	11,000	17,656	160.5%
계	49,228	39,585	50,344	127.2%
맞춤연수*	496개사	-	467개사	-
	3,288명	-	3,194명	-

* 2014년부터 맞춤형연수는 업체수로 실적 산정

중소벤처기업의 4차산업혁명 대비 지원을 위해 수도권중심의 스마트공장배움터를 전국으로 확대하여 중소기업연수원(안산)에서 1개소, 영·호남 지역에 2개소 구축하여 총 3개소의 스마트공장배움터를 확보하였다.

중소벤처기업연수원(안산) 및 지방연수원 실무담당자로 구성된 “HRD지원협의회”를 정기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고객의 목소리를 수집·공유하고, 연수사업 전반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교육서비스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사업에 반영하고 있다.

아울러, 직무역량향상연수 전 과정을 대상으로 학습자의 지식획득 정도와 현장실무 적용도를 파악하기 위한 “학습성취도 조사”를 실시하고 과정내용 개선에 활용하는 등 더욱 내실있는 교육에 노력하고 있다.

[충청연수원 건립]

2008년 12월 제3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지역경제 활성화대책 일환으로 추진된 사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의 지방 권역별 맞춤형 인력양성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광주·전남(2001년, 광주), 대구·경북(2003년, 경산), 부산·경남(2004년, 진해), 강원(2014년, 태백)에 이어 첨단산업 기반으로 성장성이 높은 충청권 중소벤처기업의 창업활성화 및 권역별 중기재직자 직무교육 네트워크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충청연수원건립 사업은 총사업비 358억 원으로서 '18년도에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20년말 완공을 목표로 건립공사가 진행 중이다.

〈충청연수원 건립개요〉

구분	건립개요
건립소재지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남산리
사업기간	2017년 ~ 2020년
총사업비	358억 원
건립규모	지하1층~지상4층 (부지면적 24,587㎡, 건축연면적 11,858㎡)

특히 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스마트 교육과 창업을 융합한 스마트 창업 연수원으로 특화하여 스마트공장 전문가 양성을 추진할 예정이며, 충청권 첨단산업 분야와 연계된 차별화된 연수과정 운영 등으로 지방중소벤처기업 경쟁력강화에도 기여할 예정이다.

〈주요시설 및 조감도〉

구분	연면적	주요시설
지하 1층	1,585㎡	실내체육관, 기계실 등
지하 1층 지상 4층	10,234㎡	스마트공장 배움터, 청년창업지원시설, 강의실(7실), 세미나실(3실), 강당, 사무실, 기숙사(61실, 113인), 식당(100인), 실내체육관, 주차장(122대, 지하42대 포함) 등
기타	39㎡	운동장, 산책로 등
합계	11,858㎡	



[중소기업 인식개선]

중소기업 인식개선 사업은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 및 국민을 대상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긍정적으로 전환, 중소기업 취업의사를 제고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중소기업에 우수인력이 유입되도록 하기 위한 사업이다.

2019년도 한해 중학생, 특성화고 학생 및 학부모 등 377개교 38,303명에게 '중처기업 바로알기' 교육제공 및 지역 우수중소기업 탐방 기회를 제공하였다.

대상별로 자유학기제 운영 중학교 307개교 15,921명에게 중소벤처기업 체험 및 중소기업 바로알기 교육을 실시하였고, 특성화고에 찾아가 지역 우수중소기업에 취업한 선배와 함께하는 토크콘서트를 50회 개최하였으며, 특성화고 자녀를 둔 학부모 397명을 학교에 초청, 중소기업 바로알기 교육 및 진로설계 코칭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사업 추진 결과 '중소기업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향상되는 효과가 나타났다. 중소기업을 긍정적으로 인식한 학생의 비율이 참여 전 대비 31%p 증가(42% → 73%)하였으며 중소기업 취업 의향 12%p(57% → 69%) 이 증가하는 성과가 나타났다.

중소벤처기업 취업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제2회 중소벤처기업인식개선공모전>을 개최하였다. '알자 알자 중소벤처기업!' 라는 슬로건으로 운영되었으며 UCC, 수기 등 78건의 인식개선 콘텐츠가 접수되었고, 전문가 심사를 및 인식개선페스티벌(8.8, 구로아트밸리예술극장) 공개심사를 통해 14팀을 선정, 시상하였다. 선정된 UCC 작품을 유튜브, 페이스북 등 SNS에 게시하여 10,810회 조회수를 기록하였다.

특히 페스티벌에서, 중소기업 인식개선을 주제로 이상직 이사장을 비롯한 명사초청 특강(4회)을 실시하고 강연콘텐츠를 소상공인 뉴스 보도 3회, 강연 특별을 2회에 걸쳐 방송하였으며, 우수 콘텐츠를 온·오프라인 홍보를 통해 대국민 중소기업 긍정인식 확산에 기여하였다.

〈제2회 중소벤처기업인식개선공모전〉



인식개선 공모전

강연 : 이상직 이사장

[사업주-근로자 성과공유 확산]

국정과제41, 관련, 대-중소벤처기업 임금격차를 축소하여 좋은 일자리 창출 및 우수인력 유입 촉진을 위해 <사업주-근로자간 성과공유 확산 사업>을 추진하였다.

<국정과제 41. 대중소벤처기업 임금격차 축소 등을 통한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 ▶ (과제목표) 성과공유 확산 등으로 대중소벤처기업 임금격차 완화
- ▶ (주요내용) '17년부터 기업 성장 후 주식·이익 일부를 근로자와 공유하도록 사전 약정하는 미래성과공유제 도입
 - 확산 캠페인, 도입기업 우대 등을 통해 '22년 10만개사 달성
- ▶ (기대효과) 미래성과공유제 확산 등으로 중소기업의 대기업 대비 임금격차 축소

사업기반 구축을 위해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및 '시행령'을 개정하여 성과공유기업의 정의, 성과공유 유형, 지원근거 등을 규정하였다.

성과공유기업 확산을 위해 국내최초로 사업주-근로자간 미래성과공유 협약서 등록시스템 및 성과공유 도입증빙자료 제출 창구인 성과공유기업 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18.1)하였다. 또한 성과공유기업 확인기준 등을 규정한 고시를 제정('18.9.13)하고, 성과공유기업 확인서 발급 시스템을 구축('18.12)하여 본격적인 성과공유기업 인증제를 위한 기반을 구축하였다.

성과공유기업 유인을 위한 인센티브를 마련하였는데, 먼저 중소기업 지원사업 평가 시 성과공유 도입 등 일자리 양·질 우수기업을 우대하는 일자리평에 가점을 부여하여 일자리 우수기업이 중소기업 지원사업에서 우대 선정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사업담당자들의 일자리평가 점수 확인을 위한 전용시스템을 개발하고 67개 중소벤처기업 지원기관 담당자 대상 설명회를 개최 하는 등 일자리 우수기업을 우대하는데 노력하였다.

성과공유협약 체결기업 대상으로 63억 원 규모의 정책자금(일자리창출촉진자금)을 지원하였다. 그 외에 병역특례기업 지정 평가지표 우대 적용(3,120개사),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 평가 우대(762개사) 등 인센티브 제도마련을 통해 성과공유 협약 및 도입을 유도하였다.

성과공유제 도입 확산을 위해 성과공유제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유튜브에 게시하고 페이스북 이벤트, 유관기관 배너 게재 등을 통해 영상 라인 조회 수 49,325회를 기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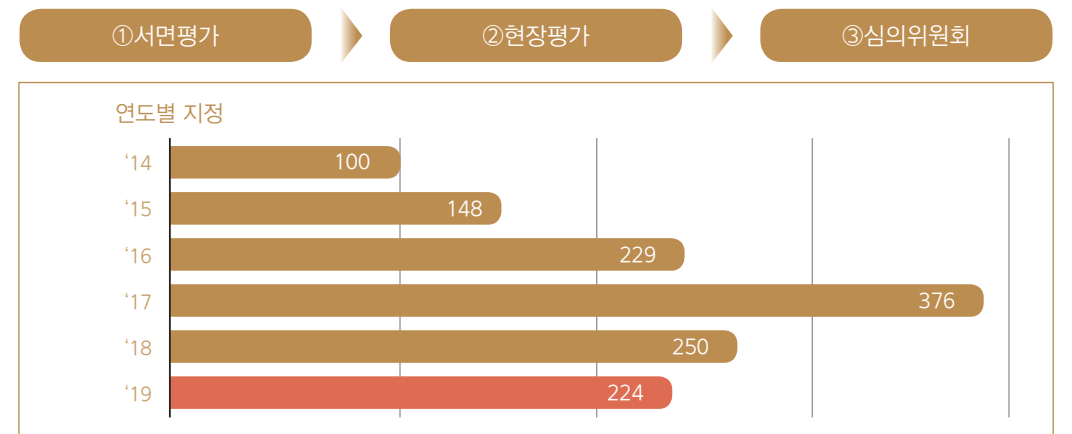
성과공유제를 선도적으로 도입한 기업으로서 '존경받는 기업인(10명)'을 선정하고 성과공유 우수 사례를 KBS 1TV <사장님이美쳤어요(7편)>를 통해 방영하였다. 그 결과 평균시청률 4.7% 기록,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서 방송 종과 후 대부분 1위 또는 상위 톱10에 랭크되었다. 중소기업에 인재를 양성하는 분위기를 조성, 중소기업 일자리 질 개선을 위해 인재육성형중소기업을 2014년부터 매년 지정 및 지원해오고 있다.

성과공유기업이란?
성과공유 유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근로자와 성과를 공유하고 있거나 공유하기로 약정한 중소기업 [중소기업 인력지원특별법 제27조의2 1항]을 말한다.



인재육성형중소기업 지정

인재육성형중소기업이란 '인력지원특별법 제2조 5항'에 의거 '기술능력, 연구개발 역량 등 전문적 지식과 기능을 지닌 우수인력을 채용하거나 교육훈련 투자 등을 통하여 인재를 모범적으로 육성하는 중소기업'을 말한다. 매년 하반기에 사업공고 후 신청기업에 대해 ①서면평가, ②현장평가, ③심의위원회를 통해 지정하고 있으며, 2019년도 224개사 지정, 2014년부터 2019년까지 누적 1,237개사를 지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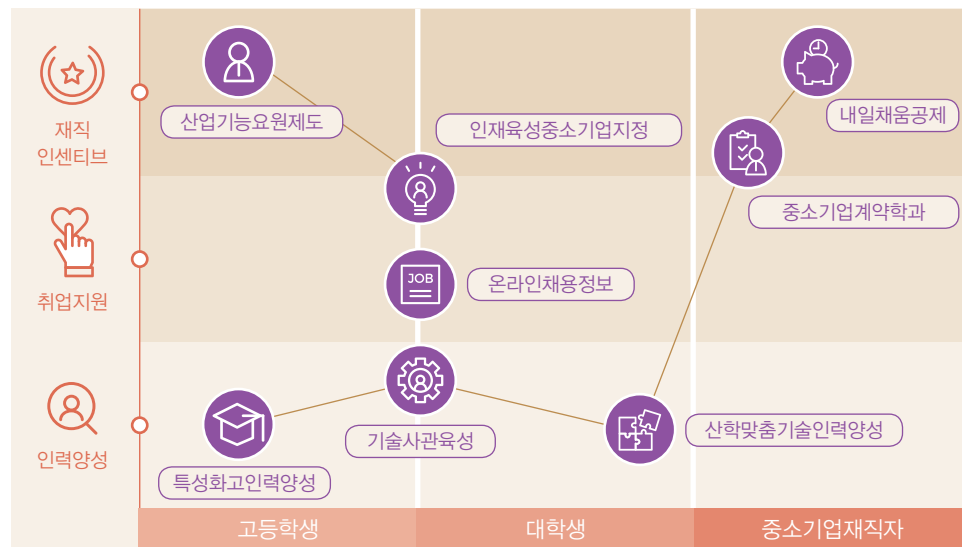
지정기업 대상으로 지정서 및 현판을 3년간 제공하고, 인재육성형중소기업 전용자금 신청자격 부여, 병역지정업체 선정평가 가점, 연수비용 50%할인 등의 혜택을 지속적으로 지원하였다. 또한 지정기업에 대해서 우수사례집(16개사 수록)을 발간하여 특성화고, 대학교 등 1,491개 학교 및 기관에 2,376부 배포하였고, 카드뉴스 제작(15개), 기업홍보 동영상 제작(15개) 등 홍보 콘텐츠를 인재육성형중소기업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홍보하였다. 또한 취업포털사이트 'Job Korea'에 '인재육성형중소기업 전용채용관'을 개설, 111개 기업의 일자리 정보를 구직자들에게 제공하여 구직-구인간 정보 미스매치 해소에 기여하였다.

향후에도 성과공유기업, 인재육성형중소기업, 존경받는 기업을 모두 '사람중심' 기업으로 지정하여 중소기업 전반에 사람중심 경영을 기반으로 혁신성장이 일어날 수 있도록 단계별 지원정책을 강화할 계획이다.

[인력양성사업]

중소기업인력양성사업은 산학연계를 통한 중소기업 맞춤형 현장중심 직업교육 지원과 특성화고·대학의 우수 기능·기술 인력을 양성하여 중소기업 취업연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또한, 선취업 후진학 기반 구축을 통한 일학습 병행 문화 확산 및 중소기업에 적합한 우수인재 유입 양성·장기재직을 유도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중소기업 인력지원 체계도〉



인력양성사업은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기술사관 육성사업, 대학연계 중소기업 인력양성사업, 중소기업 계약학과사업 등 총 4개 사업으로 구분되며, 공공기관 기능조정에 따라 2015년 4월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으로부터 이관된 사업이다.

사업이관을 통해서 중진공 인력지원사업 목표인 「중소기업 인력양성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 중진공 사업간 유기적 연계로 채용부터 장기재직 유도, 기업의 역량강화까지 중소기업 인력지원 체계의 틀을 마련하였다.

〈이관 전·후 주요 개선 실적〉

구분	이관 전	이관 후
사업 활성화	주관부서중심의 업무수행	중진공화를 통한 시너지 창출 - 적극적인 제도개선 등을 통한 능동적 사업 추진 - 지역거점 활용한 사업 연계 및 확대
사업 내실화	4개 인력양성사업 개별수행 - 사업별 방식, 매뉴얼 등 제각각	사업효율성을 위한 통합 관리 - 인력양성사업 발전방안 연구 추진 - 체계적인 사업 DB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 개발

2019년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은 199개교의 특성화고를 지원하여 3학년 취업대상자 중 12,734명을 중소기업에 취업시켜 중소기업 취업률 30.5%를 달성하였으며, 핵심 프로그램인 취업(산학)맞춤반 과정에 8,469명이 참여하여 5,828명(68.8%)을 협약기업으로 취업연계 하였다.

〈2019년도 사업별 주요 추진실적〉

구분	추진실적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	• 전국 199개 특성화고(3학년 취업대상자 수 41,656명)에 중소기업 맞춤형 인재 양성을 위한 교수학습자료 개발, 프로젝트 수업, 진로지도 및 연수에 소요되는 사업비 평균 1.4억 내외 지원
기술사관 육성사업	• 12개 사업단(1,519명)에 교육프로그램 운영비 등 2,675백만 원 지원 및 관리
대학연계 중소기업 인력양성사업	• 22개 대학(1,747명)에 중소기업 수요에 부응하는 인력양성 공급을 위해 5,534백만 원 지원
중소기업 계약학과	• 49개 대학, 68개 계약학과의 재직자 및 채용예정자에게 학과 운영비 및 등록금 지원(1,868명, 10,554백만 원 지원) 및 관리 • 4차 산업 분야 5개 학과, 소재·부품·장비 분야 4개 학과 등 총 9개 학과 신설

[창업성공패키지]

창업성공패키지(청년창업사관학교)는 청년창업사관학교를 통해 청년층의 기술창업 촉진 및 청년 일자리 창출 등 정부 정책 기조에 부응하기 위해 2011년 경기도 안산에서 개교하였으며, 혁신 창업자 육성 강화를 위해 2017년도에 창업 준비부터 사업화 성장까지 쉰 단계 패키지지원 방식으로 지원범위를 확대·개편하여 현재까지 운영 중이다.

〈표1〉 창업성공패키지 사업 지원체계

단계별	창업준비	창업실행	성장단계	안정화단계
주요내용	교육 및 사업계획검증	사업화 지원	후속연계지원	사후관리
창업성공패키지(프리스쿨 → 청년창업사관학교 → 5년간 후속 연계지원)				

창업성공패키지의 창업준비 단계는 청년창업사관학교 입교를 희망하는 (예비)창업자 대상으로 창업 아이디어 구체화 등의 교육(프리스쿨)을 지원하고 있다. 프리스쿨은 창업 사업화 기간에 발생하는 시행착오를 최소화하여 사업화 성공률 제고를 위한 창업역량 강화 교육 지원이다.

〈표2〉 창업성공패키지 프리스쿨 주요 교육내용



창업실행 단계에서는 청년창업사관학교에 입교한 창업자에게 창업 공간, 교육 및 코칭, 기술지원(제품설계, 시제품 제작), 사업화 비용까지 one-stop 일괄지원하여 창업 사업화를 지원하고 있다.



2018년에는 지역창업 활성화를 위해 기존 5개 청년창업사관학교를 12개 추가 신규 개소하여 총 17개 청년창업사관학교 인프라를 확보하였으며, 민간의 혁신역량을 활용한 민간 공공협력체계를 도입한데 이어, 2019년에는 우수한 민간운영사 발굴을 위하여 선정방식을 공모방식으로 전환하였고 민간운영사 성과평가체계를 고도화 하였다.

* 4차 산업혁명 분야
선발인원 : ('18년) 328명
→ ('19년) 504명

* 제조융복합 분야
선발비중 : ('18년) 60.1%
→ ('19년) 71.2%

* 정책자금 432건(536억 원),
수출마케팅 257개사,
인력지원(내일채움공제 등)
184개사 지원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제조융복합 등 기술보유 창업자의 청년창업사관학교 유입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창업 네트워크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제조융복합 분야의 성장 가능성이 높은 청년창업자 선발을 확대하여 제2벤처 붐 확산에 기여하였다.

창업성장 단계는 청년창업사관학교를 우수 졸업기업에 대해 정책자금, 수출마케팅, 인력지원 등을 연계 지원하는 후속연계지원을 통해 졸업기업의 데스밸리 극복과 혁신성장을 지원하였다.

또한, 청년CEO의 네트워크 강화 및 신사업 융합 기회 제공을 위해 2018년에 청년창업사관학교 총동문회를 (2,878명) 결성하였으며, 2019년에는 지역동문회(전국 12개 지역) 구축을 통해 청년CEO 간 네트워크를 전국으로 확대하여 자발적 상생협력 등 역동적인 창업생태계 기반을 조성 하였다.

청년창업사관학교는 2011년 개교 이래 지난 9년간 기술 및 사업화 지원을 통하여 총 3,815명의 청년CEO를 양성하고, 매출액 32,412억 원, 일자리창출 10,312명, 지식재산권 등록 10,163건의 지원성과를 거두는 등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청년창업지원 사업으로 자리매김하였다.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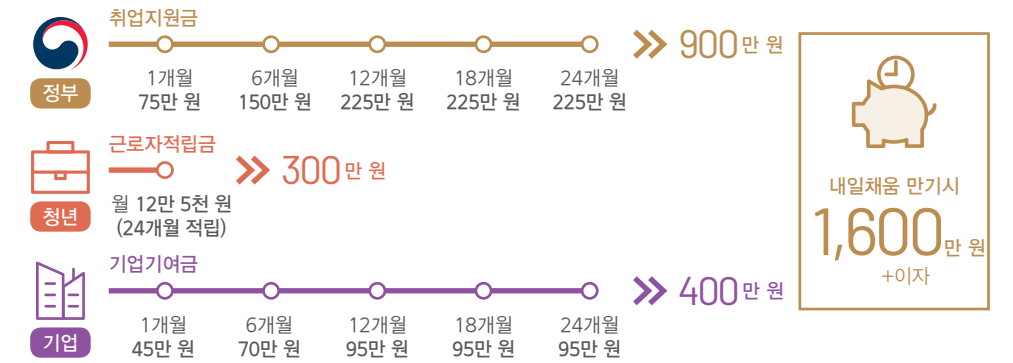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은 우수인력의 중소기업 취업기피 및 잦은 이직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생산성 저하를 해소하기 위해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 근거하여 2014년도 8월에 출범하였다. 동 기금은 핵심인력 성과보상공제사업(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2년형/3년형)), 핵심인력의 직무역량 강화 및 전수를 위한 교육사업, 핵심인력에 대한 복지사업 등을 주목적으로 한다.

내일채움공제는 중소벤처기업 사업주와 근로자가 5년간 매월 일정 금액을 공동으로 적립하고 근로자가 만기까지 재직 시 공동 적립한 공제금에 복리이자를 더하여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2016년에는 내일채움공제와 고용노동부 ‘청년취업인턴제’를 연계한 신규사업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신설하여 청년취업에서 장기재직까지의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2년간 미취업청년과 사업주, 정부가 각각 300만 원, 400만 원, 900만 원을 적립하여 만기 재직 시 근로자에게 1,600만 원에 복리이자를 더하여 지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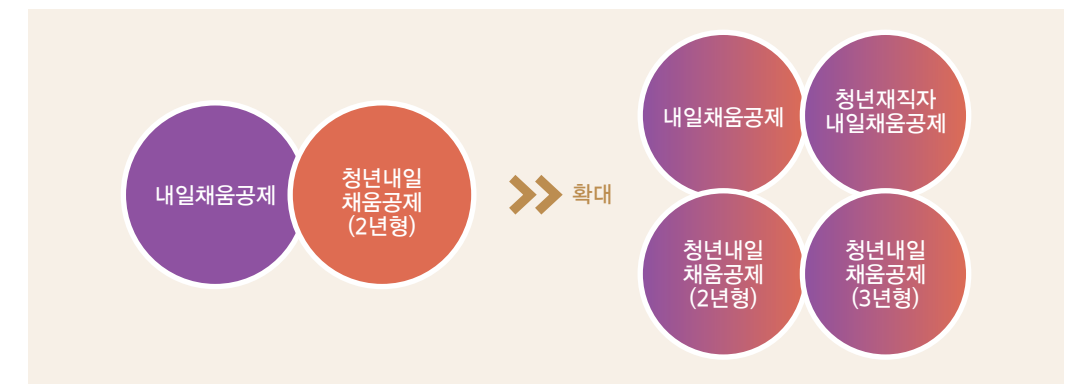
〈청년내일채움공제 2년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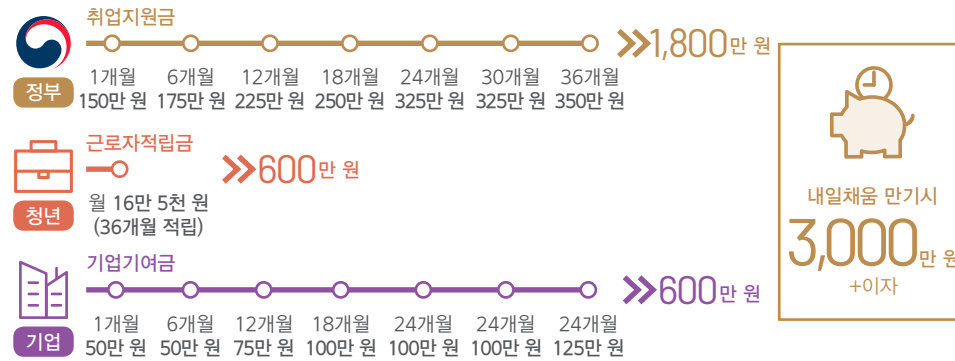
- 가입대상 : 중소(중견)기업 + 핵심인력
- (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 중소(중견)기업으로 상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기업
- (청년) 만 15세~34세 이하의 미취업 청년으로 중소(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
- 가입기간 : 2년
- 공제만기 후 내일채움공제 연계가입(3년형, 4년형, 5년형) 가능
- 가입금액 : 2년간 총 1,600만 원 적립
- 청년 300만 원, 기업 400만 원, 정부 900만 원 정액 납부
- 공제금리 : 연 복리이자(분기단위 변동금리)

2018년에는 청년일자리대책 및 현장수요를 반영하여 공제사업을 기존 2개에서 4개로 확대하고 재직청년 대상 신규 사업이 출범하였다.

〈2018년 공제사업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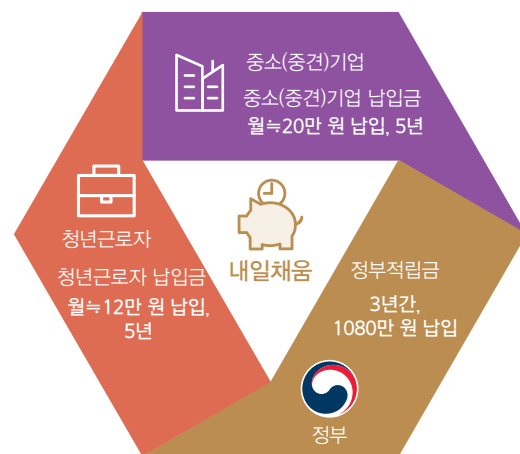


〈청년내일채움공제 3년형〉



- 가입대상 : 중소기업 + 핵심인력
 - (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 중소기업으로 상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기업
 - (청년) 만 15세~34세 이하의 미취업 청년으로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
- 가입기간 : 3년
 - 공제만기 후 내일채움공제로 연계가입 (3년형, 4년형, 5년형) 가능
- 가입금액 : 3년간 총 3,000만 원 적립
 - 청년 600만 원, 기업 600만 원, 정부 1,800만 원 정액 납부
- 공제금리 : 연 복리이자(분기단위 변동금리)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 가입대상 : 중소기업 + 청년근로자
 -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지원특별법 3조 지원업종 영위업체 당해 중소기업에서 정규직으로 6개월 이상 재직하고 있는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근로자
- 가입기간 : 5년
 공제 만기 후 내일채움공제 연계가입 가능
- 가입금액 : 5년간 최소 3,000만 원 이상
 청년근로자 월 12만 원 이상, 기업 월 20만 원 이상, 정부 월 평균 30만 원(3년간 1,080만 원)
- 공제금리 : 연 복리이자(분기단위 변동금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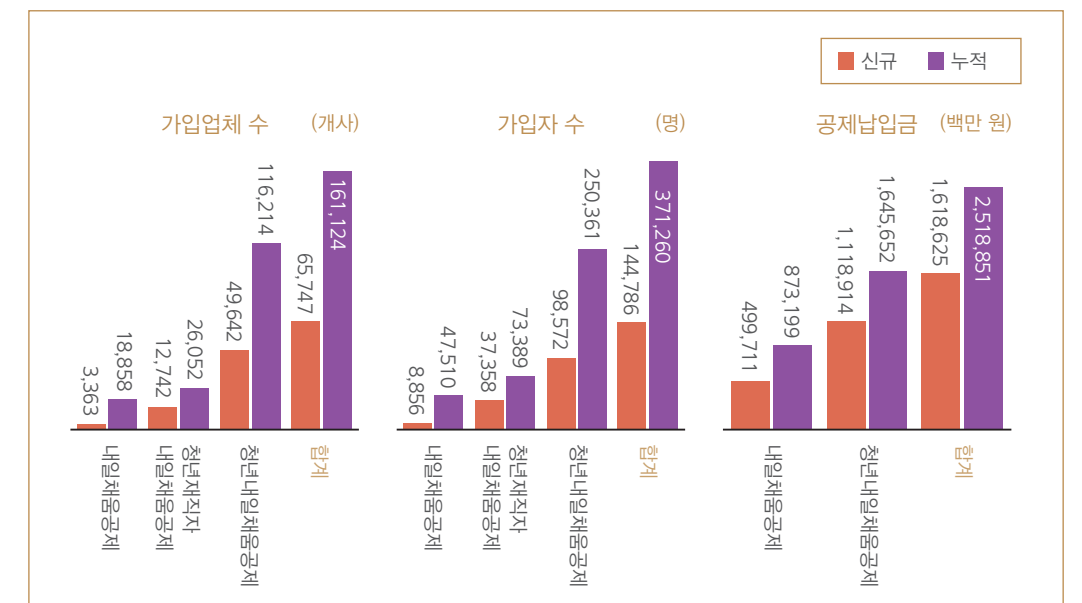
5년 만기 근속 시

청년근로자 납입금 + 중소기업 납입금 + 정부적립금

출범 후 2019년 말까지 성과보상공제(4개 사업)에 161,182개사 371,664명(누적 기준)이 가입하는 실적을 달성하였다.

〈2019년 공제가입실적〉

구분	가입업체 수(개사)		가입자 수(명)		공제납입금(백만 원)	
	신규	누적	신규	누적	신규	누적
내일채움공제	일반	3,363	18,858	8,856	47,510	
	청년재직자	12,742	26,052	37,358	73,389	499,711
	소계	16,105	44,910	46,214	120,899	
청년내일채움공제	49,642	116,214	98,572	250,361	1,118,914	1,645,652
합계	65,747	161,124	144,786	371,260	1,618,625	2,518,851



한편, 공(대)기업, 지자체들과 내일채움공제와 관련된 협업모델을 구축하여 대·중소벤처기업 동반 성장 및 지역균형 일자리 창출 시너지 효과를 제고하였다. 2019년도에 김해시 55명, 포항시 45명, 익산시 43명, 한국항공우주산업 52명, 부산항만공사 17명 등 공(대)기업 12곳과 지자체 8곳이 협력사 및 관내 중소벤처기업의 공제 납입금 일부를 지원하여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2019년 공기업·지자체와 내일채움공제 간 연계 협업 실적(누적)〉

구분	협력사 업체수	지원 인원수	지원액(백만 원)	
공(대)기업	한국남동발전	73	188	1,128
	한국서부발전	54	165	1,050
	한국가스공사	11	38	228
	한국전력공사	18	50	658
	CJ제일제당	29	53	382
	한국토지주택공사	11	36	216
	한국동서발전	15	36	216
	한국수력원자력	21	72	432
	한국수자원공사	8	12	72
	한국중부발전	23	28	168
	한국남부발전	28	70	420
	인천항만공사	29	208	1,248
	한국항공우주산업('19)	12	55	198
	부산항만공사('19)	10	23	138
	한국가스기술공사('19)	2	2	12
지자체	강원도	219	881	8,556
	대전시	270	594	5,346
	울산시	116	211	506
	충북도	446	638	3,828
	계룡시	12	29	209
	제주도	451	860	9,016
	산청군	22	45	54
	부천시	77	144	604
	김해시('19)	6	15	108
	포항시('19)	27	64	92
	익산시('19)	14	43	123
	계	2,004	4,560	35,008

아울러, 내일채움공제 가입자 대상으로 다양한 복지 및 교육 서비스 제공을 통해 상품 매력도를 향상시켰다. 복지 부분은 공제계약대출을 확대하고, 공제가입 후 25개월 이상 가입 유지 중인 가입자 대상으로 단체상해 보험 가입을 확대 지원하였다. 또한 교육 부분에서는 공제 가입자 대상 온라인 이러닝연수교육을 확대 실시하였으며, 가입자 가족 참여 힐링캠프를 농어촌공사와 협력운영하여 공제 가입자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내일채움공제 가입창구를 금융기관으로 확대(기업은행 609개, 신한은행 753개, 우리은행 874개 영업점)하여 접근성을 개선하였으며, 위탁판매 금융기관을 확대하여 공제가입에 대한 편의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참여자격 심사시 고용보험 가입이력 요건을 완화하고 임금 상한액을 신설하는 등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정책수요자 선발을 위해 노력하였다.

중진공은 앞으로도 내일채움공제 가입을 위한 저변 확대와 고객만족 향상을 위한 노력으로 청년의 중소벤처 기업 유입, 핵심인력으로 양성 및 장기재직을 촉진하여 중소벤처기업 인력난 해소 및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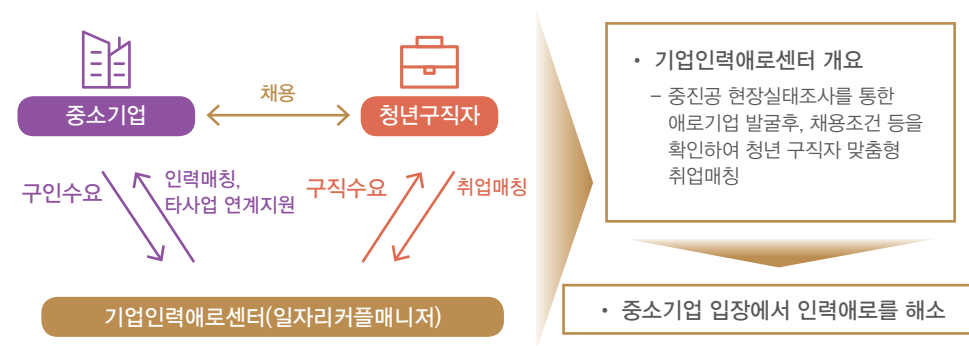
중진공-부산항만공사



가입자 가족 참여 힐링캠프

[기업인력애로센터]

기업인력애로센터는 중소기업 입장에서 인력애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One-Stop지원체제로 중소기업진흥공단이 현장 실태조사를 통해 구인애로 기업을 발굴하고, 채용조건 등을 확인하여 특성화고, 전문대, 직업전문학교 졸업생, 청년장병 등의 구직자와 맞춤형 취업매칭을 진행한다. 동 사업은 '17년 시범사업으로 시작하여 전국 16개 기업인력애로센터가 개소되었으며, 상시적으로 중소기업 구인수요 접수에 대응하여 실시간 일자리 매칭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19년도는 구인애로 중소기업을 8,513개사 발굴하여 3,520명의 취업매칭 실적을 달성하였다. '20년부터는 청년(장병) 구직대상자 중 청년장병 대상을 대체복무자(산업기능요원 희망자, 해경·의경)까지 확대하였으며, 우수 중소기업 발굴과 검증된 구직인력 공급을 통하여 청년 실업문제 및 중소기업 인력부족 현상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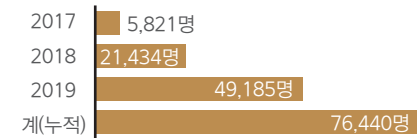
〈중소벤처기업 구인수요 발굴 및 취업매칭 실적〉

구분	구인기업	구인인원	구직인원	취업매칭
2017년	1,430개사	5,821명	1,327명	1,048명
2018년	8,223개사	21,434명	14,082명	2,657명
2019년	8,513개사	49,185명	33,462명	3,520명
계(누적)	18,166개사	76,440명	48,871명	7,225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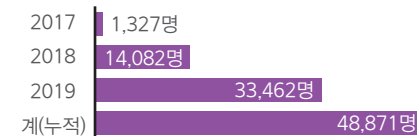
구인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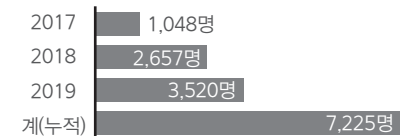
구인인원



구직인원



취업매칭



기술지원 및 현장애로 해결

1. 사업개요

중소기업 컨설팅지원사업은 중소기업의 경제·정책환경 변화에 대응 할수 있도록 컨설팅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 및 근본체질 강화에 목적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전문인력 부족으로 자체 개선활동 추진에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전문가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풀을 확보하고 있으며 컨설팅 과제 선정 및 수행계획 평가, 사업추진 점검 등 단계별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지원내용은 특화형, 규제대응, 정보보안 등 3개 분야이며 소요금액의 90% 이내에서 최대 15백만 원까지 과제 규모에 따라 컨설팅 비용을 지원한다. 신청기업 선정평가와 컨설팅 수행계획 평가를 거쳐 대상기업을 최종 선정하고 있으며 2019년도 지원규모는 60억 원이다.

중소기업 기술사업화 역량강화사업은 사업화가 되지 않은 기술 및 특허를 보유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진단을 통한 사업화 기획, 시장검증 및 기능개선(R&D) 등 추가적으로 지원하여 사업화 성공률 제고를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019년에는 공모접수와 함께 정부부처 공공기관의 R&D 사업 성공판정 이후 사업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기업을 추천 받아 지원하였으며,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의 협업을 통해 맞춤형 사업화 지원체계를 구축하였다. 중소기업의 기술사업화 성공률과 지원 효과성을 향상하기 위해 2019년에는 사업화기술역량을 보유 기업에 대한 중점적 지원(지원대상 명확화, 사업화 성공 가능성 평가항목 신설 등), 온라인 접수 등을 추진하였다.

레저장비산업개발지원사업은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확보와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해 고부가가치 자전거·해양 레저장비 분야의 기술개발과 맞춤형사업화 부문을 지원하고 있다.

동 사업은 경륜·경정법 및 산업발전법에 의거, 자전거 및 모터보트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관련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있어, 지원 차별성을 확보하고 있다.

“기술개발” 부문은 품질 경쟁력 확보 등의 기술개발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과제이며, “맞춤형사업화” 부문은 기술개발 성공 후 사업화 되지 않은 기술에 대하여 시제품 제작, 인증, 마케팅 등을 맞춤 지원하는 과제이다.

〈'19년 사업 규모 및 지원 내용〉

'19년 예산		2,066백만 원
기술 개발	지원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전거산업 분야 : 2년 이내 해양레저장비산업 분야 : 2년 이내
	지원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전거산업 분야 : 연 2억 원 이내(과제당 총 3억 원 이내) 해양레저장비산업 분야 : 연 2억 원 이내(과제당 총 3억 원 이내)
	지원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총 개발사업비의 75% 이내(일괄협약 후 연차별 지급)
맞춤형 사업화	지원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당해년도
	지원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화지원 5,000만 원 사업화 코칭 300만 원
	지원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화지원 75%, 사업화 코칭 100%

2. 주요 추진실적 및 성과

2019년 중소벤처기업 컨설팅지원사업은 변호사, 변리사, 회계사, 세무사, 노무사 등 5개 전문자격에 대해 별도의 경력기준을 신설하여 컨설팅 풀의 전문성을 확대하고, 학력위주 등록기준을 경력중심의 등록기준으로 개편하여 현장 적용성을 향상시켰다.

등급	경력 기준	계(원)	경력 추가인정 기준
특급	학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24년 이상 해당분야의 컨설팅을 수행한 자	985,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박사학위 소지자 : 경력 6년 인정 석사학위 소지자 : 경력 2년 인정 기술사 자격증 보유자 : 경력 6년 인정 경영·기술지도사, 변호사, 변리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 등록증 보유자 : 경력 3년 인정
1	학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19년 이상 해당분야의 컨설팅을 수행한 자	834,000	
2	학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12년 이상 해당분야의 컨설팅을 수행한 자	757,000	
3	학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9년 이상 해당분야의 컨설팅을 수행한 자	644,000	
4	학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6년 이상 해당분야의 컨설팅을 수행한 자	518,000	
5	학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해당분야의 컨설팅을 수행한 자	388,000	

컨설팅지원사업은 전문가의 맞춤형 컨설팅을 통한 기업 문제해결과 경영성과 개선으로 기업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였으며 컨설팅 수진 전·후 및 컨설팅 비수진기업과의 비교에서 모두 높은 경영성과를 창출하였다.

(단위 : %, 백만 원)

구분	단기성과			구분	장기성과			
	공정 불량률	생산납기 준수율	인당생산성 (백만 원)		매출액 증가율	영업이익 증가율	비용 감소율	노동생산성 증가율
컨설팅 전	12.00	77.01	248.53	비수진기업	5.89	4.69	0.82	2.26
컨설팅 후	8.79	81.54	260.05	수진기업	31.95	39.70	2.32	8.24
추진성과	Δ 3.04p%	4.53p%	11.52	추진성과	26.1p%	35.0p%	1.5p%	5.98%

중소기업 기술사업화 역량강화사업은 사업화 성공률 및 정책 목적성 제고를 위해 지원대상 유형을 변경하여 지원하였다.

구분	기존('18)	변경('19)
지원대상	TMC유형(기술·사업화·기업역량 우수기업)	TC 유형(기술·사업화역량 우수기업)

고객접근성 및 업무 효율 제고를 위하여 오프라인 접수에서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로 변경하였다.

구분	기존('18)	변경('19)
신청방법	우편접수 및 오프라인 접수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2019년에는 시장검증 38개사 및 시장친화형 기능개선 20개사(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협업)를 지원하였다. 또한, 시장검증을 지원받은 38개사 중 17개사에서 신규 매출액(1,008백만 원) 발생하여 사업화 성공률 44.7%를 달성하였으며, 2018년 사업화 성공률(39.4%)에 비해 크게 향상시켰다.

레저장비산업개발지원사업은 지원과제에 대한 정량적인 사업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특허 등록 및 출원건수' 및 '시제품출시 건수'를 기술개발 부문의 성과지표로 설정하였으며, '지원금액 대비 신규매출액'을 맞춤형 사업화 부문의 성과지표로 설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특허등록 및 출원 5.75건, 시제품 출시 5건, 지원금액 대비 신규매출액 22.2%의 실적을 달성하였다.

3. 세부사업 추진실적

[중소벤처기업컨설팅지원사업]

중소기업 컨설팅지원사업은 중소기업의 경제·정책환경 변화에 대응 할수 있도록 컨설팅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근본체질을 강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2019년에는 중소기업간 협업, 사업전환 등 경제변화에 대응 할 수 있도록 특화형 컨설팅을 지원하였으며 최저임금, 근로시간단축, 화관·화평법 대응을 위한 규제대응 컨설팅과 중소기업의 정보보호 및 기술유출·탈취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보안 컨설팅을 신설하여 지원하였다.

또한 컨설턴트 등록기준 개편을 통해 학력위주 등록기준을 경력중심의 등록기준으로 개편하여 현장 적용성을 향상시켰으며, 교육 접근성 및 효과성을 높인 컨설턴트 대상 e-러닝 윤리교육을 도입하여 컨설턴트 등록시 '필수이수' 교육으로 상시 운영하였고, 저성과 컨설턴트에 대한 등급하향 기준을 마련하여 컨설팅 품질을 제고하고 부실 컨설팅 예방을 위한 제도를 시행하였다.

아울러, 일자리창출 기업을 중점 지원하기 위해 일자리점수를 평가에 반영(20점)하였으며 일자리 창출, 근로자 성과공유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수요자 중심의 일관지원 방식을 컨설팅사업에 도입하여 정책지원 효율성을 제고하였다.

2019년 사업추진을 통해 경제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생산성 향상, 경영전략 수립 등을 위한 특화형 컨설팅 258개사, 18억 원, 정책환경 변화에 따른 최저임금 준수, 주52시간 도입을 대비하기 위한 규제대응 컨설팅 152개사 19.3억 원,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업을 대상으로 화학사고 예방을 위한 화학물질 컨설팅 147개사, 18.2억 원, 정보보안 취약기업을 대상으로 보안전략수립, 취약점 분석·제거, 유럽 개인정보보호법 대응을 위한 정보보안 컨설팅 39개사, 4.5억 원을 지원하여 생산성 향상, 불량률 감소, 화학사고 예방, 보안수준 향상 등의 지원성과를 창출하였다.

[레저장비산업개발지원사업]

레저장비산업개발지원사업은 고부가가치 자전거·해양 레저장비 분야의 기술개발과 사업화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의 기술 경쟁력 확보 및 관련 산업 육성에 목적이 있다.

동 사업의 기술개발 부문은 자전거·해양 레저장비 및 관련 부품·소재를 제조하는 중소기업이 주관이 되어 수행하는 기술개발 과제를 대상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정부보조금으로 지원하며, 동 산업 전문가의 기술 사업성 평가를 통해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특히, 기술개발 기업이 과제수행을 위해 신규 채용 연구원과 창업 7년 이내의 중소기업의 기존 연구원의 참여에 따른 인건비 지원이 가능하여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 및 기술개발 성공에 기여하고 있다.

'19년도에는 총 60개 업체가 사업신청을 하였으며, 이중 6개 업체를 신규로 선정하여 10: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계속과제 2건을 포함하여 총 1,310백만 원을 지원하였다.

지원과제에 대한 정량적인 사업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특허 등록 및 출원건수' 및 '시제품출시 건수'를 성과지표로 설정하여 지표를 관리 하고 있으며 특허등록 및 출원 5.75건, 시제품 출시 5건의 실적을 달성하였다.

맞춤형사업화 부문은 기술개발 성공 후 사업화 되지 않은 기술에 대해 사업화 성공률 제고를 위하여 사업화 기획, 사업화 지원을 맞춤 지원하는 것으로 '17년도부터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19년도에는 사업화 기획 6건, 사업화 지원 11건으로 총 17건을 지원하였다.

맞춤형사업화의 성과지표는 지원금액 대비 신규매출액(%)으로 설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19년도의 성과는 22.2%로 목표대비 111%의 성과를 달성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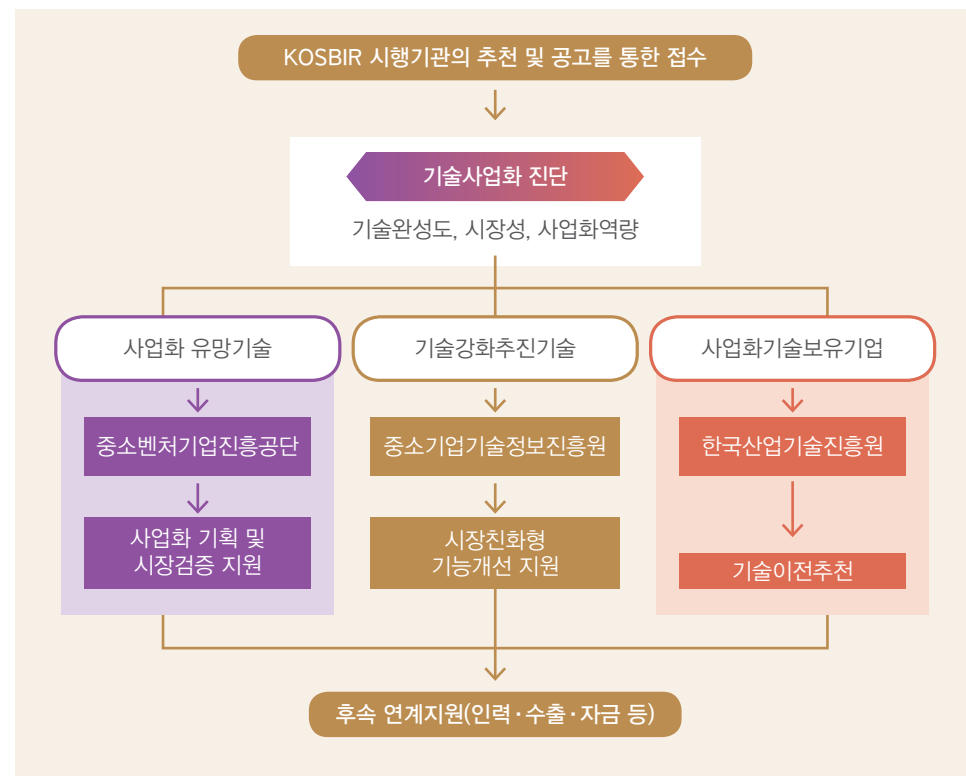
* KOSBIR(Korea Small Business Innovation Research Program) : R&D 예산을 운영하는 정부와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소관기관 R&D 예산의 일정비율 이상을 중소기업에 지원토록 권장하는 제도

[중소기업 기술사업화 역량강화 사업]

중소기업 기술사업화 역량강화사업은 사업화가 되지 않은 기술 및 특허를 보유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진단을 통한 사업화 기획, 시장검증 및 기능개선(R&D) 등 맞춤형 사업화 지원으로 정부 R&D 투자효율 개선 및 중소기업의 신규 매출을 창출시키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정부 R&D 성공기술 및 특허등록기술 중 사업화 추진(매출발생, 양산화)이 안 된 기술보유 중소기업이며, 최종 선정기업에게는 시장검증 및 시장친화형 기능개선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한다.

작년에 이어 2019년에도 공모접수와 KOSBIR* 시행기관을 통한 정부부처 R&D 성공판정 중소기업을 추천받아 지원하였으며, 대외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사업화 추진 유형별로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하였다.

〈기술사업화 추진 지원체계〉



〈기술사업화 지원사업 지원현황〉

구분	기술사업화 진단	기술사업화 기획	사업화 지원	
			시장검증	시장친화형기능개선
실적(개수)	253	33	38	20

[중소기업 재기컨설팅 지원사업]

가. 중소기업 진로제시컨설팅 사업

중소기업 진로제시컨설팅 사업은 외부환경 변화 등으로 위기에 봉착한 기업에 대해 전문가 심층진단을 통해 기업에 필요한 진로를 제시하는 사업이다. 부실기업에 대해서는 사업정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신속퇴출을 유도하여 시장 내 명맥만 유지하는 '좀비기업'의 양산을 막고, 회생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대해서는 회생절차 조기진입을 유도하는 사업이다.

2019년에 9.5억 원 예산으로 총 281개 기업에 대해 진로제시컨설팅을 지원하였다. 281개 지원기업 중 212개사에는 “구조개선” 판정으로 수출마케팅, 워크아웃, 자금 등 지원정책을 연계하고 있고 37개사에는 “회생지원” 처방을 통해 회생컨설팅을 연계하였으며 나머지 32개사에는 “사업정리” 처방을 통해 신속하고 투명한 폐업을 지원하였다.

〈2019년 진로제시컨설팅 처방 현황〉

(단위 : 개사)

구분	회생컨설팅 지원	사업정리	구조개선 등	합계
지원기업(개사)	37	32	212	281

나. 중소기업 회생컨설팅 사업

중소기업 회생컨설팅 사업은 법원 회생절차의 이행이 필요하나 회생절차 비용조달과 전문성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대해 맞춤형으로 회생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법원 조사위원 경험을 보유한 회계법인 및 법무법인 등 전문컨설턴트를 통해 법원 회생개시신청서 작성, 조사 대응, 회생계획안 작성 등 회생절차의 성공적 이행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2013년 57개사, 2014년 65개사, 2015년 51개사, 2016년 55개사, 2017년 90개사, 2018년 92개사 2019년 95개사 등 총 505개 기업을 지원하였으며, 법원 회생절차에 대한 체계적인 사업관리와 법원과의 협업을 통해 회생인가율을 제고하고 있다.

〈'13~'19년 회생컨설팅 지원실적〉

(단위 : 개사)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합계
지원기업(개사)	57	65	51	55	90	92	95	5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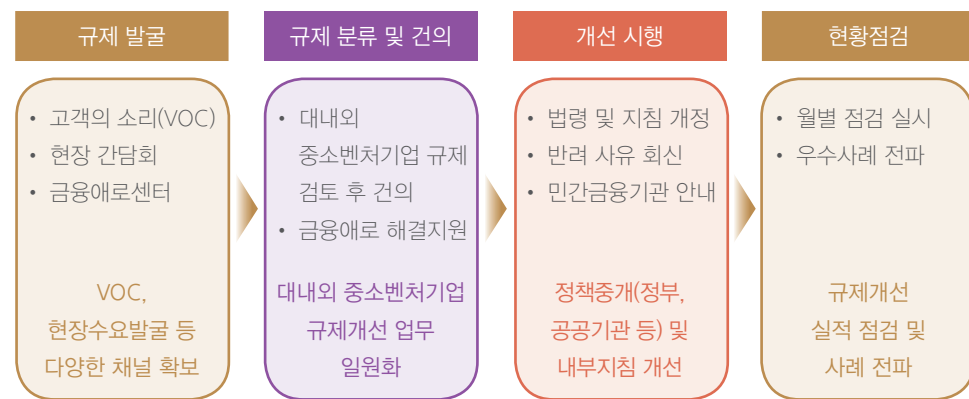
2019년 중 회생컨설팅 완료기업 47개사 중 38개사의 경우(2020. 4월초기준) 회생인가결정이 완료되어, 80.85%의 인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비교가능한 지표인 최근 5년간 법원의 회합사건 회생인가율 통계수치(33.06%)를 크게 상회하는 성과를 보이고 있다. 이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역량이 우수한 컨설턴트를 선정·관리하고 있으며, 신청부터 인가 시까지 컨설팅 전 과정에 걸쳐 수요자 맞춤형으로 컨설팅이 잘 이루어졌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정책중개]

2011년부터 중진공은 기관의 강점인 현장성을 살려, 지역본지부에서 발굴한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정부에 직접 건의하는 '정책중개'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발굴된 애로사항들을 정책과제로 검토한 후 제도개선이 필요한 과제를 선별하여 매월 중소기업 ombudsman 등 정부에 정책개선 과제로 제안하고 있다.

특히 2015년부터는 중소기업(Small business), ombudsman(Ombudsman), 중진공(KOSME)이 함께하는 찾아가는 규제애로 합동 간담회인 S.O.S Talk를 운영하여 2019년에 총 14회의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유관기관과의 협업 활동을 통해 중진공은 "정부정책과 중소기업 현장의 중개자"로서 역할을 더욱 확대하여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간담회와 지역본지부에서 수집한 애로사항 553건을 건의하여 전기차 구동축전지의 안정성 낙하시험 기준완화 등 72건의 규제를 정부시책에 개선사항으로 반영하는데 기여했다.

〈정책중개 업무절차〉



또한 중소기업의 불합리한 금융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2013년부터 금융감독원과 공동으로 '중소기업금융애로상담센터'를 운영하였다. 그 결과 2019년에는 55건의 신규대출, 만기연장 등의 금융 관련 애로사항을 상담·해소하였다.

〈2019년도 주요 정책개선 사례〉

번호	건의명	건의내용
1	전기차 구동축전지의 안정성 낙하시험 기준완화 필요	(현황) 전기차 구동축전지 낙하시험 기준이 국내 기준(낙하높이 4.9m)과 국제법규(2m 이내)가 달라 제품원가 상승 및 경쟁력 약화 (개선) 국제기준(UN GTR)과 동일하게 기계적 충격·압착시험으로 변경
2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대체 원부자재 공동구매 지원	(현황) 포스코에서 생산하는 310S 내열 강판이 신일본제철이 공급하는 NCA1을 대체할 수 있으나 2~3배 가격이 비쌌다 (개선) 철강업계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대체 품목이 적시에 공급될 수 있도록 협력(수입품목을 대체할 수 있는 품질·규격의 제품 생산, 공동구매를 통한 수요확대 및 가격 완화 등) 방안 마련
3	드론 비행신청 및 항공촬영 허가신청 간소화	(현황) 항공촬영을 목적으로 드론 비행이 필요한 경우 항공사진 촬영 허가과 드론비행신청을 별도로 진행해야하여 불편 발생 (개선) 항공촬영 및 드론 비행 허가신청서를 통합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승인·미승인 여부도 통합하여 검토
4	스마트팜 확대를 위한 별정 통신사업자 등록기준 완화	(현황) 스마트팜 설비제조 업체가 IoT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기 위해서는 전기통신사업법상 별정 통신사업자로 등록해야 하나 자본금에 대한 기준이 높아 등록이 쉽지 않음 (개선)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하여 스마트팜 설비제조 업체가 스마트팜 설비에 부수적으로 포함된 IoT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필요 자본금 없이 신고만 하면 사업이 가능하도록 개선
5	탈모완화 제품 활성화를 위한 기능성화장품 심사규정 개정	(현황) 탈모완화 제품 제조·판매를 위해서는 '인체 적용시험'을 통해 효능을 입증해야 하므로 중소기업에 큰 부담으로 작용 (개선) 안전성·유효성이 확보된 성분·함량에 대해서는 심사 시 인체 적용시험 관련 자료제출을 면제하도록 고시 개정 추진

정보제공(간행물발간)

중진공은 중소기업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영·기술 트렌드, 우수 성공사례, 중소기업 지원 시책 등의 정보를 담은 월간 『기업나라』를 1979년부터 발간하고 있다.

매월 1일 발간되는 『기업나라』는 중소기업 경영자 및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연회비 납부방식의 정기구독 회원제로 운영된다. 연간 회원에게는 정가보다 20% 이상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고, 주요 기사를 엄선해 이메일 뉴스레터를 발송하여 정기구독 회원에 대한 편의성을 높였다. 또한 시중 서점을 통해 일반인들에게도 판매를 진행했으며, 인터넷 웹진(nara.kosmes.or.kr)을 통해 주요기사를 제공하는 등 정보 접근성을 제고했다.

모바일 플랫폼을 활용한 온라인 정보제공 확산을 위해 포털사이트 네이버 ‘포스트’에 『기업나라』 콘텐츠를 서비스함으로써 모바일 환경에서도 주요 기사를 볼 수 있도록 하는 등 일반 대중의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개선에도 기여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리고 한국ABC협회에 부수인증 매체로 등록하고 정기적으로 발행부수에 대한 검증을 받아 정기간행물로서의 대외신뢰성을 높였다.

최신 산업 동향 및 이슈 관련 중소기업 사례를 심층 취재하는 <특집>, <기획> 코너와 함께 주요 기사를 4가지의 카테고리로 구분하여 보다 다양한 정보를 제공했다. <People & Company>에서는 중소기업 CEO 경영철학과 우수 제품의 탄생 과정을 소개하기 위해 현장에 직접 찾아가 취재하고, <Global>에서는 현지 리포터를 통해 미국, 독일, 중국 등의 해외 경제이슈 및 기술 동향을 전달했다. 또한 <Trend & Solution>을 통해 경영·기술 관련 트렌드를 분석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했으며 <Culture & Sense>는 문화 관련 기사로 교양 정보 등 다양한 내용의 콘텐츠를 실었다.

보다 다양한 시책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했다. 중소기업 관련 규제개선 사례를 소개하는 코너를 운영(중소기업 옴부즈만)하였으며,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과 특집 및 기획 코너에 대한 자료수집, 취재기업 섭외를 협업하여 기사의 전문성을 높였다.

매월 『독자의 소리』 코너에서 관심 있게 본 기사 내용과 앞으로 다루었으면 하는 주제에 대한 의견을 들었으며, 독자 모니터링단 설문을 통해 『기업나라』 콘텐츠에 대한 만족도와 선호도, 신뢰도, 건의사항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전반적인 만족도 점수는 5점 척도 기준 4.25점으로 높은 수준을 나타냈으며, 특히 ‘성공사례’와 ‘지원시책’, ‘제품소개’ 관련 기사에 대한 독자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월간 『기업나라』



CEO 경영 이야기



스타트업 UP

Korea SMEs
and Startups Agency
Annual Report 2019

고객만족도 제고 및
경영효율성 강화

100 현장 중심의 고객서비스 향상

110 소통과 공감을 통한 활기찬 조직문화 구축

현장 중심의 고객서비스 향상

현장 중심의 고객서비스 향상

2019년에는 공공기관 고객만족도(PCSI)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고객만족관리체계 개선', '현장중심 서비스 품질 개선'이라는 2대 전략을 수립하였다. 또한, 전략 추진을 위한 6개 실천 과제를 통해 고객만족도 제고하는 등 전사적인 CS활동을 펼치고자 노력하였다.



우선, "고객만족관리 체계 개선"을 위해, CS수준 진단을 실시하고 사업별 CS모니터링을 강화하였으며, 모니터링 결과로부터 사업별 고객만족개선과제를 도출하여 신규서비스 도입, 업무처리기간 단축, 절차 간소화 등 고객편의성 향상을 위한 서비스 개선을 추진하였고, VOC시스템 개편을 통해 홈페이지로 유입되는 고객 문의사항에 대한 즉시대응체계를 구축하는 등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한 체계를 정립하였다.

"현장중심 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해, 고객경험흐름(방문-안내-상담-배웅)에 기반한 단계별 실천방법 위주의 전직원 대상 고객응대역량강화 교육 및 고객만족도 미흡 고객접점부서를 선정하여 CS사전 진단 후 맞춤형 현장컨설팅을 실시하였다. 또한, 최신CS트렌드 반영 및 실질적인 활용도 제고를 위해 고객서비스 표준 매뉴얼을 개정 및 배포 등 고객접점 서비스 향상을 위한 활동을 추진하였다.

이와 같은 2대 추진전략과 6개 추진과제를 시행하였으며, PCSI 점수는 86.1점('18)에서 87.2점('19)으로 상승하였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PCSI & CSI 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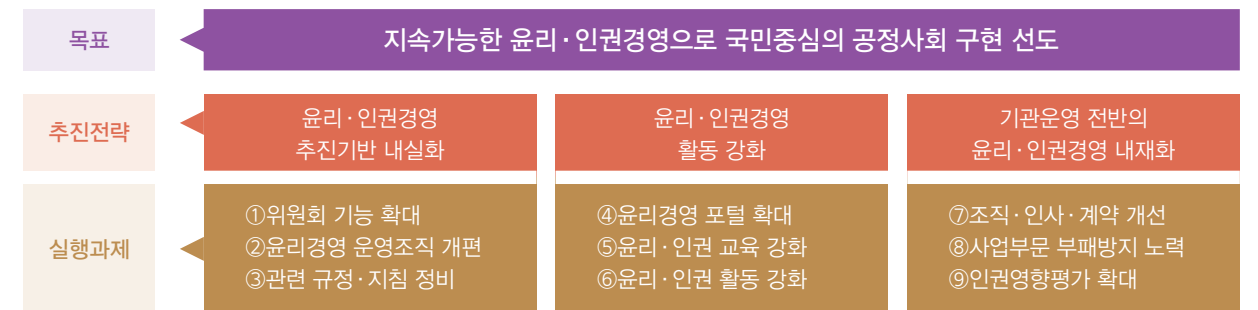
구분	2018년	2019년
PCSI	86.1	87.2
CSI	95.1	95.1

* PCSI (Public-service Customer Satisfaction Index)
: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 CSI (Customer Satisfaction Index)
: 고객만족도

기관 신뢰 향상을 위한 참여와 소통의 윤리·인권경영 추진

「지속가능한 윤리·인권경영으로 국민중심의 공정사회 구현 선도」를 2019년 중진공 윤리·인권경영 목표로 정하고, '윤리·인권경영 추진기반 내실화', '윤리·인권경영 활동 강화', '기관운영 전반의 윤리·인권경영 내재화'의 3대 추진전략과 9개 실천과제를 선정·추진하였다.



윤리경영·투명경영을 위해 관리자 참여 강화, 자문기능 강화, 현장성 강화를 목표로 내부운영조직을 개편하였다. 윤리경영 최고이사기구인 윤리인권경영위원회를 기존 연 2회에서 연 3회로 확대하여 윤리경영 점검 기능을 강화하였다. 또한, 청렴도 특별 대책본부를 신설하여 청렴도 향상을 위해 20개의 특별개선과제를 발굴·추진하였고, 노동조합, 변호사, 노무사 등으로 구성된 자문기구를 신설하여 준법경영을 위한 외부이슈 대응력을 높였다. 뿐만 아니라, 혁신그룹, 실천리더 등의 현장 조직을 구성하여 윤리경영이 조직 내에 뿌리내리기 위한 전사적인 활동을 전개하였다.

예방적 제도개선을 통한 부패발생을 근절하기 위해 모든 위원회에 직무윤리서약 의무화, 대리참석 금지, 이해관계인의 의결권제한 등을 반영한 규정을 정비하였고, 갑질 근절을 위해 임직원 행동강령 개정, 처벌규정을 신설하여 제도를 완비하였다. 또한, 사업 관련자의 부패 가능성까지 차단하기 위해 비위사실 경력 보유 외부전문가 활용을 제한하는 외부전문가 활용 규정 등을 신설·운영하였다.

윤리의식 내재화를 위해 온·오프라인 토론방식의 윤리교육을 추진하였다. 부서장이 주도하는 참여와 소통 중심의 윤리교육을 전 지역본지부에서 실시하였고, 신입사원, 실무자, 관리자, 임원의 생애주기별 교육을 실시하여 직원 100%가 이수하였다. 또한, 온라인 포털 사이트 "청신호" 운영 시 갑질, 인권, 부패, 청렴, 성평등



윤리·인권경영위원회



부서장이 주도하는 참여와 소통 중심의 윤리교육



KOSME 윤리·인권투명경영 소식지

사, 국민의 인권보호를 위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이를 통해 정부 인권경영 가이드라인의 모든 단계를 이행 완료하였다.



국민인권위원회 강사 특별 초빙 <인권 감수성 향상 교육>

의 5대 테마를 지정하고 매월 영상학습, 퀴즈, 토론, 자가진단 등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여 전 직원의 공감대를 높였다.

또한, 조직 내부의 윤리경영을 외부로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였다. 중진공 고유의 윤리·인권경영 플랫폼을 자회사, 협력사 등 이해관계자에게 개방하여 윤리경영 시스템 도입을 지원하였다. 또한,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자 SNS 이벤트 신설, “KOSME 윤리인권경영”소식지 배포 등 윤리경영·투명경영 가치의 외부 확산을 위해서도 노력하였다.

마지막으로, 갑질, 직장 내 괴롭힘 등 인권경영을 위해 활동하였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진행하였고, 국민인권위원회 강사를 특별 초빙하여 진행한 인권 감수성 향상 교육에서는 자회사 직원들을 초대하여 인권경영을 대내외 전파하고자 노력하였다. 또한, 인권영향평가를 통해 내부 직원 및 취약근로자를 위한 제도개선, 중소기업, 자회

사회적 가치 내재화와 성과창출 중심의 사회적 가치 실현 활동 수행

중진공은 경영활동 전반의 “사회적 가치 내재화”와 기관의 핵심 역량 및 주요업무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성과창출 중심”의 사회공헌 테마를 재정립하였다. 기존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전사적인 사회적 가치 실현 프로그램으로 체계화하여, 사회공헌 추진대상과 추진과제 그리고 피드백으로 이어지는 사회공헌 활동 체계를 운영하였다.



기관 주요업무 및 전국단위 조직특성을 고려하여 ‘사회적경제 기업, 지역사회, 취약계층’의 3대 중점 추진대상을 선정하였고, 사회공헌 활동별 성과조사와 국민참여단 설문을 통해 중진공 사회적 가치 활동에 대한 의견수렴 및 구체적 니즈를 파악하였다. 이를 통해 도출된 사회공헌 테마(전략과제)는 중소기업의 동반성장 성과창출, 지역사회 상생 및 협력 강화, 취약계층 대상 지원확대이다.

첫째,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을 위한 멘토링, 정책연계 활동, 중소기업 인식 개선을 통한 인력난 해소 등 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해 노력하였다. 중소기업 역량 강화를 위해 지역본부 팀장급 이상 중진공 직원 97명으로 구성된 ‘찾아가는 현장 서포터’ 활동을 통해 97개사 중소기업(사회적경제기업 69개사) 대상으로 집중 멘토링을 실시하였고, 멘토링 만족도 4.89점(5점 만점)으로 전년(4.8점)대비 상승하였다. 또한, 우수 중소기업과 함께하는 사회공헌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사회적경제 기업 대상 정책소개 및 경제·금융관련 멘토링을 실시하고, 직접 우수 중소기업의 일손을 돕는 사회공헌 활동을 추진하였다.

둘째, 지역공동체 복원·상생에 공헌하고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활동을 추진하였다. 본사 이전 지역 상생을 위한 재능기부, 환경정화 등 다양한 사회적 가치 실현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특히,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 지역 특성화고 장학생 대상 중진공 멘토링을 운영하여 현재까지 24명의 장학생을 지원하였으며, 기관협업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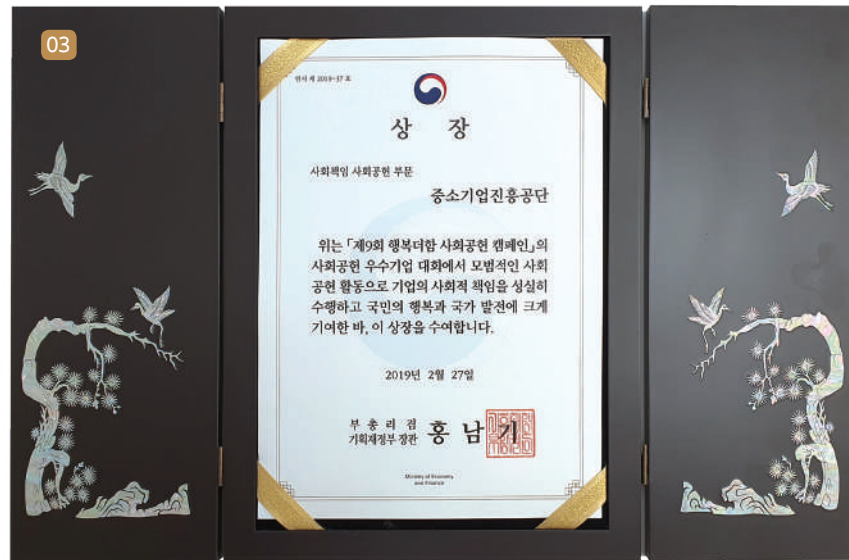
지역아동 및 지역 청소년 대상 공동사업

선정되었다.

셋째, 취약계층에 대한 전사적인 지원을 확대하였다. 정기 사회공헌 활동 협력대상 복지시설을 9곳으로 확대하였다. 진주를 비롯한 7개 지역에서 아동, 노인, 다문화가정, 장애인 등 소외계층을 위한 사회공헌활동과 기부를 추진하였다. 또한, 청년구직자 취업지원을 위해 진주시와 지역대학 및 기관의 협업을 통해 '2019년 진주시 채용박람회'를 개최하였다. 인식개선 교육, 취업컨설팅, 중소벤처기업바로알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구인기업 60개사, 구직자 2,000여명이 참석하는 등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특히, 중진공은 모범적인 사회공헌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성실히 수행한 결과, 2019년 '제9회 행복더함 사회공헌 캠페인'에서 사회책임 사회공헌 부문 기획재정부 장관상을 수상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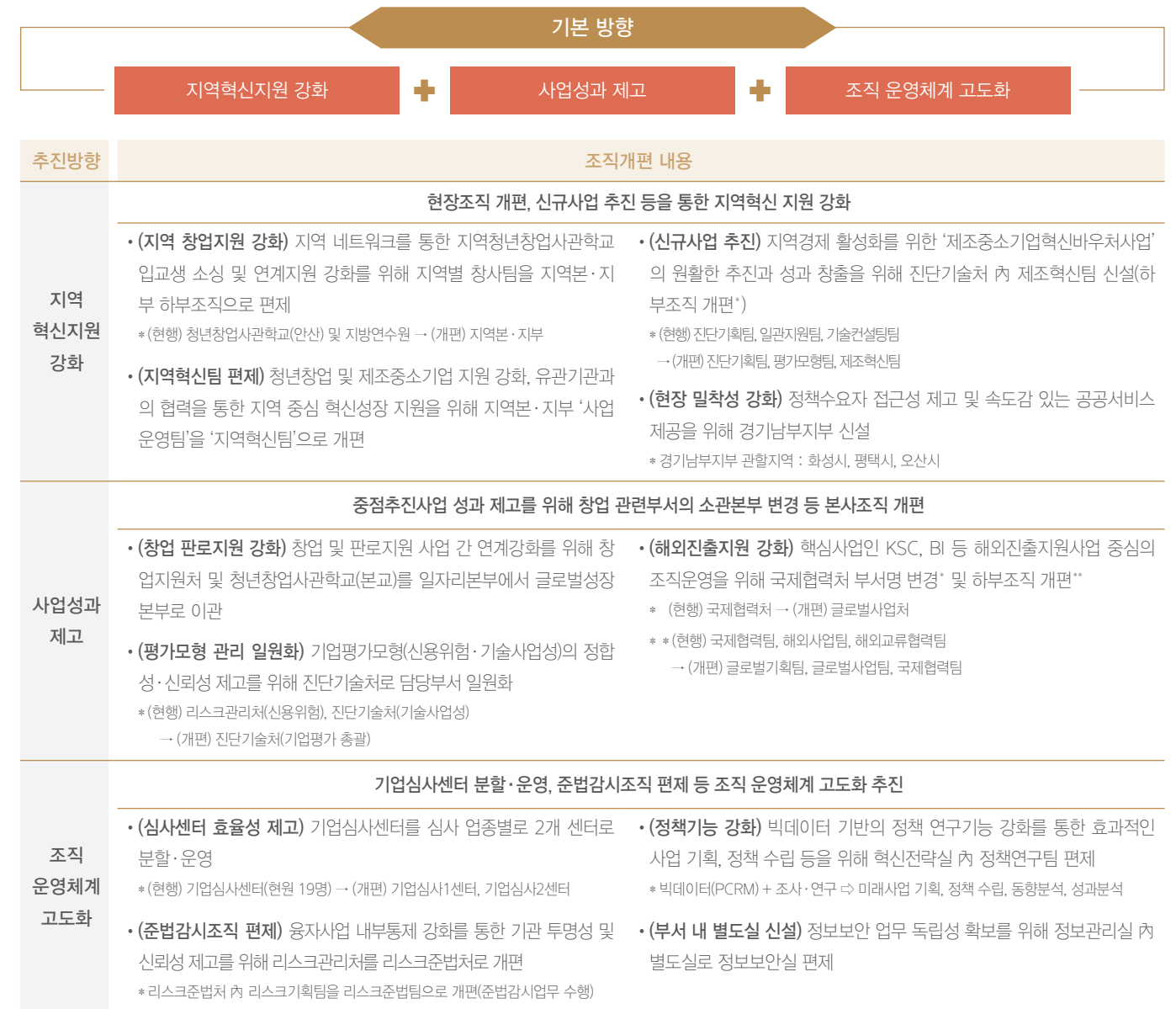
으로 LH 등 진주혁신네트워크 6개 기관과 협업하여 지역아동 및 지역 청소년 대상으로 공동사업을 진행하였다. 또한, 강원지역 산불피해 및 진주 방화사건 피해와 같은 국가 재난 지원을 위한 구호물품 지원 및 모금활동을 진행하였다. 특히, 중진공은 이전지역에 대한 모범적인 지역공헌 결과, 2019 지역사회공헌 인정기관에



01. 국가 재난 지원을 위한 구호물품 지원 및 모금활동 02. 2019년 진주시 채용박람회 03. 사회책임 사회공헌 부문 기획재정부 장관상 수상

지역혁신 지원과 중점 추진사업 수행역량 강화

중진공 고객과 지역사회 및 직원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5명을 증원하였고, 정책자금 집행, 수출BI 기능 강화, 스마트제조 전문인력 양성 등 중소벤처기업 혁신성장 지원 강화를 위해 36명을 증원하였다. 또한, 지역혁신을 통한 경제 활성화, 중소벤처기업 혁신성장 지원사업의 효과적인 성과창출 등을 위해 ① 지역혁신지원 강화, ② 사업성과 제고, ③ 조직 운영체계 고도화를 기본 방향으로 다음과 같이 조직개편을 실시하였다.



기관혁신

정부는 2012년 국정운영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도입된 정부3.0의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고 정부 3.0 생활화를 추진하기 위해 서비스 고도화와 대국민 체감성과 확산을 위한 홍보를 중점적으로 추진하였다.

중진공은 정부3.0 중장기('15~'17) 실행계획을 수행하고 신규 서비스를 추가적으로 발굴하여 전년 보다 12개 증가한 총 4개 분야(서비스 정부, 유능한 정부, 투명한 정부, 변화관리) 33개 과제를 발굴하였다. 특히 2016년에는 정부3.0 생활화를 전사적으로 추진하였으며 고객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체계적인 연간계획 수립, 정부3.0 이행노력에 대한 평가제도 도입과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 다방면의 노력을 시행하였다.

각 서비스 과제별로 매월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중진공의 정부3.0 대내외 환경을 분석하여 장애원인과 저항요소를 해결하기 위한 외부 전문가 초청 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중소기업들을 위한 중진공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SBC3.0 추진체계를 점검하고 개선사항을 반영하였다.

그 결과 중진공 대표 맞춤형 서비스인 '위기기업 및 재도전 기업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 제공' 사례로 행정부 주관 공공기관 우수사례 경진대회에 참가하여 장려상을 수상하였으며 '정책자금 온라인 사전 상담예약 도입을 통한 고객편의 증대' 사례는 중기청 주관 정부3.0 및 비정상의 정상화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2017년도에는 중진공에서 추진하는 모든 정부3.0 실행과제를 완료할 수 있도록 상시 이행점검과 과제별 통·폐합을 집중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고객의 불편사항을 반영한 맞춤형 원스톱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추진하고, 민간분야의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한 개방 확대 및 창업 분위기 확대에 필수적인 정책 지원 등을 중점 추진한다. 이를 통해 중진공은 수요자 중심으로 기관운영 패러다임을 완벽하게 전환하여 중소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정부3.0 선도기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전사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정부3.0이란?

공공정보를 개방하고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 국민의 삶을 편하게 하고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국민 중심의 정부혁신'입니다.

인력운영 효율성 제고 및 채용시스템 고도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중소기업 혁신성장 촉진, 공정경제 구현, 사회적 가치 실현 등 경영목표 달성을 위해 조직전문성 제고 및 전문인재 양성 등 인적자원을 확충하고 인력운영 효율성을 제고하였다.

특히, 잦은 전보로 인한 전문성 축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수도권·본사 순환근무주기를 2→3년으로 확대하였으며 인사관리시스템 개선을 통해 직군단위로 희망배치부서 조사 후 전보에 반영하였다. 뿐만 아니라 신규사업 및 경영목표 등과 연계하여 16개 전문직위 신설, 전문가 16명 경력직 채용, 전문직위 부여 등을 통해 경영전략 실행력을 강화하였다.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무를 다하고자 실업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직자를 위해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섰다. 우선 정부 중점추진사업 및 신규사업 등 집행력 확보를 위해 정원을 확대하였다. 또한,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육아휴직 및 시간선택제근무 활용을 적극 장려하였으며 휴직자·단시간근로자 증가 등으로 인한 대체인력TO는 정규직 직원의 채용여력을 확대하는데 활용되었다. 이처럼 정원확대 및 현원관리 강화 등을 통해 역대 최대 규모인 97명을 신규채용함으로써 일자리 창출을 선도하였다.

채용의 공정성·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블라인드 채용을 고도화하였다. 채용 비리·오류 방지를 위해 시기반 카피킬러로 입사지원서류 표절검사, AI활용 면접 참고자료 내 편견요소 자동블라인드 처리, 외부면접관 참여 확대, 예비합격제도 도입 등 채용 전 과정을 혁신하였다. 이와 같은 노력을 통해 신규채용 직원의 수도권 편중현상이 완화(32.6→31.2%)되고 청년층 외에도 30대후반·중장년 채용이 확대(75.1→73.2%)되었으며 채용 비리·오류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는 등 채용의 공정성·투명성을 제고하였다.

적합인재를 선발하기 위해 전공시험·시사논술 도입, 직무특화 면접질문 개발, AI역량분석결과(조직·직무 적합도) 면접 참고자료 활용 등 조직·직무 적합 평가를 강화하였다. 이를 통해 신입직원 입문교육 평가결과가 전년 대비 2% 상승하는 등 적합인재 선발이 강화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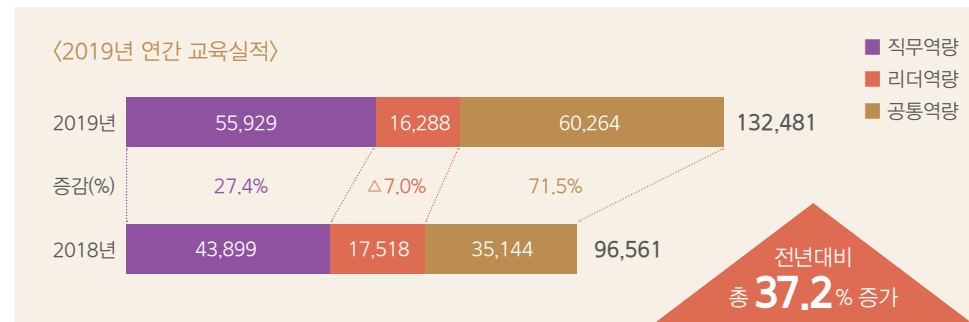
지역균형발전, 사회약자 실질적 균등기회 제공, 사회통합 등을 위해 사회형평적 채용을 확대하였다. 우선, 지역선도대학에 참여하여 경상대 등 6개 대학과의 협업을 통해 맞춤형과 개설(6회 150명 수료) 및 분사 현장 실습(3회 25명 실습) 등 지역인재 육성에 나섰으며 이를 통해 지역인재 채용비율은 24.1%로 정부목표(21%)보다 3.1% 초과달성하였다.

또한, 장애인, 저소득층, 보훈, 경단녀, 시니어 등의 특성분석 및 적합직무 개발 후 가점부여와 시간선택제 채용을 통해 우대하였으며 이를 통해 취업취약계층 13명을 채용하였다.

전문인재 중점 육성

중진공은 현장 중심 전문성을 기반으로 혁신성장을 선도하는 중소기업 전문가 육성을 HRD 목표로 설정하였다. 교육을 통해 현업수행능력 강화 및 조직성과가 향상될 수 있도록 역량진단을 2단계로 실시(자가·상사)하여 GAP을 분석하고, 대·내외 환경분석과 전 직원의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연간 HRD중점과제를 도출하여 운영하였다.

먼저 총 교육시간은 금융전문가 양성중심의 직무교육과정 확대, 정부정책에 따른 전 직원 대상 안전교육 및 융합형 인재양성 위한 인문학과정 등을 신설한 결과 전년대비 37.2% 증가하였다.



분야별 역량 중 직무역량의 경우 혁신성장 중소기업 지원역량 강화를 위해 금융전문가 양성 중심으로 교육체계를 개편하여, 신입사원부터 전문가 단계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인 맞춤형교육을 운영하였다. 금융분야 초·중급 과정은 성취도 평가제도를 도입하고 사례중심교육을 확대 운영하여 교육성과 제고를 위해 노력하였다. 자격증 및 사외교육 등 직무교육예산을 32.6% 확대편성하여 교육시간 또한 12,030시간 증가하였다.

리더십역량은 여성의 경우 생애주기별 필요역량에 따라 맞춤형교육을 실시하여 전년대비 47.5% 이상자가 증가하였다. 임금피크제 대상자 교육은 심층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연차별 교육으로 변화관리와 현업적응, 경력관리, 은퇴 후 진로개척을 지원하였다.

공통역량은 또한 정부정책에 따른 안전, 인권, 지속경영교육과 법정 의무교육인 폭력예방, 정보보안, S/W저작권, 부패방지, 스마트폰과중독 예방, 장애인인식개선, 통일, 아동학대예방교육 등을 운영하였다.

4차산업 등 혁신성장 지원을 위해 융합형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IDP(Individual Development Plan) 기반 사외교육제도를 신설하여 학습자 중심의 교육설계 및 학습지원을 하였고, 창의성과 인문학적 소양 함양을 목적으로 온·오프라인 인문학과정을 신설하였다. 또한, 글로벌 역량 제고 위해 혁신스타트업 육성 중심의 해외성공사례 벤치마킹 연수를 신설하였고, 신입직원은 혁신성장OJT 과정으로 혁신성장 관련 산업 및 중소기업의 분석을 실시하였다.

위와 같이 다양한 교육제도 신설 및 운영으로 직원들의 분야별 역량을 향상 할 수 있었다. 그에 대한 성과로 교육만족도 4.84점(5점만점), 현업적응도 4.45점(5점만점)을 달성하였다.

기관의 경영전략과 정부정책 실행력 강화를 위한 성과관리체계 구축

기관의 중장기 경영목표 달성을 위해 4대 전략목표를 기반으로 선정된 24개 전략과제를 부서경영평가 및 개인성과평가 KPI와 연계하여 효과적인 성과관리체계를 확립하였으며, 지표선정과 평가 전 과정에 직원 참여를 확대하여 타당성 높은 평가지표를 설정하고 평가에 대한 투명성과 만족도를 개선하였다.

중소벤처기업 혁신성장, 사회적 가치 등 핵심성과 위주로 성과지표체계를 개선하여 기관의 핵심성과 및 주요 정부정책 실행 강화에 기여하였으며, 특히 핵심사업 성과중심으로 지역본부 평가지표를 정비·간소화(9.8%↓)하여 핵심성과 창출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다.

혁신성장 평가지표 비중을 확대(29.3%→35.9%)하여 기관의 혁신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였다. 공공데이터 개방 촉진을 위해 사업직군에 공통지표를 신설하였으며, 총괄부서에는 개방 데이터의 품질관리를 위한 지표를 신규 반영하였다.

기관의 사회 안전망 역할 강화를 위해 전 직군에 안전 관리 지표를 신설하였으며, 중대재해 발생 시 사고발생 부서의 안전관리 지표를 0점 처리하는 적부평가제를 도입하여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였다. 또한 국민평가 대상 지표를 기존 사회적 가치 창출 지표에서 안전 관리 지표로 확대하여, 정책고객인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안전관리 수준 확보에 기여하였다.

팀 간 긴밀한 협업을 통한 부서단위의 업무실행력 강화를 위해 본사 기획관리 직군의 평가체계를 팀단위에서 부서단위 평가체제로 개선하였다. 기존 14개 팀단위 평가직군을 7개 부서 단위로 평가함으로써 팀별 업무특성 차이로 인한 상이한 지표구성에 따른 평가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였다.

부서평가단 선정 시 직원 공모 및 평가단 선정위원회를 운영하여 부서평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내외부평가단을 대상으로 기관의 사업과 부서별 업무, 평가왜곡 방지, 보고서 작성 등의 교육을 강화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개인성과평가는 혁신성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개인의 기여도를 높이기 위해 '지역 맞춤형 특화과제'를 부서장 핵심과제에 반영하고, 팀장은 지역 맞춤형 특화과제와 연계한 '우수사례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한 대국민 홍보'를 공통과제로 신설하여 운영하였다. 또한 현장부서는 기능과 역할을 고려하여 평가직군을 경영지원처와 지역본부로 분리하였다.

개인성과평가 제도 개선에 대한 직책별 FGI와 직원 간담회를 실시하여 직원 참여를 확대하였고, 개선사항에 대한 사전 안내를 위해 권역별 설명회도 개최하였다. 또한 성과관리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실무위원회를 통해 개인KPI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고, 지표타당성을 확보하였다. 그리고 평가AUDIT을 실시하여 평가과정에서의 오류를 최대한 방지하였으며, 평가자 제척제도를 도입하여 모든 직원이 공정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다.

소통과 공감을 통한 활기찬 조직문화 구축

2019년 중진공은 창립 40주년, 정규직 전환 등 다양한 이슈에 맞추어 新조직문화를 구축하고, 새롭게 도출된 조직문화 체계 및 전략을 중심으로 활동을 재개편 하여 추진하였다.



첫 번째로, 성과중심의 조직문화 정착을 위하여 경진대회 및 포상제도를 개편하여 운영하였다. 기존에 18개 분야 경진대회로 각부서에서 실시하던 것을 기관의 정체성을 반영한 4대분야 경진대회로 개편하였고, 외부평가위원을 포함하여 평가의 객관성을 높이고, 인사가점 등 비금전적 포상을 강화함으로써 직원들의 자긍심을 고취토록 하였다. (46개 부서 포상, 올해의 중진공사 3건 선발) 또한 일·가정 양립의 문화 정착을 위하여 연차휴가 및 근로시간 저축휴가 소진율을 부서평가에 반영토록 하여 직원들의 휴가 사용을 독려했다. 또한 배우자 출산휴가 10일 및 다자녀 자녀돌봄휴가를 3일로 확대하는 등 가족친화 경영을 위한 활동을 추진하였다.



두 번째로, 청렴도 향상 자문단을 신설하여 제도개선을 하는 등 윤리·인권 조직 강화를 통한 청렴한 문화 만들기를 위해 노력하였다. 특히 테마가 있는 윤리·인권경영 포털 청신호를 운영하고, KOSME 윤리·인권경영 소식지를 배포하였으며, 인권감수성 향상 교육을 실시(7.17) 하는 등 청렴문화가 확산되도록 추진하였다. 아울러, 부서간 직원간 소통활성화를 위하여 직원들의 선호도가 높은 문화강좌를 개설하였으며(총 4회), 지리산 등반, 동호회, 동기회 워크숍을 추진하여 부서 및 직원들의 소통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또한 정시퇴근을 위한 퇴근음악 방송, 건전한 회식문화, 일회용품 줄이기, 직장 내 갑질근절 등의 캠페인을 통해 불편문화 개선을 위한 활동을 추진하였다.



세 번째로, 2019년 창립 40주년을 맞이하여 새로운 비전과 CI를 내·외부에 선포하는 창립기념식(4.18)을 추진하였으며, 기념식 후에 강원도 산불피해 사회공헌 활동을 연계 추진함으로써 창립기념식의 의미를 극대화 하였다. 전직원 스트레스 진단(MSS)을 통해 개인 및 조직의 현황을 파악하고, 탈진 위험 및 낮은 만족도 직원에게 1:1 전문상담을 추천하는 등 유연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활동을 수행하였다. 또한 오페라 돈파스칼레(5.2),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6.13), 토크 콘서트 연애는 잘하나 등을 개최하였으며, 지역사회 교류와 국민편의 증진에 기여하였다.

*** 조직문화지수**
리더십, 조직력, 소통, 신뢰 등 4개 분야에 대한 중진공 조직문화 수준을 측정하는 고유 진단지표

위와 같이 시대변화를 반영한 활동으로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기관의 비전과 핵심가치 공유 등 내재화가 이뤄지고 있으며, 애사심 및 일체감을 높일 수 있었다. 그에 대한 성과로 9년 연속 가족친화기업 인증(여성가족부)을 획득하였으며, 조직문화프로그램 만족도 상승(4.6→4.8점), *조직문화지수 상승(4.3→4.38점)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Korea SMEs
and Startups Agency

Annual Report 2019

2020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사업추진 방향

2020년 사업추진방향

2020년 중소기업진흥공단은 ①중소벤처기업 혁신성장 촉진, ②공정경제 및 사회적 가치 실현, ③수요자 중심 서비스 혁신, ④국민신뢰 경영기반 구축을 중점 전략목표로 설정하고, 정부정책을 최일선 현장에서 수행하는 원스톱 종합지원기관으로서 중소기업에 희망을, 벤처기업에 날개를, 청년들에게 일자리와 꿈을 주는 역할에 집중할 계획이다.

1) 정책자금 투·융자

가. 혁신성장을 통한 경제 성장동력 확보

(혁신성장기업 집중 육성) 혁신성장 유망기업의 데스벨리 극복 및 스케일업 촉진을 위해 고성장촉진 자금(3,000억 원)을 지원한다. 또한, DNA(Data, Network, AI) 및 BIG3(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분야 창업기업의 성공률 제고와 안정적 사업화 지원을 위해 미래기술육성자금(3,000억 원)을 신규 공급한다.

(신산업 및 소·부·장 지원 강화) 핵심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해 신산업 및 소재·부품·장비 분야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3,000억 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융자제한 및 경영이상 항목 등 최소 요건의 확인만으로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하이패스 심사방식을 도입함으로써 유망기업에 신속하게 지원한다. 뿐만 아니라 생산설비 신규 도입 촉진 및 제조혁신 견인을 위해 시설자금 위주의 신성장기반자금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8,800 → 14,300억 원, 5,500억 원 ↑)한다.

(혁신 중소기업 스케일업 프로그램 도입) 기술성·성장성·시장성이 높은 신산업 분야 유망 중소기업들을 공모 및 IR 방식으로 연간 100개사를 선정하여 집중 지원(2,000억 원)하는 스케일업 프로그램을 신규 운영한다. 융자한도를 확대(60 → 100억 원)하고, 중복지원 방지(5년간 3회)의 예외를 적용하는 등 우대 지원할 예정이다.

나. 수요자 중심의 정책자금 운용

(비대면 심사 도입) 기업의 재무적·비재무적 공공데이터(재무, 고용, 수출 등)를 활용한 비대면 심사로 정책자금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비대면 심사체계를 도입하여 중소기업의 정책자금 접근성을 증대한다. 또한, 업무 자동화 및 AI 응용기술 등을 정책자금 업무(챗봇상담, 전자약정 등)에 단계적으로 도입하여 업무 효율성과 고객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정책+민간 협업대출 운영) 정책자금 특성상 한정된 예산의 한계를 극복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

하기 위해 시중은행을 통한 대리대출 시 정책자금 공급액에 비례한 민간자금 매칭형 대출을 추진한다. 우리은행과의 협업대출(정책자금 60%, 민간 40%)을 우선 진행하여 그 운영 효과 등을 검토한 후 타 은행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강화) 금융 접근성이 낮은 사회적경제기업의 자금 애로 해소를 위해 지원 예산을 확대('19년 500억 원 → '20년 600억 원)하고, 포괄적 네커티브 규제 전환 서비스를 적용하여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장애인기업, 자활기업, 재해기업 등에 대해서는 만기연장 및 집중관리기업지정 시 가산금리 적용을 제외하여 채무 상환 부담을 완화한다.

다. 정책금융 전문성 강화

(투융자복합금융 지원방식 다양화) 현재 투융자복합금융 지원방식인 전환사채 외에 상환전환우선주, 신주인수권부사채 방식을 추가하여 기업별 자금조달 니즈 및 투자시장 환경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정책자금 금융기관으로서의 전문성을 강화한다.

(리스크관리체계 개선) 전사 통합리스크 관리시스템(ERMs)의 체계적 운영을 통해 위기상황을 조기에 인식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리스크관리에 대한 전문성을 제고한다. 뿐만 아니라 거시경제지표 상시 모니터링 및 단계별 한계상황에 대응하는 위기관리계획을 수립한다.

2) 수출지원 및 글로벌화

가. 수출기업 확대를 위한 맞춤형 지원 강화

(수요자 중심 자금지원) 내수기업 수출사업화 및 수출기업 글로벌화를 위한 신시장진출지원자금 예산을 확대('19년 1,800억 원 → '20년 2,000억 원)하여 새로운 수출동력을 확보하고, 수출 중소기업의 글로벌 기업화 촉진을 도모한다. 또한, 다양한 자금 수요를 고려하여 전자상거래활용사업 참여기업(200억 원), 브랜드K 인증기업(100억 원)을 위한 전용자금을 지원한다.

(수출바우처사업 개편) 수출단계별(내수기업, 수출초보, 수출유망, 수출성장) 수혜기업 선정절차 개선을 통해 바우처 활용성과를 제고하고, 혁신바우처를 신설(148억 원)하여 스마트공장 도입 기업, 신산업 영위 기업, 브랜드K 지정 기업을 지원함으로써 정책목적성 강화 및 혁신성장 수출생태계의 기반을 조성한다.

나. 온·오프라인 수출지원을 통한 성과 창출

(수출인큐베이터 운영체계 혁신) 수출 비가 설치된 해외거점별로 주요기능을 특화(혁신성장형, 기술교류형 등 5개 유형)하고, 인큐베이팅 기능 강화를 위해 지원 프로그램을 전면 개편하여 속도감 있는 수출성과를 창출('20년 지원기업 연간 수출 700백만 불 이상)할 계획이다. 더불어 현지 진출 중소기업의 정책수요 파악 및 국가별 주요 이슈 공유 등 국내외 해외를 연결하는 Linker로서의 역할을 확대한다.

(해외진출 플랫폼 확장) 베트남 하노이에 제품전시, 판매, 인플루언서 마케팅 등을 위한 한국제품전용관을 마련하여 중소기업 신남방 진출의 거점을 구축한다. 중국 충칭에도 우수 중소기업 제품을 전시, 판매하기 위한 한국제품전용관을 개관한다. 뿐만 아니라 대기업의 인프라 및 노하우 등을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한다('20년 상반기 포스코인터내셔널과 업무협약 추진 예정).

(온라인수출 활성화) 온라인수출플랫폼(코비즈코리아)을 활용하여 빅데이터 기반의 해외 바이어와 국내 기업 간 자동 매칭 및 온라인전시회를 통한 상시 제품 홍보 등의 서비스를 2,100개사에게 제공한다. 또한, 북미·중국 등 선진시장은 아마존, 알리바바 등 글로벌 쇼핑몰에 입점하여 제품 판촉을 강화하고, 인도·터키 등 신흥지역은 현지 유력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시장을 개척함으로써 온라인 수출성과를 제고한다.

다. 수출역량 제고를 위한 지속적 노력

(전문인력 양성) 청년 및 대학생 200명을 수출마케팅 전문인력으로 육성하여 수출초보기업과 매칭 후 해외마케터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청년글로벌마케터 제공사업을 신규 추진함으로써 수출초보기업의 수출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청년에게는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한다. 그리고 이커머스 특성화 대학 운영을 통한 온라인수출 전문인력 및 SNS를 활용하는 1인 크리에이터를 양성하여 중소기업 수출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류 연계 컨설팅 제공) 수출초보기업의 한류프리미엄을 활용한 효과적인 해외진출을 위해 현지 한류상황 및 상품경쟁력 분석, 한류활용 마케팅 전략 수립 등을 제공하는 한류 연계 컨설팅을 진행하여 판로개척을 지원하고 수출 활성화에 기여한다.

3) 인력양성

가. 혁신성장 선도인력 양성

(스마트공장 전문인력 확대) 스마트공장배움터 2개소를 추가 구축(충청·대구, 3~5개소)하여 제조 분야 전문인력 11,000명을 양성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 또한, 스마트공장을 구성하는 실습장비를 활용한 분야별·수준별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스마트공장 고도화를 촉진하고, 교육과정 확대(200→277개) 및 장기 교육과정(3개월, 160시간) 신설로 현업적용도를 향상한다.

(신산업 및 소·부·장 분야 교육 강화) 신산업 및 소재·부품·장비 영위 중소기업의 효율적 인력양성을 위해 대·중소벤처기업 상생형 계약학과(경희대-삼성전자 : 소재·부품, 수원대-현대차 : 수소차 등)를 운영하고, 소재·부품·장비 분야에 특화된 문제해결형 연수 과정을 확대할 예정이다.

나. 중소기업 취업 지원 강화

(AI 면접시스템 활용 확대) 온라인 기반 AI 면접시스템(15만개의 면접질문 DB)을 활용하여 구직자 및 구인기업의 비용·시간을 절감하고, 면접에 대한 경험과 전문성 부족을 해소한다. 뿐만 아니라 구직자-구인기업 간 수요를 반영한 기업인력애로센터의 취업매칭시스템을 통해 취업매칭의 정확도 및 효율성을 향상한다.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 특성화고 인력양성, 계약학과, 기술사관 육성 등의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중소기업 수요에 부응하는 맞춤형 전문인력을 육성한다. 또한, 취업의지가 높은 취업맞춤특기병 등 취업의지가 높은 청년장병을 선별하여 집중 지원하고, 병무청과의 협업을 통해 산업기능요원 등 대체복무자와 병역특례기업 간 취업매칭을 추진할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 취업 인식개선) 중소기업 취업 기피 현상을 타개하기 위해 구직자(학생), 부모·교사, 일반국민 등 이해관계자별 인식개선에 대한 교육을 진행한다. 그리고 중소기업 현장 견학이나 진로설계 및 취업연계를 지원하는 청년장병 희망열차 개최 횟수를 확대('19년 3회 → '20년 6회 이상)할 예정이다.

다. 근로자 복지 향상 및 자발적 상생협력 문화 확산

(내일채움공제 활성화) 기업납입금 지원을 위한 공기업, 대기업 및 지자체와의 협업 강화, 위탁판매기관 및 수행기관 추가를 통한 외부 가입창구 확대 등으로 내일채움공제 가입을 활성화하여 대·중소벤처기업 간 임금격차 축소와 핵심인력 고용유지를 견인한다. 또한, 내일채움공제기금 운용 수익의 일부를 근로자 교육·복지서비스(연수원과 연계한 온·오프라인 직무교육, 온라인복지물, 단체상해보험 등)를 제공하기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근로여건 향상을 지원한다.

(성과공유기업 확산) 성과공유기업에 대한 정책자금(일자리창출촉진자금) 신청자격 부여, 정부지원사업(일자리) 평가 시 가점 반영 및 성과공유 인지도 제고와 도입 유도를 위한 홍보 콘텐츠 제작·전파 등을 통해 사업주-근로자 간 성과공유 문화 확산에 기여한다.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출자회사 현황

(주)중소기업유통센터

중소기업유통센터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9조(중소기업제품판매회사의 설립)」에 의거 중소기업제품의 판로지원을 위한 국내·외 전시장 및 관련시설의 설치·운영을 목적으로 1995년 12월 21일 설립되었다.

중소기업제품의 판로지원을 위하여 1999년 12월 3일 목동판매장(행복한세상백화점)을 개점하였다. 2012년 9월에 '행복한백화점'으로 이름을 변경하고 지금까지 창업벤처제품, 청년창업사관학교 제품 등의 초기 테스트 판매를 지원하고 있으며 2015년 10월에는 창조혁신제품의 '유통 마중물' 역할의 확대를 위해 4층 중소기업전용판매장을 「아임쇼핑」으로 개편하였다.

또한 중소기업전용판매장을 유동인구가 많은 장소에 설치하여 소비자가 우수 중소기업제품 사용을 더 쉽게 체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판매성과 제고를 위해 면세점 위주의 매장 개편도 실시하는 등 '19년에 총 11개의 중소벤처기업전용판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판로채널 확대를 위해 2011년에 중소기업전용홍소핑인 (주)홈쇼핑 설립시 주요주주(지분 15%)로도 참여하고 있다. 2015년 3월에는 농산물 판로확대, 창의·혁신상품에 대한 시장진입 장벽 해소, 불공정거래 개선 등을 위해 농협경제지주와 수협중앙회의 컨소시엄 구성을 통해 (주)공영홈쇼핑을 설립하고 최대주주(지분 50%)로써 중소기업 제품의 방송판매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온라인 판매지원사업으로는 7대 홈쇼핑의 중소기업제품 방송 런칭 등 판매대행과 오픈마켓, 종합몰, 소셜미디어, 동반성장몰 등 온라인 쇼핑몰에 중기제품 판매지원을 하고 있다.

그 밖에도 마케팅역량강화지원, 유통망진출지원, 중소기업공동A/S지원 등 중소기업의 판로활성화를 위한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2019년도 신규사업인 공공구매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대

2019년 말 기준 조직도



전에 공공구매지원센터를 설치하였으며, 중소기업 공동브랜드개발 및 육성(브랜드K), 소상공인제품 온라인 진출지원 등의 신규사업을 추진하였다. 이와 같은 온오프라인 판로지원사업을 통해 2019년도 14,269개 중소기업에 3,832억 원 규모의 판매를 지원하였다.

한국벤처투자(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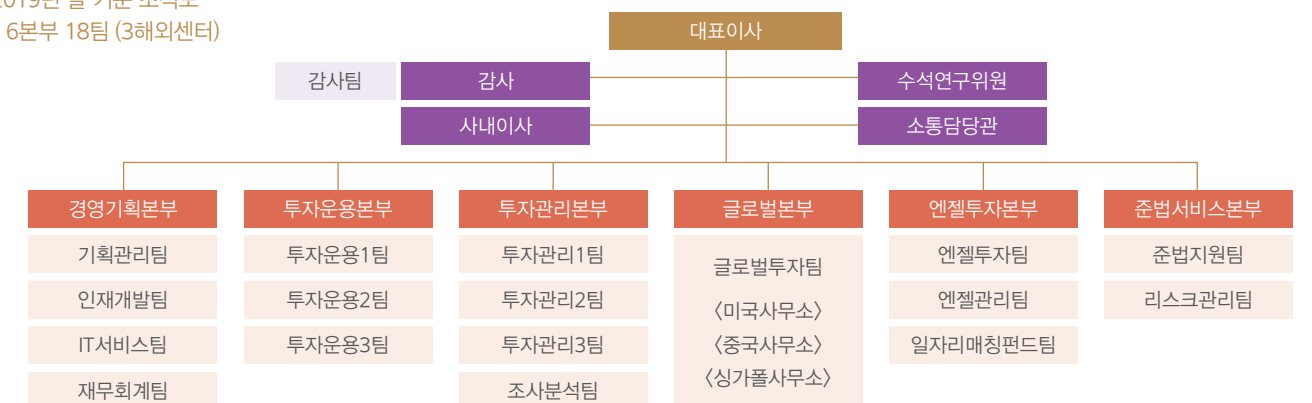
한국벤처투자(주)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촉진법」에 의거,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결성한 중소기업투자모태조합을 관리·운영하는 투자관리전문기관으로서 2000년 3월 31일 개소하였다. 중소벤처기업투자모태조합은 2019년 12월 말 기준 4조 5,217억 원이 조성(중기부 포함 10개 부처 참여)되었고, 이를 모태조합에 출자하여, 누적 총 765개, 24조 8,617억 원 규모의 자펀드를 조성·운영 중으로 출자금 대비 5.5배의 승수효과를 달성하였다.

〈주요업무〉

-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 등에 대한 출자
-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 해외벤처투자자금의 유치지원,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육성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사업

그 밖에 한국벤처투자(주)는 해외 벤처투자 네트워크 구축 및 국내 중소·벤처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KVIC Global GP Summit'을 개최하고, 해외VC 외자유치펀드를 확대 조성하였다. 또한 GP(General Partner) 및 LP(Limited Partner) 간담회 및 포스코와 벤처펀드 출자 관련 자문계약 체결, KEB하나-KVIC 유니콘 모펀드 출자사업 진행 등을 통해 민간자본의 벤처시장 진입을 지원하였다. 더불어 KVIC MarketWatch(벤처캐피탈 전문 월간지) 발간, 스타트업-대기업 협업채널 구축지원 등을 통해 벤처캐피탈산업 관계자들을 지원하고 있다.

2019년 말 기준 조직도
: 6본부 18팀 (3해외센터)



㈜SBC인증원

(주)SBC인증원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7조와 산업자원부의 중소기업 품질경영체제 인증관련 사업추진 위촉에 따라 중소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1995년 7월 28일 중진공 자회사 ISO9000 인증기관으로 설립되어 품질경영체제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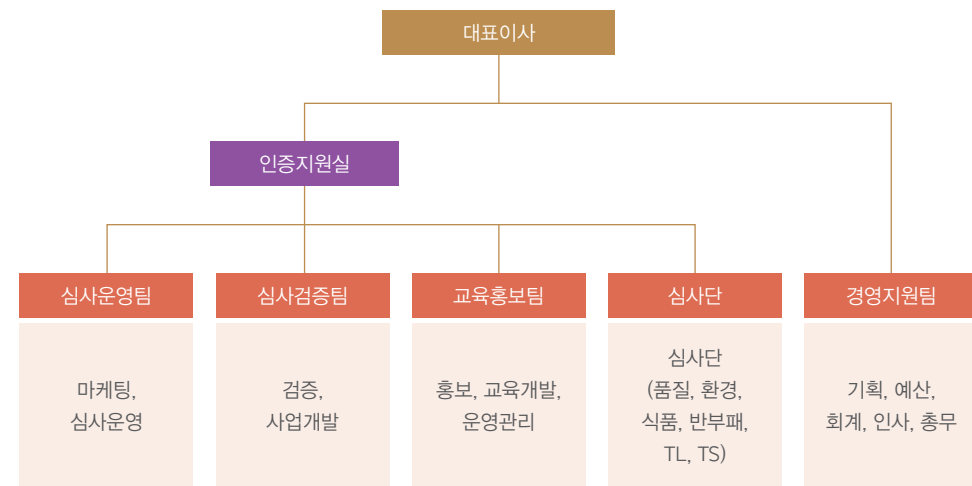
SBC인증원은 ISO9001(품질경영시스템), ISO14001(환경경영시스템), ISO22001(식품안전 경영시스템), TL9000(정보통신분야 품질경영시스템), ISO45001(안전보건 경영시스템), ISO37001(부패방지 경영시스템)등의 인증서비스를 수행하고 있다.

- ISO(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9001/14001/22001 : 국제표준화기구에서 제정 시행되고 있는 품질경영체제(9001), 환경경영체제(14001), 식품안전경영체제(22001) 규격, 안전보건경영체제(45001) 규격, 부패방지경영체제(37001) 규격
- TL9000(Telecommunication Leadership 9000) : 정보통신업계의 품질보증 규격

〈사업실적〉			
구분	인증건수	매출액	당기순이익
2017	833	5,986	158
2018	805	4,704	50
2019	210	2,319	53

(단위 : 건, 백만 원)

2019년 말 기준 조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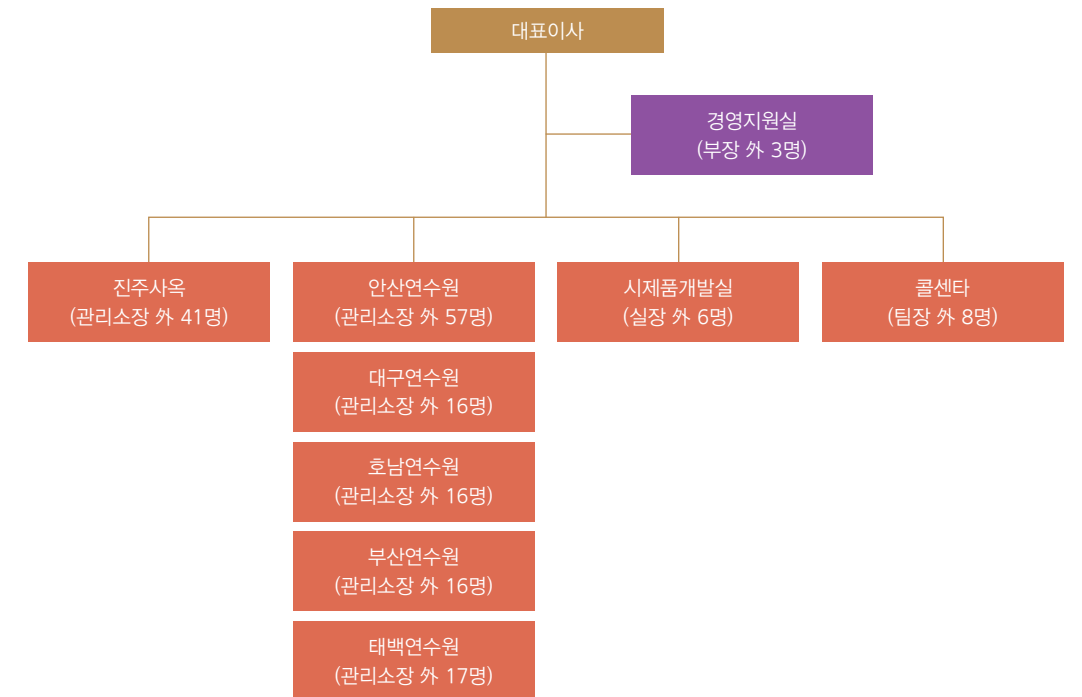
중진공 파트너스(주)

중진공파트너스(주)는 '17.7.20.정부의 공공기관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른 중진공 내 시설 관리 등 일반 용역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함으로써 고용안정성을 제고하고, 중진공 자산(설비)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데 목적으로 '18.7.1. 설립되었다.

〈주요업무〉

- 중소기업진흥공단 본사 및 연수원(5개) 시설관리용역, 경비, 미화, 사감, 기타용역 업무
- 청년창업사관학교 신제품 개발 지원을 위한 신제품개발실 위탁 운영 업무
- 콜센터(연체관리) 운영 용역 업무

2019년 말 기준 조직도 : 1실 8사업장 (총 190명)



조직도



6본부 10실, 18처,
32지역본·지부, 5연수원, 1학교, 1해외센터
(2020년 7월 기준)

Korea SMEs and Startups Agency
AR 2019

운영위원 (2020년 7월 기준)

구분	성명	소속기관	직위
위원장	김학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당연직	한 훈	기획재정부	경제예산심의관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성장정책관
	황수성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관
	서승원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위촉직	조규대	기술보증기금	전무이사
	박동수	전주대학교	명예교수
	최정운	㈜한우물	대표이사
	정세은	충남대학교	교수
	이의영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중앙위원회	의장
	김도현	국민대학교	교수
	임정욱	TBT	공동대표
	박미경	(사)한국여성벤처협회	회장
	김영주	IBK중소기업은행	부행장
	이정영	전북은행	단장

임원 (2020년 7월 기준)

직위	직무	성명
이사장	중진공 업무 총괄	김학도
감사	중진공의 업무 및 회계 감사	곽성근
부이사장 겸 기획본부장	이사장 업무대행 또는 보좌, 예산, 조직, 인사, 경영전략 및 조직혁신 등과 관련된 업무	조정권
경영관리본부장	기금관리, 조직문화, 평가, 정보보안 등과 관련된 업무	이인섭
혁신성장본부장	기업진단, 정책자금 융자, 리스크관리 등과 관련된 업무	최학수
글로벌성장본부장	중소벤처기업 국내·외 판로확대, 마케팅 지원 등과 관련된 업무	이성희
일자리본부장	연수, 성과보상기금, 창업·기술지원 등과 관련된 업무	김형수
기업지원본부장	지역본·지부 운영, 사업집행 관리·조정 및 평가 업무	정진우
비상임이사	중진공 경영 의사결정 참여, 경영활동 감시 및 자문 등의 업무	김대곤
비상임이사	"	이근형
비상임이사	"	정송이
비상임이사	"	최영기
비상임이사	"	최정현
비상임이사	"	허정
비상임이사	"	허정현
비상임이사	"	황영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2019 연차보고서

발행일: 2020년 7월

기획 및 편집: 중소기업진흥공단 디지털혁신실

발행인: 김학도 이사장

발행처: 중소기업진흥공단

디자인·인쇄: 오엔